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초록

긴밀한 절 공기를 형성하는 부사적 표현

최 종 원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에서 특정 부사적 표현이 쓰일 때, 특정 절과 특정 절의 긴밀한 의미론적 공기 관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부사적 표현들이 나타나는 구문의 전반적인 문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10개의 부사적 표현들을 분석하여 문법 사항들을 기술하고 개별 부사적 표현들이 형성할 수 있는 절 공기 패턴을 분석하였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10개의 부사들은 의미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절 공기 관계의 개념을 소개하고, 부사적 표현이 절과 절 간의 공기 관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절 공기(clause collocation) 관계는 관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절과 특정 절의 일종의 의미적 패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절과 절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대표적 요소는 연결어미이다. 그러나 부사적 표현도 절과 절 간의 의미론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의미 운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의미 운율은 어떤 어휘가 문맥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현상인데, 절 공기 관계나 구문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에 유용한 개념이다.

3장에서는 중첩되는 사태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들에 대하여 다루었다. ‘가뜩이나’와 ‘안 그래도$_3$’의 경우 의미적인 패턴이 유사한데, 이는 통사적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의 구문 패턴이 닮아 있음이 확인된다. 접속부사에 속하는 ‘더욱이’에 대해서는, 선행절의 내용에 한층 더한 사태를 부가한다는 기능과 후행절과의 관련성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척도 판단과 관련된 부사적 표현들인 ‘차라리’, ‘오히려’, ‘하다못해’, ‘하물며’를 다루었다. 이들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와 ‘오히려’가 의미적 전염에 의해 용법이 서로 확장되며, ‘하다못해’와 ‘하물며’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전반적인 문법 사항들을 기술하고, 절 공기 관계를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화자가 판단하는 바의 근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적 표현들인 ‘어쩐지’,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를 다루었다. ‘어쩐지’와 ‘아니나 다를까’는 특히 용법이 유사한데, 구문의 패턴 역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어차피’는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다양하였다. 대체로 어떤 결정에 대해 이유, 근거 등의 내용이 ‘어차피’에 후행하여 절 공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절 연어, 공기 관계, 패턴, 부사, 부사적 표현, 척도, 가뜩이나, 안 그래도, 더욱이, 차라리, 오히려, 하다못해, 하물며, 어쩐지,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

학번: 2014-22231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4
1.3. 논의의 구성 ····· 8

2. 기본 논의 ····· 8
2.1. 절 공기(clause collocation) 관계 ····· 8
2.2. 부사적 표현과 절 공기 관계 ····· 13
2.3.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 ····· 20

3. 중첩되는 사태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 ····· 24
3.1. ‘가뜩이나’ ····· 24
3.1.1. ‘가뜩이나’의 기본적 의미 ····· 24
3.1.2. ‘가뜩이나’의 구문적 특징 ····· 25
3.1.3. 요약 ····· 38
3.2. ‘안 그래도’ ····· 39
3.2.1. ‘안 그래도’의 기본적 의미 ····· 39
3.2.2. ‘안 그래도’의 구문적 특징 ····· 40
3.2.3. 요약 ····· 48
3.3. ‘더욱이’ ····· 49
3.3.1. ‘더욱이’의 기본적 의미 ····· 49
3.3.2. ‘더욱이’의 구문적 특징 ····· 50
3.3.3. 요약 ····· 58

4. 척도 비교와 관련된 부사적 표현 ····· 60
4.1. ‘차라리’ ····· 60
4.1.1. ‘차라리’의 기본적 의미 ····· 60
4.1.2. ‘차라리’의 구문적 특징 ····· 67
4.1.3. 요약 ····· 74
4.2. ‘오히려’ ····· 75
4.2.1. ‘오히려’의 기본적 의미 ····· 75
4.2.2. ‘오히려’의 구문적 특징 ····· 80
4.2.3. 요약 ····· 83
4.3. ‘하다못해’ ····· 84
4.3.1. ‘하다못해’의 기본적 의미 ····· 84
4.3.2. ‘-다 못하-’ 구성과의 의미적 연관성 ····· 87
4.3.3. ‘하다못해’의 구문적 특징 ····· 93
4.3.4. 요약 ····· 96
4.4. ‘하물며’ ····· 98
4.4.1. ‘하물며’의 기본적 의미 ····· 98
4.4.2. ‘하물며’의 구문적 특징 ····· 102
4.4.3. 요약 ····· 109

5. 판단의 근거와 관련된 부사적 표현 ····· 110
5.1. ‘어쩐지’ ····· 110
5.1.1. ‘어쩐지’의 기본적 의미 ····· 110
5.1.2. ‘어쩐지$_2$’의 구문적 특징 ····· 111
5.1.3. 요약 ····· 116
5.2. ‘아니나 다를까’ ····· 117
5.2.1. ‘아니나 다를까’의 기본적 의미 ····· 117
5.2.2. ‘아니나 다를까’의 구문적 특징 ····· 118

5.2.3. 요약 ····· 120
5.3. ‘어차피’ ····· 121
5.3.1. ‘어차피’의 기본적 의미 ····· 121
5.3.2. ‘어차피’의 구문적 특징 ····· 122
5.3.3. 요약 ····· 131

6. 결론 ····· 132

참고문헌 ····· 135
부록: 말뭉치 자료 목록 ····· 138
ABSTRACT ····· 147

1. 서론

1.1. 연구 목적

한국어에서 특정 부사적 표현[1)]이 쓰일 때, 그 부사적 표현을 중심으로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절 단위 요소들이 높은 공기 관계를 보이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 아래 (1)이 그 예이다.

(1) 가. <u>자칫</u> [A 잘못했으면] [B 눈까지 멀 뻔했다].
가′. <u>자칫</u> [A 잘못하여 꼬리가 잡히는 날에는] [B 지금까지 공들인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고 만다].
나. [A 그런 책은 <u>백날</u> 봐야] [B 도움이 안 된다].
나′. [A 승용차를 <u>백날</u> 뒤져 봐라]. [B 거기에서 만약 무슨 단서가 나오면 내가 성을 갈겠다].

(1)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사 ‘자칫’과 ‘백날’은 절[2)] A, B와 함께 특정 맥락에서만 쓰여 특정 구문을 형성한다. ‘자칫’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일을 그르치면 부정적 사태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구문을 형성한다. ‘백날’은 주로 ‘오랫동안 무언가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의미하는 구문

1) 본고에서 주목하는 대상들 중에는 하나 이상의 단어들의 구성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문장 성분 층위의 술어인 부사어라고 부르기보다, 부사의 특징을 가진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부사적 표현이라 통칭한다.
2) 한국어 문법론에서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어 큰 문장에 안겨 있는 성분의 재료(고영근·구본관 2008: 565)라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정의이다. 이에 따르면 (1나′)의 A는 문장이지 절이 아니다. 그렇다면 ‘백날’이 나타날 때, ‘A와 B는 ‘절’로서 공기 관계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선웅·이은섭(2013), 구본관 외(2015: 206), 이선웅(2015)에서는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단문, 두 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이라 보고 있으며 절과 문장이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고 ‘절≦문장’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장은 종결 형식을 취한 절이며, 위 (1나′)에서 A, B도 문장 형식을 갖춘 절로 볼 수 있다. 절의 개념에 대해 본고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화자라면 '자칫'과 '백날'이라는 두 어휘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동의할 것이며, '자칫'과 '백날'은 (1)과 같은 쓰임이 전형적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할 것이다. 본고는 '자칫'과 '백날'와 같은 부사적 표현이 특정 구문에서만 쓰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단순히 이들이 특정 구문에서만 쓰인다고 기술하기보다, 이 두 부사가 특정 내용의 절과 의미적 공기 관계를 이루며, 이들은 구문적인 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들의 구문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자칫'의 전형적인 패턴

가. 의미적 패턴: [**자칫** {절 A: 잘못되는 경우} {절 B: 절 A에 따른 부정적 결과}]

나. 형태·통사적 패턴: [**자칫** {절 A: -면, -다가는} {절 B: '-(으)ㄹ 뻔하다', '-(으)ㄹ 수 있다'}]

다. 기타 특징: 절 A에는 '잘못하-, 실수하-, 방심하-' 등의 표현들이 주로 나타남

(3) '백날'의 전형적인 패턴

가. 의미적 패턴: [**백날** {절 A: 어떤 행동의 시도} {절 B: 기대 사태의 비실현}]

나. 형태·통사적 패턴: [**백날** {절 A: -어/아 (봐)야, -(봐)라, -(봐)도} {절 B}]

다. 기타 특징: 절 B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어가 나타남.

부사 '자칫'과 '백날'을 (2), (3)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 이유는 한국어에서 특정 부사적 표현이 쓰일 때, 특정 절과 특정 절이 특징적인 공기 관계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을 예시하기 위함이다. 부사 '자칫'이 위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 까닭은 '자칫' 자체의 어휘적 의미와도 연관이 있겠으나, 그 어휘적 의미로 인해 필연적으로 (2)와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백날'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 문법에서 '백날' 역시 의미상 꼭 (3)과 같은 구문에서만 쓰여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다만 특정 구문에서의 용법이 위와 같은 패턴의 틀로

고착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정 부사적 표현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에서의 의미적 공기 제약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특정 부사적 표현이 쓰일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절과 절이 공기하는 현상을 'clause collocation'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한국어 문법론에서 익숙하게 대응되는 용어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clause'는 '절', 'collocation'은 '연어'로 대치시킨다면, 'clause collocation'을 '절 연어'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래 collocation, 즉 연어라는 현상은 어휘소와 어휘소, 혹은 어휘소와 문법소 간의 결합 관계를 그 대상으로 삼아 왔다[3]. 따라서 한국어 문법론에서 'collocation'이라고 하면 보통 단어와 단어와의 결합 관계를 그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연어'라고 번역해 왔다. 또한 전통적으로 collocation이라 불리는 언어 현상은 보통은 둘 이상의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하는 현상을 일컬어 왔다[4]. 이 같이 그 구성단위를 단어에서 절로 확장하는 것이 다소 이질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collocation이라는 개념을 좀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같이 나타남', 즉 공기(共起, cooccurrence)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어떤 부사적 표현이 쓰이는 경우, 특정 내용의 절과 절이 자주 공기하는 현상을 'clause collocation'이라 하여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를 '절 연어'라고 적극적으로 번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사항과 연관된다. 만약 이 현상에 대해 '절 연어'라 번역한다면, 혹자는 다소 이질적인 번역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여기서 '연어'의 '어(語)'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어(語)'가 쓰였다는 사실 자체가 '단어'에 대응되는 개념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절(連節)'이라는 낯선 용어를 함부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앞서 collocation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한 것처

---

3) 이 같은 연어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의 성격에 따라 소위 어휘적 연어, 문법적 연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물론 단순히 구성 요소의 성격에 따라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가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근석(2010: 75~83) 참고.

4)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어 현상에 관심을 기울인 Vinogradov(1947)에서도 '성구적(成句的) 단위(phraseological unit)'라는 일반적인 범주 아래에 '성구적 융합(phraseological fusion)', '성구적 통일(phraseological unities)', '성구적 조합(phraseological combination)'이라는 세 유형을 두었다(Cowie(ed) 1998: 2~8). 임근석(2010: 28)에서 재인용.

럼, clause collocation은 긴밀한 절 공기 관계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특정 부사적 표현이 쓰일 때, 특정 절과 특정 절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론적 공기 관계 양상, 즉 부사적 표현이 형성하는 긴밀한 절 공기(clause collocation)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부사적 표현들의 통사·의미적 특징들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고의 대상이 되는 부사적 표현들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다룬 논의는 기존의 한국어 문법론에서 비교적 다루어진 바가 적다고 생각되므로, 본고의 논의는 한국어 문법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제 긴밀한 절 공기를 형성하는 부사적 표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본고의 연구 대상을 한정하도록 하자. 사실 한국어에서 절과 절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요소는 부사보다는 연결어미일 것이다. 그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연결어미의 주 기능은 절과 절을 연결하여, 연결된 절 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5]. 따라서 어떤 연결어미가 쓰이느냐에 따라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연결어미들은 절과 절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큰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사 중에도 연결어미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부류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부사는 수식 범위에 따라 성분부사와 문장부사[6]로 나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장부사는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 혹은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는 부사이다. 그 특징이 전술하였던 연결어미와 유사하다. 그런데 전형적인 접속부사에 속하는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등은 앞뒤 요소들의 의미 관계를 이어주기는 하지만, 앞뒤 요소들 간의 결합 제약이

5) 논자에 따라서는 절과 절 간의 '접속'이라 하기도 한다.
6) 구본관 외(2015: 187~188)에서는 '절 부사'라고 부른다. 이는 해당 부사들이 수식하는 대상을 문장이라기보다 절로 볼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한다.

매우 자유롭다. 가령 '그리고'는 앞 내용과의 의미적 상관관계가 없어도, 화자가 앞선 내용에 어떤 내용이든 더 발화하고 싶으면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그리고' 다음에 얼마든지 다양한 표현들이 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접속부사들은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요소들, 즉 절과 절 간의 긴밀한 의미적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들로는 볼 수 없다고 여겨지므로 제외된다.

한편 고영근·구본관(2008: 134)은 전형적인 문장부사와 양태부사와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것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4) 곧, 즉(卽), 또, 또한, 더구나, 도리어, 오히려, 하물며, 따라서, …

고영근·구본관(2008: 134)에는 (4)의 예들이 문장부사인지, 양태부사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고만 기술되어 있다. 이들은 아마도 문장부사(그 중 접속부사)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양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부사 범주의 하위부류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더구나, 하물며'는 앞 내용에 어떤 내용을 더한다는 점에서 '그리고'와 유사하지만, '그리고'와는 달리 '더구나, 하물며'는 화자의 양태도 전달하며, 특히 '하물며'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리고'와 차이를 보인다. 화자의 양태를 전달하게 되면서, 양태 속성과 잘 어울리는 형태적 표지도 동반하기도 한다[7]. 앞서 예시한 '자칫'과 '백날'도 어휘 자체의 의미에 화자의 양태도 동반되어 특정 맥락에서 절과 절 간의 의미론적 공기 관계를 형성하였듯이, 한국어에서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부사나 부사적 표현들이 더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장부사 중 양태부사와 같은 성격을 지닌 부사적 표현들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양태부사와 같은 성격을 지닌 모든 부사적 표현들을 본 논의에서 다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부사적 표현들 중 특징적으로 다룰 만한 것들을 10여 개 정도 선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는, 한국어에서 긴밀한 절 공기를 형성하는 부사적 표현들 중 우선적으로 특징적인 것

7) 대체로 '하물며'는 의문형 종결어미나 반문의 종결어미 '-랴'와 많이 공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들을 추려 절 공기 양상을 제시하여 앞으로 더 다양한 부사적 표현이나 나아가 연결어미들의 절 공기 양상과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 포석으로서의 의의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손남익(2014)는 한국어 부사의 의미 특성을 정리한 사전인데, 이를 참고하여 아래 (5)의 목록을 제시한다.

(5) 가. 가뜩이나, 안 그래도, 더욱이
나. 오히려, 차라리, 하다못해, 하물며
다. 어쩐지,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

(5)는 손남익(2014)의 부사 목록 중 직관상 특정 상황에서 쓰이면서 패턴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사들을 추린 것이다. 물론 (5)의 목록 외에도 본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사적 표현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서 논의 전개의 편의를 위해 제시한 '자칫', '백날'과 같은 부사들도 그러한 부사들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구나', '또', '뿐만 아니라', '특히', '아울러', '심지어', '물론', '웬일로', '오죽하면', '도대체', '아무리', '행여', '아닌 게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등의 부사적 표현들도 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열거한 부사적 표현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다. 또한 원활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대상이 많을수록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분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5)는 의미적으로 묶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사적 표현들인 것이다. 가능한 많은 대상을 확보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보다, 응집성 있는 논의 전개를 위해 본고에서는 (5)의 목록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

(5가)는 중첩되는 사태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들이고, (5나)는 비교 선택과 관련된 부사적 표현들이고, (5다)는 화자의 예상/판단과 관련된 부사적 표현들이다. 논의 과정에서 이들 표현과 유의어 관계에 놓여 있는 대상들도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가령 '더욱이'는 '게다가'와 같은 표현이, '안 그래도'는 '그렇지 않아도'와 같은 표현이, '어쩐지'는 '왠지'와 같은 표현이, '아니나 다를까'는 '아니나 달라'와 같은

표현이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5)의 개별 부사적 표현을 통사·의미적으로 분석하여, 어휘적 특징뿐만 아니라 구문적 특징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말뭉치 자료로써 논의의 근거를 보충할 것이다. 대체로 (5)의 표현들은 구어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어 말뭉치 자료가 주된 분석 자료가 되겠다. 본고에서는 사용한 구어 말뭉치는 <이민 준구어 말뭉치>로, 총 7454회에 해당하는 영화 및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는 약 24,260,020어절이다. 그러나 어휘에 따라서는 구어뿐만 아니라 문어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 문어 말뭉치 역시 적시에 활용할 것임을 밝힌다. 문어 말뭉치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2011.12. 수정판)의 현대 문어 원시 말뭉치 36,942,784 어절을 활용할 것이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될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정의할 clause collocation, 즉 절 공기의 개념과 더불어, 부사와 절 공기의 관계, 나아가 본고의 연구 대상과 개념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문법적 연어나 소위 호응 부사류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중첩되는 사태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들인 ‘가뜩이나’, ‘안 그래도’, ‘더욱이’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척도 판단과 관련된 부사적 표현들인 ‘오히려’, ‘차라리’, ‘하다못해’, ‘하물며’를 다룬다.

제5장에서는 화자가 판단하는 바의 근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적 표현들인 ‘어쩐지’,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를 다룬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논의를 정리하는 장이 될 것이다.

2. 기본 논의

2.1. 절 공기(clause collocation) 관계

본고에서 사용하는 절 공기(clause collocation) 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관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절과 특정 절의 일종의 의미적 패턴이라 할 수 있다[8]. 앞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듯이, 이를 '절 연어'로 번역하는 수가 있겠다. '절 연어'로 번역한다면, 이때의 '절 연어' 개념은 전술하였듯이 좀 더 원론적으로 '같이 나타남', 즉 공기(共起, cooccurrence)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기하는 요소가 '단어'가 아닌 '절'[9]이라는 점에서 단어로 구성되는 관용표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특정 단어와 특정 단어를 관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두 단어는 관습적인 공기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절과 특정 절을 관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역시 두 절은 공기 관계에 있는 것이다. 물론 단어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두 요소의 관습적 공기 관계가 절대적 우연 관계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의미적 요소가 어떻게든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clause collocation이라는 개념을를 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1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연어 개념은 주로 단어를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절 연어'라 번역하게 되면,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에 '절'을 갖다 붙임으로써 혹자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혼동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clause collocation에 대해 '절 연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그 개념적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절 공기'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다룰 부사에 의한 절 공기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진

---

8) 관습적인 표현(conventional expression)은 곧 관용표현이다. 관습적인 성격을 띠는 현상의 대표적인 부류는 '숙어(idiom)', '연어(collocation)', '화용론적 관용표현'이다. 박진호(2003: 366)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부류의 관습성(conventionality)은 날카롭게 구분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관습성 차원에서는 세 부류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관습의 경향에 따라 넓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9)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의 절 개념은 문장까지를 포괄한다.

절과 어떤 성질을 가진 절이 임의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함께 현저하게 공기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경향성은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 주요 개념으로 상정하는 절 공기(clause collocation) 현상에 대해서는, Hunston and Francis (2000: 226~227), Hunston (2002: 75)에서 소개된 바 있다. Hunston and Francis (2000)은 영어의 몇몇 절 공기 패턴을 기술하였는데, 그 중 담화 패턴(discourse pattern)을 예시하고 논의하였다. 가령 접속어(conjunction, CONJ)와 절(clause, CL)로 이루어진 CONJ cl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는 절과 함께 등위 혹은 종속 접속어가 같이 선택되어 나타난다. 접속어와 절이 공기하는 양상에 따라 CONJ cl cl, cl CONJ cl 등의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아가 절들이 함께 어울리는 이러한 현상을 절 공기(clause collocation) 현상이라 불렀다. 그리고 'as a rule'과 같은 구(phrases)의 예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였다. 'as a rule'은 뒤에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진술이 후행하고, 그 다음에 특정 내용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PHRASE general 패턴과 PHRASE general specific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as a rule'의 절 공기 패턴은 아래와 같다.

(1) as a rule의 절 공기 양상
가. as a rule, 원칙적인 내용
나. as a rule. 원칙적인 내용, 원칙에 맞는 사례
다. as a rule, 원칙적인 내용, but 원칙에 맞지 않는 사례

그렇다면 'as a rule'의 세 가지 절 공기 패턴 중 가장 전형적인 패턴은 무엇일까? Hunston and Francis (2000)에서는 'as a rule'에 대해 임의로 36개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16개의 용례들에서 '원칙적인 내용, 그러한 원칙에 맞지 않는 사례' 패턴이 나타났고, 다른 20개의 용례들에서는 '원칙적인 내용'에 구체적 사례가 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s a rule'의 가장 빈번한 패턴을 PHRASE general, 또 다른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PHRASE general specific이라 하였고, 이들 빈번한 패턴들은

‘as a rule’이 보이는 절 공기 패턴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이외에도 ‘so far so good’, ‘begin by V-ing’, ‘you might expect’로 예를 들어 절 공기 현상을 설명하였다[11].

이후 패턴 문법(pattern grammar)은 단어나 구 층위에서뿐만 아니라 담화 층위에서 서로 간에 선택되는 현상에 대해 기술해왔다. 그리고 일부 패턴들에는 이러한 상호 선택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Warren 2015: 146). Hunston (2002: 75)은 텍스트 내에서 범위를 보다 넓혀서 어떤 절이 다른 절과 같이 나타나는 경향(the tendency of one kind of clause to co-occur with another) 정도로 절 공기 현상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 예로 영어의 ‘I wonder’를 들었다. 주로 구어에서 ‘I wonder’로 시작되는 절은 ‘because’로 시작되는 절과 상당히 빈번하게 공기함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 wonder’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I wonder ~ , because ~ ’와 같은 구문으로 잦게 쓰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은 정형화될 수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법 단위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unston (2002: 75)에서는 기존에는 어떤 단어에 인접한 다섯 단어까지를 그 범위로 정해 왔다면, 공기 관계에서 상호 선택 양상을 파악할 때에는 좀 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언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때, 해당 단어의 좌우 몇 단어까지 관찰 폭을 한정하게 되면, 간과하여 포착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패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iepmann (2005)도 이러한 절 공기 현상을 상호 연결된 절들이 하나의 틀에 짜여져 있다는 차원에서 ‘long-distance collocation’이라 하였다. 그 예로 영어의 ‘turning to’를 들었는데, ‘turing to’의 후행절에는 어떤 화제가 소개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그 경향을 살펴본 결과, I/we + find/see/note 혹은 it appears

---

10) 이러한 패턴이 관찰되면 그 패턴의 형성 기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as a rule’이 보이는 PHRASE general specific과 같은 패턴은, 어떤 화제나 대상을 소개하기 위한 전략의 일종일 것이다. 후행하는 구체적 사례가 보편적이지 않을 만큼 특별함을 부각시키거나 담화를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한 방책으로, 영어 화자들은 이와 같은 패턴을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1) 이 중 ‘begin by V-ing’ 같은 경우는, 패턴이 포착될 만큼 경향성이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상정한 PHRASE contrary action과 같은 패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that과 같은 표현들이 후행절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12]. 또한 'not ~ any mote than ~ '과 같은 패턴을 예로 들면서 그의 용어인 'long-distance collocation'을 선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Charles (2009)는 문어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only의 사용 경향에 대하여 살폈다. 이외에도 Warren (2009)에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상에 대해 'organisational frameworks'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일부 'organisational frameworks'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표현들이다. Warren (2015: 147~148)에 의하면 우선 문법에서 'organisational frameworks'를 두 범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correlative coordinators' (Bibe et al. 1999; Quirk et al. 1985), 혹은 'parataxis: correlatives' (Halliday & Matthiessen 2004)이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either ... or, not only ... but, both ... and'와 같은 표현들이 이에 속한다. 또 다른 하나의 범주는 'correlative subordinators' (Biber et al. 1999; Quirk et al. 1985) 혹은 'hypotaxis: correlatives' (Halliday & Matthiessen 2004)이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because ... so, as ... as, if ... then'와 같은 표현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넓은 범주 안에서 특정 내용의 절들이 공기 관계를 갖는 현상은 특정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에서도 관찰되는 범언어적 현상일 것이다. 가령 독일어의 'eigentlich'도 본고에서 다루는 clause collocation의 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부사로서의 'eigentlich'는 '원래, 실제로' 정도의 의미인데, 이 외에도 아래 (2)와 같이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로 쓰이는 경우가 관찰된다(Eckardt 2011: 7). 담화 표지로서 'eigentlich'의 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2) 가. Eigentlich hast Du recht.
('After some reflection, I think that you're right')
나. EIGENTLICH hast Du recht.
('In one sense you are right (but in another…)')

Eckardt (2011: 7)

12) 자세한 용례는 Siepmann (2005: 427~428) 참조.

위 (2)의 ‘eigentlich’는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로 쓰이고 있다[13]. (2가, 나) 둘 다 ‘네가 맞아’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의 저변에는 차이가 있다. (2가)는 ‘(생각해보니까) 네가 맞아’이지만 (2나)는 ‘(어떤 면에서는) 네가 맞아’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후행절(문)의 양상의 차이로 이어진다. (2나)의 뉘앙스로 쓰이는 ‘eigentlich’ 뒤에는 상대 의견에 반(反)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난다[14]. 정리하자면 독일어 부사 ‘eigentlich’는 본연의 의미(‘실제로, 사실은’ 정도의 의미)와 담화 표지로서의 두 가지 용법을 보이는데, 실제 ‘eigentlich’의 용례들을 수집하여 후행절(문)과의 공기 관계를 살펴서 특정 경향이 발견된다면(이를테면 (2나)와 같이 후행절의 내용이 선행절의 내용 혹은 상대의 발화 내용에 대한 대조적 내용이 잘 나타난다면), ‘eigentlich’ 역시 절 공기를 형성하는 일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물론’과 같은 부사도 ‘eigentlich’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나)의 ‘eigentlich’의 용법은 ‘eigentlich’가 기본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주장 혹은 의견을 개진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대화 전략 중 하나로 문법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추측이 설혹 사실이 아니더라도, 한국어에서도 자신의 주장 혹은 의견을 개진할 때 여러 대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우선 상대의 의견을 일정 부분 인정한 뒤,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책일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요소로 ‘물론’과 같은 부사의 예를 들 수 있다(예를 들면 ‘물론 네 말도 맞는데 ... ’). 만약 한국어에서 ‘물론’이 실제 코퍼스 자료를 조사하여 ‘[[물론 ...], [(그에 대조되는 내용)]]’과 같은 경향이 충분히 보인다면, 본고에서 상정하는 절 공기 형성의 일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는 절 공기라는 현상에 대해 어떤 논저에서부터 언급되어 왔

---

13) 때문에 ‘eigentlich’는 문맥에 따라 한국어나 영어의 번역어가 다르다. ‘eigentlich’는 형용사와 부사로 양용되는데, 여기에서는 부사로서의 쓰임을 말한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서 제시한 번역어도 여러 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본래; 엄밀히, 참으로, 실제로; 도대체’ 등 정도로 번역된다(두산동아 프라임 독일어 사전 참조).

14) 이 구분은 악센트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2가)에 비해 (2나)의 ‘eigentlich’의 악센트가 더 강하다.

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꼭 'clause collo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해당 현상에 대해 대동소이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략하게나마 절 공기 현상이 독일어, 한국어에서도 포착될 수 있으며, 이 현상이 언어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론 영어권 논저에서 먼저 절 공기 관계(clause colloc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본고에서 그 개념을 무턱대고 원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통사 구조가 다르지만,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절 공기 현상은 절 관계에서 나타나는 통사상의 패턴에 주목하기보다는 절(문장)이 나타내는 의미상의 패턴과 관련되는 것이다[15]. 따라서 clause collocation이라는 개념을 원용하는 것이, 이질적인 타 언어의 특정 현상을 무리하게 한국어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Hunston & Francis (2000), Hunston (2002), Siepmann (2005), Charles (2009), Warren (2009) 등에서 기술하였듯이 절 공기 현상은 특정 표현이 특정 절과 절 간에 긴밀한 공기 관계를 이루며 어울릴 수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단순히 '어떤 요소 A가 나타날 때, 특정 내용의 절 B와 절 C는 특정 의미로서 공기 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현저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러한 현상은 절 공기 관계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본고는 우선적으로 한국어의 특정 부사적 표현을 중심으로 절 공기 현상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부사적 표현과 절 공기 현상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2. 부사적 표현과 절 공기 관계

전술하였듯이 한국어에서 절과 절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대표적 요소는 연결어미이다. 가령 연결어미 '-(으)ㄹ망정'은 후행절과 '양보', '대조', '첨가'의 세 가지 의미론적 관계를 가진다. 또 의문 표현과 결합한 연결어미 '-길래'는 후행절에 의문문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절과 절의 관계는 각각의 연결어미가 정하는 것이

15) 물론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통사적인 요소도 같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변적인 기술 사항에 해당된다.

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특정 부사적 표현은 절 공기 현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한 부사적 표현과 절 공기 현상의 공기 관계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 다뤄진 바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1장에서 다루었던 부사 '백날'의 예를 보자.

(3) 가. **백날** 와서 빌어봐라. 너 같은 쓰레기한테 내 동생을 주나.
나. **백날** 떠들어 봤자 타임머신 타고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기 전에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다. 그런 정신으로는 **백날** 공부해도 다 헛거다.
라. 그런 책은 **백날** 봐야 도움이 안 된다.

(3)은 부사 '백날'이 쓰인 예문들이다. 기본적으로 '백날'은 '100일'을 의미하는데, 비유적으로 '오랜 기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마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백날'로 문장을 지어보라고 한다면, (3)과 같은 유형의 문장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3)의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들은 의미적으로 [백날, 사태 A, 사태 B]로 주로 나타나는데, 사태 A가 발생해도 사태 B는 실현되지 않음을 표현한다.

반면 긍정적인 문맥에서는 '백날'이 쓰이면 어색하다. 그런데 '백날'의 어휘적 의미는 사실 부정적 의미의 구문과 연관성이 없다. 또 '백날'이 꼭 부정적 의미의 구문에 쓰여야 한다는 필연적인 규칙도 없다. 그럼에도 '백날'이 이러한 구문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관습적 사용에 따른 결과이다. 아래의 비교 예시를 살펴보자.

(4) 가. **매일** [A 와서 빌어봐라]. [B 그럼 내가 네 부탁을 들어 줄지도 모르지].
가′. ?**백날** [A 와서 빌어봐라]. [B 그럼 내가 네 부탁을 들어 줄지도 모르지].
나. **매일** [A 공부해도] [B 지겹지가 않고 재밌거든].
나′. ?**백날** [A 공부해도] [B 지겹지가 않고 재밌거든].

위 (4)의 예는 의미적으로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인 '백날'과 '매일'의 예이다. '매

일'과는 달리 '백날'이 (4)와 같은 맥락에서 쓰이면 부자연스럽다. 의미적으로 (4)와 같은 문장에서 쓰일 수 없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이는 '백날'이라는 부사가 특정 맥락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관습적으로 특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부사 '매일'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매우 자유로운 양상을 보인다. 특정 의미의 절과 현저히 공기하는 양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경향성이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결합 양상을 가진 부사들은 매우 많다. 그러나 그에 비해 '백날'이라는 부사는 특정 내용의 절 A, B와 고빈도의 공기 관계를 이룬다. 여기에 특정 통사적 공기 관계 또한 포착된다. 즉 '백날'이라는 부사는 '백날'의 구문에 참여하는 특정 내용의 절들과 공기한다는 차원에서, '백날'은 긴밀한 절 공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문적 특징은 일종의 패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논점에서 본고에서는 특정 절들과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부사적 표현들을 살펴보고, 구문적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상정하는 부사와 긴밀한 절 공기를 형성하는 현상이 기존 한국어 문법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부 부사의 경우, 당장 사전의 정의항만 참고하더라도 공기 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16].

(5) 백-날百-
부사
1. (부정의 의미를 가진 말과 함께 쓰여) 아주 오랜 날 동안.
2. 늘 또는 언제나.

(6) 설령[1]設令
부사
(뒤에 오는 '-다 하더라도' 따위와 함께 쓰여) 가정해서 말하여. 주로 부정적인 뜻을 가진 문장에 쓴다.

16) 각 표제어의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을 참고하였다. 품사 통용어의 경우 부사의 정의항만 제시하였다.

(7) 단지[4]但只

부사

1. [같은 말] 다만1(1.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2. [같은 말] 다만1(3.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

(5)의 첫 번째 정의에서는 '백날'이라는 부사는 주로 부정적 감정 지향의 서술어와 공기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6)에서는 그 같은 사실에 통사적인 공기 관계까지 제시하고 있다. (7)에서는 '단지'라는 부사가 두 번째 의미로 쓰일 때, 선행절(문)과 '단지'가 이끄는 절(문장)이 [전제-조건 내지는 예외 사항]의 내용 관계라는 사실이 제시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서는 특정 부사가 특정 절 간의 공기 관계를 이끄는 경우, 짧게 한두 줄에 걸쳐 그 공기 관계를 간략히 제시하였다[17].

사전 정의 외에 이러한 공기 관계를 다룬 논의로는 임유종(2005)가 있다. 임유종(2005)는 특히 부사의 어울림 관계를 상세히 살핀 논의인데, 어울림 관계를 가지는 부사를 호응 부사라 일컬었다. 그 중 호응 관계가 문법기능소이면 문법기능소 호응 부사라 하였는데[18], 본고의 부사적 표현과 절 공기 현상과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8) 가. 접속소 호응 부사

ㄱ. 가령, 만일(만약): -라면, -다면, -거든, -어도, -더라도, -ㄹ지라도

ㄴ. 설령(설사), 비록, 아무리: -어도, -더라도, -ㄹ지라도, -ㄹ망정, -ㄹ지언정, -ㄴ들, -었자, -기로소니

ㄷ. 하도: -어서, -으니(니까)

나. 양태소(Modal) 호응 부사

ㄱ. 설마: -겠느냐, -ㄹ까, -으랴

17) 그러나 사전에서 모든 부사의 공기 관계 정보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18) 이러한 구분 외에 어휘 범주 수식 부사라 해서 수식 관계 양상에 따라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 동사 수식 부사, 형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유종(2005: 103~124) 참조.

ㄴ. 부디, 아무쪼록, 제발, 어서: -라, -자 (-기 바라다, 빈다, 기대하다…)

ㄷ. 과연, 정말(로), 참말(로): -다, -구나, -군/-까

ㄹ. 무릇, 모름지기: -어야 한다

ㅁ. 아마(도): -ㄹ 것이-, -겠-

ㅂ. 확실히, 분명히: -리 것이-, -겠-

다. 시제/상(Tense/Aspect) 호응 부사

ㄱ. 시제 체계와 관련된 부사류: 아까, 지금; 이제

ㄴ. 시제와 상 모두에 관련된 부사류: 이미, 벌써; 요즈음, 이즈음, 요새, 요사이; 아직, 여태(껏); 영원히, 영구히, 늘, 밤낮, 항상, 노상, 마냥, 여전히, 꾸준히, 시종, 줄곧; 가끔, 때때로, 종종, 간혹, 이따금, 간간이

라. 부정소(Neg) 호응 부사

전혀, 결코, 절대로, 과히, 조금도, 별로, 통, 도무지, 도저히

마. 일치소(AGRs) 호응 부사

몸소, 친히, 손수

임유종(2005: 77~103)은 특정 문법소와 호응 관계를 이루는 부사들을 (8)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접속소와 호응하는 부사들을 빈도 차원에서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까지 적용하고자 하였다(임유종 2005: 178~192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호응 부사들은 부사 A가 나타날 때 고빈도로 나타나는 문법소들과의 공기 관계에 치중한 부류이다. 이들 호응 부사류에 속하는 부사들을 개별적으로 선·후행절(문)의 양상을 분석하여 살펴봐서 절과 절 간의 특징적인 패턴이 보인다면, 그 패턴 현상을 부사와의 절 공기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호응 관계 역시 특정 부사의 절 공기 현상을 제시할 때, 그 부사의 절 공기 관계의 제반 사항을 나타낼 때 같이 제시하면 유용하다.

임유종(2005)의 호응 부사류는 그동안 여러 논저에서 다른 용어로 언급되어 왔다. 김진해(2000)에서는 이러한 공기 관계를 갖는 구성 또한 '연어'로 보았는데, 기존의 어휘적 연어와는 구별되는 형태·통사적 연어로 파악한 바 있다. 그 중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는 부분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 김진해(2000)의 형태·통사적 연어

가. 정의: 형태적으로 제한된 형태가 통사적인 구나 절 범주를 이끄는 문법 표지와 결합하는 현상

나. 어휘적 연어와의 차이점

① 형태·통사적 연어는 항상 구나 절과 같은 통사적 단위와 결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휘적 연어와 달리 구성 내적인 완결성이 없다.

② 내용어끼리 결합하는 어휘적 연어와 달리 항상 특정한 조사나 어미, 보문소와 같은 기능어와 결합한다.

다. 형태·통사적 연어의 분류[19]

① 부사에 의한 형태·통사적 연어

- 양태 부사에 의한 연어(예: 단지 ~ -ㄹ 뿐이다, 모름지기 ~ -어야 하다 등)
- 부정 극어에 의한 연어(예: 결코 ~ 못하다/없다/아니다, 미처 ~ 없다/못하다 등)

<이하 생략>

위 (9다)에서 제시한 '부사에 의한 형태·통사적 연어와 임유종(2005)의 호응 부사류가 유사하다. 임유종(2005)는 특정 부사가 특정 문법소와 호응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호응 부사라 이름 지은 것으로 보인다. 김진해(2000)은 기존의 어휘적 연어 구성 외에도 어휘소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문법소와 어울려 하나의 구성처럼 묶인 단위를 형태·통사적 연어라 본 듯하다. 동일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다보니 현상에 대한 용어도 달리 쓰인 것이다.

임근석(2010)은 연어 현상을 총체적으로 다룬 논의이다. 한국어 문법론에서 임유종(2005)의 호응 부사류나 김진해(2000)의 형태·통사적 연어의 예들은 문법적 연어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그 중 논저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문법적 연어의 범위이다[20]. 가령 임근석(2010)은 (8), (9)에 해당되는 현상들을 문법적 연어로 보지

19) 본고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의존 명사에 의한 연어('-는 길에', '-ㄹ 따름이다' 등), 불구 동사 및 동사의 굳은형에 의한 연어('-에 관하여', '-을 가지고' 등), 보문 동사에 의한 연어('-지 걱정이다', '-음을/-을 것을/-고 주장하다' 등)이 있다.

20) 문법적 연어 개념을 반대하는 연구도 있으나, 현재 한국어 문법론에서는 문법적 연어를 인정하

않는다. ‘결코’를 예로 들어 그러한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10) 가. 결코 ~ 안, 결코 ~ 못, 결코 ~ -지 말-
나. 결코 없-, 결코 아니-
다. 결코 ~ -ㄹ 수 없-, 결코 ~ -ㄹ 것이 없-

결론적으로 임근석(2010)은 (10가)는 문법적 공기어, (10나)는 어휘적 연어, (10다)는 문법적 공기어로 보고 있다. (10가)는 ‘결코’가 주로 부정 표현과 어울리기는 하지만, 여러 부정 표현의 문법요소와 두루 결합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어성이 낮다고 하였다. 즉 문법적 연어의 기준 중 하나로 ‘강한 인접성’을 들 수 있는데, (10가)의 구성들은 인접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 연어라기보다 문법적 공기어로 보는 것이다. (10나)는 ‘부사어+동사/서술어’의 통사 구성을 취하는데, 특정한 통사 구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어휘적 연어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휘적 연어라 하였다. (10다)는 (10가)와 같은 차원에서 문법적 연어로서 요구되는 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문법적 공기어로 한정시켰다.

어떤 구성은 연어이고, 어떤 구성은 공기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엄밀하게 구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임근석(2010)의 기준에 의하면 본고의 절 공기 현상(clause collocation)을 직역하여 ‘연어’라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특정 부사적 표현이 이루는 절과 절 간의 의미적 공기 양상이다. 임근석(2010: 228)에서 언급한 바를 참고하면, 기본적으로 문법적 연어 연구는 실용성이 주목적이며, 공시적인 어휘소와 문법소의 위계적 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연어 구성의 속성과 연구 자료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는 원리 탐구(재구)에 초점을 맞춘 문법화 연구와는 구별된다. 본고의 절 공기 현상도 부사와 절들의 공기 관계 양상을 살펴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어떤 부사적 표현의 개별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부사적 표현과 잘 어울리는 절 구성의 속성을 밝힐 수 있고, 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인간이 언어를 운용하는 원리를 밝히는 데에 일조하는 포석이 될 수

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선웅 2012: 271).

있고, 한국어교육이나 전산언어학 등의 실용적인 언어 분야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문법적 연어와 절 공기 현상은 연구 목적이나 동기, 초점은 동일할 것이다. 다만 연구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21].

언어 요소의 결합 구성 차원에서 보면, 그 양 극단에는 자유결합과 연어가 있을 것이다. 그 사이사이에 숙어나 문법적 연어, 호응 부사어 따위의 구성들이 자리할 것이다. 양극단 사이의 어디에 자리하느냐는, 개별 구성들이 얼마나 많이 쓰여 왔으며, 그 결과 해당 구성의 결속성을 따졌을 때 나타나는 차이와 같은 특질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속력이 긴밀한 구성들은 양 극단에서 '연어'에 가까이 자리할 것이고, 결속력이 보다 약한 구성들은 긴밀한 구성보다는 '연어'에서 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Warren (2009)의 'organisational frameworks'와 같은 개념 역시 양 극단 사이의 어디엔가 위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구성은 확실한 연어 범주이고, 어떤 구성은 공기어에 불과하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기보다, 절과 절 관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 특정 부사적 표현이 나타날 때의 전형적인 패턴이 관찰될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부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부사적 표현과 절 공기 현상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개별 부사적 표현의 논의에서 필요할 때 언급할 것이다.

2.3.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은 어떤 어휘가 문맥에 의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다(백채원 2010: 31). 어떤 어휘든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휘에 따라서는 기본적 의미에 더하여 암시적인(connotational)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암시적 의미는 한 어휘에서뿐 만아니라, 여러 단어 구성에

21) 문법적 연어에 비해 절 공기 관계는 어떤 표현 A가 어떤 내용의 요소들과 상호 선택 혹은 공기 관계를 이루는지 포착하기 위하여, 분석해야 할 A의 인접 요소의 물리적 폭(span)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2.1에서 Hunston and Francis (2000), Siepmann (2005) 등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이다.

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하여 McEnery, et al. (2006: 83)에서는 어떤 단어와 그 연어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연어적 의미라 하기도 한다. 이 개념을 여기에서 소개하는 까닭은, 부사적 표현에 따라 특징적인 의미 운율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부사적 표현의 절 공기 양상을 기술할 때에 의미 운율 양상도 같이 기술하게 되면, 상세한 문법 기술에 보탬이 될 것이다.

가령 어휘 자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문맥에서 부정적인 어휘와 자주 쓰이게 된다면, 그 어휘 자체에도 부정적인 의미 운율이 깃들 수 있다. McEnery, et al. (2006: 83)에서 언급하였던 '연어적 의미'는 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고 역시 특정 부사적 표현의 의미론적 절 공기 양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 공기 양상을 살펴볼 때 특징적인 의미 운율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미 운율은 Firth (1957)의 '운율'(prosody)을 Sinclair (1991)에서 'semantic prosody'로 제시하였다. Sinclair (1991)은 'naked eye'와 'true feeling'을 예로 들어 의미 운율을 살폈다. 가령 'naked eye'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는 인접 요소들을 관찰해 보면, "가시성(visibility) + 전치사(preposition) + the + naked eye"의 구조로 주로 나타난다. 여기서 '가시성'이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the naked eye'에 선행하는 단어 중 'see'가 고빈도로 나타나는데, 이 외에도 'detect, spot, appear, perceived, viewed, recognised' 등도 나타난다. 따라서 'naked eye'가 의미적으로 선호하는 선행 단어는 'see'라고 하기보다 '가시성'을 가진 단어라 설정하면 'naked eye'의 구성을 더 포괄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구성은 '어려움'(difficulty)이라는 의미 운율을 문맥에서 가진다는 사실 역시 'see'가 'small, faint, weak, difficult'와 같은 단어들과 함께 나타나며, 'see'와 같은 가시성의 단어는 'barely, rarely, just' 등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22].

이와 같이 특정 부사적 표현이 특정 내용의 절과 절 간의 공기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 부사적 표현과 함께 공기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그 구성의 의미 운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Stubbs (1996)에 의하면 이러한 의미 운율은 긍정적 의미 운율(positive

2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백채원(2010: 31~33) 참조.

prosody), 부정적 의미 운율(negative prosody), 중성적 의미 운율(neutral prosody)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의미 운율은 어떤 표현이 긍정적 감정 지향의 단어와 어울리는 경향이 높은 의미 운율을 말하며, 부정적 의미 운율은 어떤 표현이 부정적 감정 지향의 단어와 어울리는 경향이 높은 의미 운율을 말하고, 중성적 의미 운율은 어떤 표현이 긍정적 감정 지향의 단어와 부정적 감정 지향의 단어와 비슷하게 잘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이홍매(2009: 99)에서는 한국어 부사 '참'을 긍정적인 의미 운율을 가진 어휘의 예로 들었다. '참'은 흔히 '좋다, 시원하다, 감사하다, 근사하다' 등의 긍정적 감정 지향의 단어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강범모(2011)은 한국어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 운율에 관한 논의이다. 그에 따르면 형용사의 의미운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 형용사의 의미 운율(강범모 2011: 7)

가. 전형적인 긍정/부정: 좋다/나쁘다, 유쾌하다/불쾌하다, 행복하다/불행하다, 아름답다/추하다, 예쁘다/밉다, 부드럽다/거칠다, 기쁘다/슬프다, ...

나. 전형적인 중립: 색채어(파랗다, 노랗다, 검다, 희다), 정도 표시어(많다, 적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둥글다, 같다, 다르다, 그렇다, 없다, ...

다. 대개 긍정/부정 형용사의 반의어는 반대의 속성을 가지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용하다'는 중립적(객관적 상태 기술), '시끄럽다'는 부정적(판단이 들어감).

라. 어떤 형용사는 긍정, 부정의 표시/암시가 있으나 양 쪽 모두로 사용될 수도 있어 한 쪽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예: '잽싸다'

마. 날씨나 온도를 표시하는 단어들 중, '덥다, 춥다'는 객관적 기술일 뿐이지만, '따뜻하다, 따사롭다, 시원하다'는 객관적 기술인 동시에 좋은 느낌을 주므로 긍정적이다.

바. 객관적으로는 같은 속성을 표시하는 것 같지만, 느낌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 '날씬하다'는 긍정적, '깡마르다'는 부정적이다.

사. 슬픔은 부정적 감정이지만, 표현 방법에 따라 부정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슬프다'는 부정적이지만, '애잔하다'는 부정적이지 않다(중립적).

아. 객관적 속성을 표시하는 말의 변형으로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 '좁

다'는 중립적, '좁아터지다'는 부정적이고, '이상하다'는 중립적, '요상하다'는 부정적이다.

자. '~-답다'는 형용 표현으로 간주하는데, '-답다'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 긍정, 부정이 결정된다. 대개 긍정적이며, 그 예로 '여성답다, 남자답다, 선생님답다' 등. 부정적인 것은 '오입꾼답다' 등 일부 존재한다. '국회의원답다, 정치인답다'는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지만 불확실하여 중립으로 간주한다.

(11)은 한국어 형용사들의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대체적인 의미 운율의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23]. 이를 참고한다면 앞서 1.1에 제시했던 한국어 부사 '자칫'과 '백날'은 부정적 감정 지향의 표현들과 주로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24].

이렇듯 특정 부사적 표현이 특정 내용의 절과 절 간의 공기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공기하는 요소들을 살핌으로써 본고에서 다루는 현상들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3) 물론 특정 부사적 표현의 절 공기 양상을 살필 때, 의미 운율의 경향성은 형용사 외에도 다양한 서술어들의 연어 관계를 살펴야 될 것이다. (11)을 제시한 것은 특정 감정을 지향하는 의미 운율이 어떠한 식으로 정해지는지 보이기 위함이다.

24) 이홍매(2009: 101)에서는 '자칫'과 '하마터면'이 어떤 감정 지향의 서술어와 어울리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부정적 감정 지향	중성적 감정 지향	긍정적 감정 지향
자칫	93%	7%	0%
하마터면	91%	9%	0%

3. 중첩되는 사태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

본 장에서는 중첩되는 사태와 관련된 부사적 표현 '가뜩이나', '안 그래도', '더욱이'의 전반적인 문법을 기술한다. 여기서 이들 표현이 단독으로 쓰여 중첩되는 사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문을 이루어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거나, 앞 절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개별 표현들의 논의 구성이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그리고 '안 그래도'의 경우, 다의성을 가지는데, 다의적 구분을 먼저 한 뒤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3.1. '가뜩이나'

3.1.1. '가뜩이나'의 기본적 의미

'가뜩이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정적인 상황이 더해짐을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 정도 부사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대체로 화자가 마뜩잖은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이 쓰이고, 화자가 사태를 불만스럽거나 부정적으로 본다는 감정적 태도도 더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은 대체로 사전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25]. 아래는 '가뜩이나'의 사전적 정의이다.

(1) 《표준국어대사전》
그러지 않아도 매우.

(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6]

25) 다만 현대 한국어에서 드물게 쓰이는 '가뜩에'나 '가뜩한데'의 경우는 '지금의 사정도 매우 어려운데 그 위에 더', '어떤 어려운 사실 위에 또' 정도로 정의되어 있다. 이렇듯 '어려움, 곤란함'의 내용이 '가뜩이나'의 정의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손남익(2014)에서는 한국어의 부사들을 망라하여 개별 부사들을 정의하고 각 부사들이 가지는 의미성분들도 제시하였다. '가뜩이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로 정의되어 있고 그 의미성분은 [+정도], [+부가]로만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매우.

(1), (2)에서 보듯이 '가뜩이나'의 사전적 정의는 소략하다. 만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가뜩이나'의 위와 같은 사전 정의를 본다면 '(다른 일로 이미 기분이 좋은 상황인데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가뜩이나 기분이 좋아!'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가뜩이나'를 그 의미에 맞게 구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가뜩이나'가 전형적으로 쓰이는 맥락의 성격, 이에 더해 통사적인 구문의 특징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기분이 좋아!'는 의미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한국어에서 '가뜩이나'는 그러한 구문, 그러한 맥락에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제 '가뜩이나'는 어떠한 식으로 중첩된 사태를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1.2. '가뜩이나'의 구문적 특징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 '가뜩이나'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만들어 낸 문장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의미는 특정 통사적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가뜩이나'가 하나의 구문을 형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 특성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먼저 '가뜩이나'가 부정적인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부터 살펴보자. '가뜩이나'가 사전적 정의대로 '그렇지 않아도 매우'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앞서 잠깐 언급한 '*가뜩이나 기분이 좋아!'나 '?가뜩이나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우리 팥빙수나 먹으러 갈까?'와 같은 문장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직관은 이러한 문장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예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자.

---

26) 이하 《고려》.

(3) 가. 그 기집애 때문에 **가뜩이나** 꼬인 머리가 더 꼬인다.

나. 내가 미쳤냐, 니들하고 밥을 먹게, **가뜩이나** 소화 안 돼 죽겠는데, 저 노랑머릴 앞에 두고, 행여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겠다.

(3가, 나)의 예문들이 '가뜩이나'의 전형적인 쓰임일 것이다. '가뜩이나'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가뜩이나'가 쓰이는 절(문장)의 인접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매우 어떠한 상황에 다른 상황이 더해짐' 정도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묘사되는 상황은 주로 화자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상식적인 내용일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첨언하자면, 이때 '가뜩이나'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주로 쓰인다는 말은 부정문에서 주로 쓰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서술어에 표상되는 사태에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평가가 더해져서 전체 명제의 성격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상 '가뜩이나'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어와 공기하는 경향을 보인다[27]. 이때 특정한 서술어보다 다양한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가 쓰이는 것으로 확인된다[28]. 이러한 차원에서 '가뜩이나'는 부정적 의미 운율(negative prosody) 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가 쓰이는 경우, 인접한 절(문장)과 의미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중첩되는 호응 관계를 이루어, '이미 매우 안 좋은 상황에 다른 안 좋은 상황이 더해짐'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뜩이나'의 용법에서 자주 공기하는 서술어 중에 특징적인 구성이 눈에 띄는데, 바로 '-어/아 죽겠-'이다. '가뜩이나'가 인접한 절(문장)과 의미적으로 호응하여 하나의 의미 구문을 이룬다고 했을 때, 전체 구문이 나타내는 상황의 시제는 현재나 과거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미래시제 선어말어미 '-겠-'과는 공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므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나 사건 표현이 쓰이면 어색한 것이다. 그런데

27) 이때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 구분은 2장의 (11)을 참조할 것(22~23쪽).

28) '비좁다, 곤란을 겪다, 남는 게 없다, 모자라다, 삭막하다, 움츠리다, 복잡하다, 빽빽하다, 날카롭다, 심란하다, 속상하다, 작다' 등등의 형용사 위주의 부정적 의미의 다양한 서술어가 '가뜩이나'와 어울린다. '날카롭다, 움츠리다, 작다'와 같은 형용사는 표현만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가뜩이나'가 쓰인 전체 문맥과 어울려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경우가 확인된다.

‘-어/아 죽겠-’에 쓰인 ‘-겠-’은 예외이다.

(4) 가. **가뜩이나** 배고파 죽겠는데!!
나. **가뜩이나** 기분 꿀꿀해 죽겠는데 (기분 나쁘게 금자 훑고, 상훈에게) 너두 반성문 써 임마!
다. 내가 미쳤냐, 니들하고 밥을 먹게, **가뜩이나** 소화 안 돼 죽겠는데, 저 노랑머릴 앞에 두고, 행여 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가겠 다.
라.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긁구 있어 기집애가.

(4)의 예문들에 쓰인 ‘-어/아 죽겠-’은 하나의 굳어진 구성으로, ‘죽을 만큼 힘들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즉 ‘-어/아 죽겠-’ 구성에는 ‘-겠-’이 쓰였지만, 의미상 미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29]. 이러한 서술어는 상대적으로 자주 쓰이는데, 그만큼 ‘가뜩이나’가 쓰이는 맥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가뜩이나’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이지 못하는가? 아래의 (5)와 같은 예를 보면,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 가. **가뜩이나** 유명한 당신, 이제 더 유명세 치르게 생겼네요!
나. 귀여우시다. 두 분 다 애들 같으세요. 누가 40대라고 믿겠어요? **가뜩이나** 동안인데...
다. **가뜩이나** 이쁜 얼굴에 인상 쓰니까 더 섹시해보여.

위 (5)는 ‘가뜩이나’와 어울리는 서술어가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전체 구문의 맥락도 부정적이지 않다. 이때 각 문장의 ‘가뜩이나’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일 때와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피수식어의 특성, 즉 ‘유명함’, ‘동안(童顔)’, ‘예쁨’이라는 속성의 정도가 크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말뭉치[30]를 통해 확인을 해 보면, (5)와 같은 긍정적 맥락에서의 ‘가뜩이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는 모두

29) 사실 이때 ‘죽겠-’(死)은 ‘죽-’(死) + ‘-겠-’의 결합형으로 이해하기보다 ‘죽겠-’이 이미 하나의 어간으로 굳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겠-’과 계열관계를 이루는 ‘-는-’이 오히려 ‘-겠-’과 결합한 활용형 ‘죽겠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러한 사실의 방증일 것이다.
30) ‘가뜩이나’는 구어에서 잘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민 준구어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529개의 용례가 확인되는데, 부정적 맥락에서의 쓰임은 그 중 522개(98.6%)로 나타나며, 긍정적 맥락에서의 쓰임은 7개(1.3%)로, 매우 드물게 쓰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뜩이나'는 하나의 구문을 이루어 설상가상의 중첩된 사태를 표현하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지만 긍정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말은 '가뜩이나'는 긍정·부정 맥락에서 모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 화자들은 거의 부정적 맥락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뜩이나'의 구문이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특정 맥락에서 잘 쓰이다보니 관습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뜩이나'의 통시적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일차적 접근 방안으로 여겨진다.

공시적으로 '가뜩이나'는 한 단어이지만, 통시적으로는 '가뜩'이라는 형태에 보조사라 추측되는 '이나'가 결합한 단어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가뜩'은 중세 한국어에서 'ᄀᆞᆺᄃᆞᆨ/ᄀᆞᆺᄃᆞᆨ'의 어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형태·의미적으로 현대 한국어의 '가득'(full)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득'의 중세 한국어 어형은 'ᄀᆞᄃᆞᆨ/ᄀᆞᄃᆞᆨ'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이 그를 뒷받침한다. 의미적으로도 'ᄀᆞᆺᄃᆞᆨ/ᄀᆞᆺᄃᆞᆨ'과 'ᄀᆞᄃᆞᆨ/ᄀᆞᄃᆞᆨ'은 유사한데, 둘 다 '무언가가 꽉 차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31].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정리하면, '가뜩이나'의 '가뜩'은 어원적으로 '가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래는 피수식어와 어울려 '어떠한 상황이 이미 가득함' 정도의 의미를 나타냈을 것이고, 현대 한국어의 용법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통시적인 과정을 거쳐 '어떤 상황이 이미 가득한데, 그에 또 다른 상황이 더해짐'을 표현하는 구문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32].

그렇다면 '가뜩이나'가 의미적으로 정도 부사와 같다는 점은 어원적인 정보로 이

31) 아마도 'ᄀᆞᄃᆞᆨ/ᄀᆞᄃᆞᆨ'보다 'ᄀᆞᆺᄃᆞᆨ/ᄀᆞᆺᄃᆞᆨ'이 음성적으로 좀 더 인상적 의미를 띠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차이를 밝히는 것은 본고의 논점에서 벗어난 작업이므로 추측만 간단히 제시한다.

32) 현대 한국어에서 '가뜩' 형태는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가뜩 어려운 살림인데 그렇게 큰일이 생기다니 걱정이구나.'와 같은 예가 드물게 보인다. '가뜩이나'의 용법과 거의 동일한 듯하다.

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 내용이 '가뜩이나' 구문이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 쓰이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는 없다. 본고는 '가뜩이나'가 주로 부정적 맥락에서 쓰이게 된 것은 [가뜩 + 이나] 구성에서 확인되는 '이나'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보조사 '이나'는 수량의 많음, 정도의 높음을 나타내며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되어, 정도부사에 쓰일 경우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33]. 물론 공시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이 '가뜩이나'를 '가뜩'에 보조사 '이나'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그에 기반하여 의도적으로 '가뜩'에 '이나'를 결합시켜 발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해승(2015)를 참고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양해승(2015)는 한국어의 주관량(主觀量, subjective quantity) 표현에 대한 논의이다. 주관량이란 인간이 인지하는 양(量)을 화자의 주관적 느낌, 태도, 평가 등을 거쳐 언어에 반영하는 것으로, 즉 객관적인 양범주에 화자의 주관성을 담아 표현한 양의 개념으로 이해된다[34]. 보조사 '(이)나'도 주관량을 표현하는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다음의 예로 설명을 이어가 보자.

(7) 그녀는 가발 사용을 즐겨 10개<u>나</u> 갖고 있는데 분위기에 맞춰 활용, 기분 전환에도 한몫한다.

양해승(2015: 20)

(7)에서 '가발을 10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객관량을 표현하는 것인데, '가발을 10개<u>나</u>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10'개라는 객관량에 대한 화자의 판단·평가가 개입된 양의 표현이 된다. 판단·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기준량(基準量) 혹은 참조량(參照量)이라 한다.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기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객관량에 대해 화자가 자신의 기준량보다 많다고 여기면 주관 대량(Large Subjective Quantity)이 되고, 반대로 기준량보다 적다고 여기면 주관 소량(Small Subjective Quantity)이 된다. 이에 따르면 보조사 '(이)나'는 주관 대량을 나타내는 요소이다[35].

---

33) '그녀는 퍽 외로웠다 / 그녀는 퍽이나 외로웠다'의 차이처럼, '이나'가 붙은 형태가 더욱 의미가 강하게 전달된다.

34) 주관량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선희(2003) 참조.

어떤 객관량이 화자의 기준량에 비해 과하다고 여겨지면, 부가적으로 화자에게 놀라움이나 강조와 관련된 감정이 생기고, 그러한 감정적 뉘앙스는 주관 대량 표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기까지는 수량 표현 관련 논의이지만, '가뜩이나' 구문의 의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가뜩이나'는 정도 부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척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한국어에는 이 같은 정도 부사에 '(이)나'가 결합하여 파생된 부사들이 일부 존재한다. '퍽/퍽이나', '몹시/몹시나', '더욱이/더욱이나', '그렇게/그렇게나' 등이 그러한 예인데, '(이)나'가 결합하지 않아도 이들 부사는 어떤 속성의 정도가 크고 높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에 '(이)나'가 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이)나'는 일치의 주관대량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로 설명을 이어가 보자.

(8) 가. 중서 어머니는 정연이를 **퍽** 귀여워하였다.
가′. 중서 어머니는 정연이를 **퍽이나** 귀여워하였다.
나. 다친 곳이 **몹시** 아팠다.
나′. 다친 곳이 **몹시나** 아팠다.

대표적으로 두 예만 들어 보자면, (8)의 '퍽', '몹시'는 그 정도가 '보통을 넘음, 매우 심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 표현이 그대로 쓰인 (8가, 나)는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말 실제로 중서 어머니가 정연이를 '매우, 아주' 귀여워한 것이고, 다친 곳이 '매우, 아주' 아픈 것이다. 그런데 보조사 '(이)나'가 결합한 (8가′,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화자의 입장에서 '중서 어머니가 정연이를 정말 심할 정도로 귀여워하는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자신의 주관적 기준으로는 그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여겨서 '퍽이나'로 표현하였고, '몹시' 역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픔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몹시나'로 자신의 양태(modality)를 표현한 것이다. 즉 '(이)나'는 일치의 주관대량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정도(척도)에 대해 주관성이 개입되어 주관적으로 그 정도

35) 더 정확히는 일치 주관 대량 표현이다. 어떤 수량이 화자의 심리적 참조량보다 많거나 크다고 평가되지만, '(이)나'에 의해 표현된 양은 실제량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양해승(2015: 44~47) 참조.

과 과하다는 의미를 싣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량 관련 표현과 어울리면 주관량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여기까지는 보조사 '(이)나'가 정도 부사와 어울려 어떤 의미를 더하게 되는지 공시적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의 한국어 화자들이 '가뜩이나'를 발화할 때에는 당연히 보조사 '(이)나'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발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가 형성될 당시에는 어떠했을까? 잠시 '가뜩이나'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해 잠시 짚어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가뜩'은 '가득'과 연관되는데, '가뜩'의 통시적인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통시적으로 보면 16세기부터 'ᄀᆞᆺᄃᆞᆨ/ᄀᆞᆺᄃᆞᆨ'과 'ᄀᆞᆺᄃᆞᆨᄒᆞᆫ/ᄀᆞᆺᄃᆞᆨᄒᆞᆫ'의 형태로 쓰이다가[36], 18세기에 이르면 'ᄀᆞᆺᄃᆞᆨ이/ᄀᆞᆺᄃᆞᆨ이, ᄀᆞᆺᄃᆞᆨ에/ᄀᆞᆺᄃᆞᆨ에'와 같이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가 쓰이는 것이 확인된다. 보조사 '이나'가 결합한 형태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보인다. 아래의 예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8) <u>ᄀᆞᆺᄃᆞᆨ</u> ᄆᆞᅀᆞᆷ 경 업ᄉᆞᆫᄃᆡ 자내 편챠ᄂᆞᆫ 유무 보니 더옥 ᄆᆞᅀᆞᆷ 둘 ᄃᆡ 업서 ᄒᆞ뇌.

《현풍곽씨언간》 16-8, 17세기 추정

(8)에서 'ᄀᆞᆺᄃᆞᆨ'이 수식하는 것은 '마음이 경황없는데'이다. 즉 '경황없는 마음이 가득한 상황인데'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다. 이러한 'ᄀᆞᆺᄃᆞᆨ'이 통시적으로 'ᄀᆞᆺᄃᆞᆨ이, ᄀᆞᆺᄃᆞᆨ에'를 거쳐 'ᄀᆞᆺᄃᆞᆨ이나'까지로 쓰인 것은, 화자가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 그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까지 동반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태 표현 상황에서 어떤 속성이 가득함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속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 어떤 속성이 가득한 상황 자체가 화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무 정도가 지나치고, 과할 때, 당시 언중들은 '(이)나'를 붙인 형태, 'ᄀᆞᆺᄃᆞᆨ이나'로 그러한 주관성을 나타냈을 것이라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가뜩'이라는 부사에 '이나'가 결합한 형태로 쓰여 더 강조된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에서 '가뜩이나'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는 '(이)나'로부터 획득된 것이다[37].

36) 'ᄀᆞᆺᄃᆞᆨ/ᄀᆞᆺᄃᆞᆨ'은 부사어로서, 'ᄀᆞᆺᄃᆞᆨᄒᆞᆫ/ᄀᆞᆺᄃᆞᆨᄒᆞᆫ'은 관형어로서 후행 성분을 수식하는 구조를 취함.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5)와 같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인 '가뜩이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예를 다시 제시한다.

(5) 가. **가뜩이나** 유명한 당신, 이제 더 유명세 치르게 생겼네요!
나. 귀여우시다. 두 분 다 애들 같으세요. 누가 40대라고 믿겠어요? **가뜩이나** 동안인데...
다. **가뜩이나** 이쁜 얼굴에 인상 쓰니까 더 섹시해보여.

(5)와 같이 긍정적인 단어들과 어울리는 경우, 비꼬는 뉘앙스로 발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정도 부사 '너무'의 용법 확장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도 부사 '너무'는 원래는 '한계에 지나친', '정도를 넘어선' 등의 의미로, 주로 부정어들과 잘 어울리는 부사였다. '너무 많이 먹는다'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상식적인 '너무'의 용법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인상적인 표현 효과의 한 방책으로 '너무'를 긍정적 표현에도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무 멋있다'라고 하면, '지나칠 정도로 멋있다'의 의미를 나타냈을 것이며, 이는 '아주'나 '매우'가 표현하는 정도보다 더 큰 정도를 나타내며, 결국 마치 영어의 최상급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너무'는 용법이 점차 확장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을 것이다[38][39].

---

37)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몹시나, 퍽이나, 더욱이나'와 같은 '(이)나'가 결합한 정도 부사들의 용례를 살펴봤을 때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가령 '몹시나'는 피수식어의 의미가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은 듯하고, '퍽이나'는 비꼬는 표현과 많이 어울린다. '더욱이나'는 척도의 하한가(下限價)에 속하는 요소에 많이 쓰인다. '(이)나'가 결합하여 다양한 용법을 얻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해지면서 그러한 용법들이 파생되는 듯하다.

38) 지난 2015년 6월 22일,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너무'의 용법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래의 의미	수정된 의미
너무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 예) 너무 크다, 너무 먹다, 너무 많다, 너무 가깝다	일정한 한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 예)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반갑다, 너무 조용하다, 너무 위험하다

이와 같이 '가뜩이나' 구문이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쓰이는 이유는, 긍정적 맥락에서 언중이 '정말, 매우, 아주'와 같은 정도 부사가 나타내는 방법 이외에 다른 인상적인 효과를 위한 방책으로 '가뜩이나' 구문을 선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주관적 기준에 훨씬 지나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화용론적으로 이와 같은 예외적 용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도 매우'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뜩이나'가 특정 구문으로서 주로 부정적인 내용의 중첩된 사태를 표현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가뜩이나'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쓰임에 이르렀으며, 보조사 '(이)나'가 통시적 과정에서 '가뜩'과 결합하여 부정적 의미 가져다주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해 보았다.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인 경우도 검토해 보았다.

'가뜩이나'는 주로 부정적인 내용의 중첩된 사태를 표현한다고 하였는데, 이 표현을 위하여 중첩된 사태를 나타내는 절들이 '가뜩이나'와 공기하게 된다. '가뜩이나'라는 부사 자체의 의미로만 본다면 특정 맥락에서만 쓰이거나, 구문적으로도 특정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미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절에 다른 부정적 내용이 더해지는 절의 구성을 취한다(혹은 취해야 한다). 이럿듯 '가뜩이나'가 쓰인 문장의 구성은, 필연적으로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구성은 아니다. 관습적으로 많이 쓰여 오다가 하나의 패턴으로 고정된 것이다. 이렇듯 '가뜩이나'가 쓰인 문장을 이루는 절 A와 절 B가 필연적 이유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된 결과, 특정 패턴으로 굳어져 의미적으로 긴밀한 공기 관계를 이루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뜩이나'의 의미적 절 공기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9) '가뜩이나'가 형성하는 의미적 패턴

가. [<u>가뜩이나</u> {A 이미 부정적인 상황}, {B 또 다른 부정적인 상황}]

나. 의미 운율: 주로 부정적 감정 지향의 단어와 어울림.

전술하였듯이 '가뜩이나' 자체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데,

39) '너무나' 역시 '너무'의 의미 확장을 같이 겪어서 긍정적 맥락에서 두루 쓰일 수 있다.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하나의 구문을 형성하여 부정적인 사태의 중첩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뜩이나'의 의미적 패턴은 특정 형식을 취해서 특정 통사적 구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앞서 상정한 '가뜩이나'의 의미적 패턴, 즉 [이미 부정적인 상황 + 또 다른 상황]을 나타낸다고 해서 이러한 의미를 표상하는 모든 구문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가령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도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어 더 힘든 것 같다'라는 문장은 앞서 상정한 의미적인 패턴을 취하여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법하지만, 수용성이 떨어진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가뜩이나'가 쓰인 문장을 임의로 만들어 보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이 만드는 문장이 특정 통사적 패턴을 보이는 데에 근거한다. 결론적으로 '가뜩이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문으로 나타난다.

(10) 가.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긁구 있어 기집애가.
나. **가뜩이나** 우울한 얼굴에 빗금치고 다니니까 더 못 봐 주겠잖아.

'가뜩이나'는 주로 (10)과 같은 통사적 패턴으로 나타난다. (10가)와 같이 [가뜩이나 ... -(으)ㄴ/는데, ...]로 나타나기도 하고, (10나)와 같이 [가뜩이나 ... -(으)ㄴ/는 NP ...]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뜩이나'가 쓰이는 문장은 대부분 이 두 구문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뜩이나 ... -(으)ㄴ/는데, ...] 구문은 전체 529개의 용례 중 335개(63.3%)로 나타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고, [가뜩이나 ... -(으)ㄴ/는 명사구, ...] 구문은 178개(33.6%)로 또 다른 일반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다[40].

본고에서 상정하는 부사적 표현과의 긴밀한 절 공기 관계는 의미적 차원의 공기 관계이기는 하지만, 개별 부사적 표현에 따라 공기하는 절 A와 절 B의 형태·통사적 제약이 느슨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뜩이나'의 경우 계량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10가, 나)와 같은 구문을 취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뜩이나' 구문이 가지는 [이미 부정적인 상황 + 또 다른 부정적

40) 나머지 소수의 예는 '가뜩이나 ~ 구먼'의 형식, 단문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상황]라는 절의 의미적 공기 관계가 [가뜩이나 절A -(으)ㄴ/는데, 절B], [가뜩이나 절A -(으)ㄴ/는 명사구 절B]와 같은 통사적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구문적인 패턴은 통시적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이미 '가뜩이나'는 16세기부터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쓰이는 맥락에서도 잘 쓰였고, 구문상의 특징도 유사하다.

(11) 가. 바매나 집 헤아리고 우ᄂᆞ니 눈믈 붓니니 **ᄀᆞᆺ득ᄒᆞᆫ** ᄀᆡ오니 엇디 오라리.

순천김씨언간(16세기 추정)

나. **ᄀᆞᆺ득이** 심난ᄒᆞᆫᄃᆡ 대풍이 니러나니

일동장유가(1764)

다. **ᄀᆞᆺ득ᄒᆞᆫᄃᆡ** 흉ᄒᆞᆫ 놈이나 병환은 더 니ᄅᆞᆯ 거시 업고

한중록(19세기 추정)

라. (복)어셔 잡슈셔요. **ᄀᆞᆺ득이나** 맛업ᄂᆞᆫ 것이 다 불어터짐니다

빈상설(1908)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뜩이나'는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ᄀᆞᆺ득ᄒᆞᆫ NP], [ᄀᆞᆺ득ᄒᆞᆫᄃᆡ], [ᄀᆞᆺ득이 ... ᄒᆞᆫᄃᆡ], [ᄀᆞᆺ득이나 ... (으)ㄴ/는 NP] 등 현대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구문으로 쓰여 왔다. 현대에 와서 [가뜩이나 ... -(으)ㄴ/는데, ...], [가뜩이나 ... -ㄴ/은/는 NP] 두 유형으로 굳어진 것이다[41].

'가뜩이나' 구문은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나 복문(複文) 구성으로 쓰여 왔다. 부정적인 두 사태가 설상가상으로 더해진다는 의미가 통사적으로는 복문 구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단문 구성의 '가뜩이나'도 관찰된다.

(12) 가. (자꾸 시비를 거는 친구에게) 아, 하지마! **가뜩이나** 더워 죽겠구만!

나. (사장을 찾아온 계약자에게 수행비서가) 그냥 돌아가십시오. **가뜩이나** 전세

41)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ᄀᆞᆺ득이', 'ᄀᆞᆺ득에'와 같은 형태들도 현대 한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들의 현대형인 '가뜩이', '가뜩에'는 사전에는 실려있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 것 같다. 참고로 '가뜩이'는 '가뜩이나'와 같은 의미로 제시되어 있고, '가뜩에'는 '어려운 데다가 그 위에 또'로 정의되어 있는데(《표준》 』 참조), '가뜩에'가 '가뜩이나'와 좀 더 유사한 의미로 쓰인 듯하다.

가 불리합니다.

다. (신입사원에게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동기 간의 대화에서) 어휴, <u>가뜩이나</u> 회의도 많은데 진짜!

(12)와 같은 '가뜩이나'의 용례는 말뭉치 자료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용례는 앞서 본고에서 제시한 '가뜩이나'의 의미적 절 공기나 통사적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화용론적 함축(pragmatic implicature)에 따라 본래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 중 핵심적이면서도 최소한의 내용을 발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각각 최소노력의 원리(principle of least effort)와 의사소통 충족(requirement of communication)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려 한다. 화자는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여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려 하고, 청자도 가능한 한 적은 노력으로 화자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한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 할 때, 청자의 인지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표현할 것과 비명시적으로 함축할 것을 결정한다. 또한 청자도 맥락과 화자의 발화 의도를 고려하여 화자가 함축하는 의미를 추론한다(정희자 2009: 361). 이러한 함축에 관한 상식적인 이해는, 중첩된 사태 표현에 필요한 절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화자가 의도하는 표현이 충분히 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위 (12)와 같이 '가뜩이나'가 중첩 사태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지는 절 공기 패턴을 다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이는 것은, 전부 나타내지 않아도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곧 가뜩이나' 구문의 일부분을 표현함으로써 현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 가령 (12)의 경우 "시비를 걸어서 열 받음", "돌아가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임", "일이 많이 주어져서 짜증남"과 같은 내용을 발화하지 않아도 '가뜩이나' 구문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42]. 이러한 함축이 발생하는 것은, '가뜩이나'의 전형적인 절 공기 패턴이 그만큼 관습적으로 굳어져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

42) 물론 '가뜩이나'는 문장 성분으로는 부가어이므로 꼭 나타나지 않아도 문장 구성과 내용 이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아니다. 다만 구문 내에 출현함으로써 구문이 나타내는 표현을 좀 더 응결시켜주는 외현적 자극 요소(ostensive stimulus element)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중들은 실생활에서 이러한 식의 발화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43]. (12)와 같이 '가뜩이나'가 완전한 구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전체 529개 중 139개(26.2%)로,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러한 예는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의 제목에서도 많이 확인된다.

(13) 가. 「**가뜩이나** 어려운데…중소기업 대출금리 '꿈틀'」
나. 「**가뜩이나** 선수 없는데…넥센, '조상우 충격'」
다. 「지카바이러스, 세계경제 '날벼락'… **가뜩이나** 힘든데」

(13)과 같이 '가뜩이나'가 나타내려는 부정적 사태의 중첩에 대해,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는 신문기사의 제목에서도 많이 보인다. 언중들이 후행절의 어떤 부정적 사태를 언어 표현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후행절의 부정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도 '가뜩이나'의 일부 내용만 쓰여도, 또 다른 부정적인 사태와 관련된 상황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뜩이나'가 나타내는 통사적인 패턴과 예외적인 용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통사적인 패턴은 아래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예외적인 용례에 대해서는, 이미 '가뜩이나' 구문이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언중들에게 이미 '가뜩이나'라는 단어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가뜩이나' 구문의 의미와 같이 인식되어, 꼭 모든 내용을 발화하지 않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14) '가뜩이나'가 형성하는 통사적 패턴
가. 통사적 패턴 1: [**가뜩이나** {서술 A -(으)ㄴ/데}, {서술 B}]
나. 통사적 패턴 2: [**가뜩이나** {서술 A -(으)ㄴ/는 명사구}, {서술 B}]

---

43) 본고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민 준구어 말뭉치〉도 드라마·영화 대본이기 때문에, 독자나 방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물을 통해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실생활처럼 너무 생략해서 대본을 구성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생활보다는 생략 과정을 덜 겪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량적 차원에서는 구문 중 일부가 생략된 발화가 실생활보다는 덜 나타나리라 여겨진다.

3.1.3. 요약

이상으로 ‘가뜩이나’에 대한 의미·통사적 논의와 그 절 공기 패턴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가뜩이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 ‘가뜩이나’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가뜩이나** {A 이미 부정적인 상황}, {B 또 다른 부정적인 상황}]

나. 통사적 패턴 1: [**가뜩이나** {서술 A -(으)ㄴ/데}, {서술 B}]

다. 통사적 패턴 2: [**가뜩이나** {서술 A -(으)ㄴ/는 명사구}, {서술 B}]

라. 의미 운율: 주로 부정적 감정 지향의 단어와 어울림.

3.2. ‘안 그래도’

‘안 그래도’는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 부사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 동사구 구성은 원 구성요소 간의 의미들을 투명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다. 즉 하나의 단어에 가깝게 어휘화가 된 용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안 그래도’가 나타내는 의미와 용법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 이후 절 공기 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3.2.1. ‘안 그래도’의 기본적 의미

‘안 그래도’는 형태적으로는 동사구 구성으로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안 그래도’가 하나의 단어에 가깝게 어휘화가 된 용법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일단 이 ‘안 그래도’는 부정 부사 ‘안’이 선행절이나 문맥 내의 어떤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를 가리키는 지시용언[44] ‘그래도’를 수식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문맥에 따라 가리키는 바가 다를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그래도’가 가리키는 바는 선행절에서 언어적으로 나타난 행위나 사태 혹은 비언어적 요소이며, ‘안’과 결합하여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정도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선 아래 (16)은 가장 기본적인 ‘안 그래도’의 용법이다.

(16) A: 내가 가야 할까?
B: 아니, <u>안 그래도</u> 돼.

(16)의 ‘안 그래도’는 대용어[45]로 기능하며, 따라서 이때 ‘안 그래도 돼’는 ‘안 가

44)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시적 속성을 가진 용언이 언어적 문맥 내에서 대용의 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지시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5) 대용은 짧은 한 문장뿐 아니라 특히 담화에서 담화 현장에 있는 대상이나 앞이나 뒤에 오는 언어 요소를 되풀이하지 않고 짧은 형식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때의 대용은 Bloomfield(1933)의 ‘substitute’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anaphora’와는 달리 선행사를 문장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용어로 통사적 범주가 아닌 의미적 범주에 가깝다(양명

도 돼'를 의미하게 된다. 이것이 '안 그래도'의 가장 기본적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로 '안 그래도' 구성은 이렇게 대용어로서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게 쓰인다. 즉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용법이 확장된 '안 그래도'는 그 단어 자체로는 뚜렷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고, 문맥에 의존하여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이 경우 '안 그래도'가 주로 나타나는 문맥이나 절 공기 양상을 살핌으로써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음 항에서 '안 그래도'의 기본 의미 외에 문맥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2.2. '안 그래도'의 구문적 특징

이제 기본적으로 지시·대용의 기능을 가지는 '안 그래도' 외에 문맥이나 구문에 의존하여 의미가 해석되는 '안 그래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아래의 예로써 설명을 이어가겠다.

(17) 가. A: 먼저 가지 말고 기다려.
B: <u>안 그래도</u> 기다리고 있어.
나. A: 여기 도사님이 용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B: <u>안 그래도</u>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은 (16)과 같은 '안 그래도'의 지시·대용적 기능이 약화된 용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17가)의 '안 그래도'는 '네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아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7나)의 경우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17나)는 (17가)와 같은 용법으로 여겨지는데, 이때 '안 그래도'가 가리키는 것이 '당신이 찾아오지 않았어도'라고는 할 수 없다. 지시·대용적 기능이 약화되어 '안 그래도'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17)과 같이 모호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희 2006: 105~106) 참조.

(17)과 같은 '안 그래도'는 '그래도'와는 반대로, 어떤 전제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이때 '안 그래도'는 '이미', '알맞게' 정도의 단어로 대체하여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화자에게 일어났거나 일어날 일들은 화자에게는 이미 '예정된', '예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태가 화자에게는 적기(適期)에 실현되었거나 곧 실현될 것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한편 (17)과 같은 '안 그래도'는 다음과 같은 특정 맥락에서 쓰이기도 한다.

(18) <u>안 그래도</u> 추운데 눈까지 와서 더 춥네.

(18)은 마치 '가뜩이나'처럼 쓰인 '안 그래도'의 용법이다. (18)처럼 지시성이 약화된 '안 그래도'가 설상가상의 사태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용례는 상당수 관찰된다.

한편 (17가), (18)의 '안 그래도'가 '기다리지 않아도'나 '눈까지 안 와도' 정도를 대용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와 무엇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화자가 저러한 문장을 발화할 때, 정말 '안 그래도'가 나타내는 바를 뒤에서 제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발화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19) 가. 상급자: 내가 가야 하나?
하급자: 아뇨, <u>안 그러셔도</u> 돼요.
나. 상급자: 먼저 가지 말고 기다려!
하급자: ?<u>안 그러셔도</u> 기다리고 있습니다[46].
나′. 손님: 여기 도사님이 용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도사: ?<u>안 그러셔도</u>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u>안 그러셔도 힘든데</u> 그런 과제까지 주시면 절망입니

46) 직관에 따라 이때 '안 그러셔도'가 자연스럽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적어도 '안 그러셔도'가 자연스럽다게 생각할 경우에는 '기다리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를 대용하는 기능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절망.

만약 (17), (18)의 '안 그래도'가 정말 여전히 대용어로서 기능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대용의 대상이 되는 행위, 사태의 행위주나 경험주가 화자가 존대해야 할 지위의 대상이라면, 그 대상의 행위, 사태의 대용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써서 공손함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19)와 같이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를 삽입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이는 적어도 '안 그래도'가 선행절(문)에 나타나는 행동을 대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47].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용 표현으로 쓰였는데, 대용 기능이 흐릿해지면서 (17), (18)과 같은 용법이 생기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48].

그렇다면 지시·대용 기능의 '안 그래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시·대용 기능이 흐려지면서 (18), (19)와 같은 용법을 가지게 되었을까? 전술하였듯이 '안 그래도'가 가리키는 것은 언어적·비언어적으로 나타난 어떤 행위이다. '안 그래도'는 처음에는 기본적 용법인 '행위 대용'으로 많이 쓰였을 것이고, 그 사용 범위가 확장되어 행위가 아닌 상황 전체를 대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언중들의 언어 생활에서 '당부, 명령, 부탁, 조언' 등을 목적으로 한 대화 상황은 매우 일상적이며, 어떤 화자가 '당부, 명령, 부탁, 조언' 등을 상대에게 전하였을 때, 청자는 그 내용에 간단한 대답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의 전언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사실이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라는 식의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대화를 이어가기도 한다.

즉 이는 상대의 부담을 더는 화자의 표현 방책 중 하나인데, 가령 부탁을 하는 상대에게, '안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안 그래도 내가 하려고 했어'라는 식으로 대하게 되면, 부탁을 하는 상대의 부담을 덜게 되면서 자신의 배

47) 후술하겠으나 〈이민 준구어 말뭉치〉에서 '안 그래도/안그래도'가 2,000여개 나타나는 반면, '안 그러셔도/안그러셔도'는 39개만이 나타난다. 이때 '안 그러셔도'는 1개를 제외하고 '안 그러셔도 돼요/되는데/됩니다'로 나타난다. 즉 모두 대용으로 기능하고 있다.

48) 지시성, 대용 기능을 가진 표현이 지시성, 대용 기능이 약화되어 사용역이 확장되는 예는 범언어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안 그래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려심 또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명령을 하는 상대에게 '안 그래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A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중입니다'와 같이 '안 그래도'를 덧붙임으로써 어떤 일을 지시하는 상대에게, 이미 알아서 잘 수행 중이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 당부, 조언을 건네는 사람에게 '안 그래도'를 쓰게 되면, 상대가 갖는 걱정, 우려를 덜어주는 효과를 주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49].

비단 '안 그래도'는 그러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겠으나, 위와 같은 상황은 상당히 일상적으로 빈번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안 그래도'를 사용한 발화는 더 사용 폭이 더 넓어져 지금의 다양한 상황에까지 쓰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위의 (17가, 나)와 같은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7가)의 B처럼 대답하게 되면, '상대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갈 것 같은 상황'에서 안심을 하게 될 것이고, (17나)에서 '용한 도사'를 찾아왔는데, 그 도사가 B처럼 '안 그래도'를 사용하여 대답하게 되면, 화자가 도사에 대해 생각하는 신뢰감이 커지게 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시·대용 기능이 약화된 '안 그래도'는 사용역이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결국 어떤 중첩된 사태의 표현에도 쓰이게 된 것으로 여보고자 한다[50].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7), (18), (19)의 '안 그래도'의 용법은 구분된다. (17)은 '안 그래도' 본연의 용법이다. (18), (19)는 지시·대용적 특성이 약화된 '안 그래도'의 용법으로 기존의 '안 그래도'가 하나의 어휘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중 (19)는 '안 그래도'가 중첩된 사태를 표현하는 특정 구문과 특정 맥락에서 쓰이는 것이다. 사실상 (18), (19)의 '안 그래도'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안 그래도'의 의미는 단일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즉 다음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이다.

---

49) 꼭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었겠으나, 요(要)는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결국 상대의 어떤 발화 내용 혹은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반응과 관련하여 '안 그래도'의 용법이 파생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50) 중첩된 사태 표현의 '안 그래도'는 앞서 이야기했던 일종의 대화 전략 장치의 역할을 하는 '안 그래도'와는 차이가 있다.

(20) 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의 전화를 받음)
야, 오랜만이다! **안 그래도** 내가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나. (대학원 연구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오다가 동료를 만남)
네가 비웠어? **안 그래도** 쓰레기통이 꽉 차서 내가 아까 비우려고 했거든.
다. (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를 우연히 만남)
안 그래도 유학 가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었어.
라. (저녁 늦게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딸에게)
적당히 놀고 들어 와. **안 그래도** 요새 세상이 흉흉해.

(20가, 나)는 '마침' 정도 의미로 해석되고, (20다)는 (20가)와 유사한 쓰임이지만, '마침'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애매하다. (20라)와 같은 경우 '안 그래도'는 '네가 이렇게 밤늦게 나가지 않아도'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20)과 같은 식으로 '안 그래도'가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모든 용법을 다의적으로 처리하기란 매우 복잡한 작업일 듯하다. (18~20)과 같은 '안 그래도'는 지시·대용의 기능이 약화되어 어떤 사태·행위를 나타내는 선행절의 서술어나 비언어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단일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 원래의 '안 그래도'도 그렇듯이, 여전히 문맥에 의존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20)의 '안 그래도'를 설명할 수 있는 큰 맥락은, 일반적으로 지시·대용 표현이 그 지지·대용성이 흐려져 가는 과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시·대용 표현이 문법화를 겪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구체적인 대상, 행동,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나아가 일련의 담화나 어떤 상황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는 '안 그래도'에도 해당되는 바이다. 즉 (20)과 같은 '안 그래도'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첩 사태 표현의 '안 그래도'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식의 의미 해석이 똑 부러진 의미 해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안 그래도'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용법을 포괄하기에는 적합하다.

(21) 가. **안 그래도** 추운데 눈까지 와서 더 춥네.
나.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야?
다. 너라도 엄마 잘 들어야지. **안 그래도** 엄마 힘든데.

라. 안 그래도 난 인생 꼬인 놈이야.

(21)의 '안 그래도'는 중첩된 사태를 표현하는 '안 그래도'의 용법인데, 이러한 '안 그래도'도 역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마치 '가뜩이나'와 유사한 용법을 가지고, 특정 맥락에서 잘 나타난다는 점에서 (20)의 '안 그래도'와 구분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래의 대용 기능의 '안 그래도'를 '안 그래도$_1$',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를 기본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며 문맥의존적인 의미를 가지는 '안 그래도'를 '안 그래도$_2$'로 보고자 한다. '안 그래도$_3$'은 중첩된 사태 표현의 용법을 가리킨다. '안 그래도$_1$'은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이다. 그리고 '안 그래도$_2$'의 경우 절 공기를 형성한다고 하기에는 의미적으로, 화용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되기 때문에 긴밀한 절 공기를 형성하는 부사적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듯하다. 그리하여 절 공기 관계와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_3$'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 그래도$_3$'는 중첩 사태를 표현하는 문맥 내에서 쓰인다. 〈이민 준구어 말뭉치〉에서 찾아본 '안 그래도$_3$'의 용례 일부를 제시하여, '안 그래도$_3$'이 어떠한 식으로 쓰이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1) 가. 안 그래도 인원 딸려 죽겠는데...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
나. 영감 죽어 나가서 안 그래도 꿀꿀한데 우리 방에서도 송장치를 일 없잖아요.
다. (갑자기 차를 멈춘 운전자에게) 왜 그래! 안 그래도 늦었는데...
라. 술 먹으려면 곱게 먹으쇼...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마. 너희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패냐.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못 알아 볼 뻔 했잖아.

'안 그래도$_3$'은 주로 (21)에서 제시한 용례처럼 나타나는데, 3.1에서 다루었던 '가뜩이나'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대체로 두 개 이상의 절과 공기 관계를 가지며 중첩 사태를 표현한다. '가뜩이나'와 유사하다는 차원에서 의미적으로 정도 부사

와 같이 쓰이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들 표현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풀이한다면 '가뜩이나'가 '이미 어떠한 안 좋은 속성이 지나칠 정도로 가득 찬 상황'에 '다른 부정적 상황'이 더해진다고 분석한다면, '안 그래도'는 역시 '어떤 상황이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안 좋은 상황인 상태에서 부정적 상황이 더해짐' 정도로 풀어 쓸 수 있을 것이다. 구성요소의 의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안 그래도'보다는 '가뜩이나'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이나 화자의 불만이 더 치달은 경우 더 잘 쓰일 듯하다.

'안 그래도'는 '가뜩이나'와 의미 운율도 유사한데,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용례 68개 중 65개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의미 운율도 부정적 의미 지향이며 그와 관련된 감정 서술어와 잘 공기한다. 이는 문어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용례 57개[51]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2) '안 그래도$_3$'가 형성하는 의미적 패턴

가. [<u>안 그래도</u> {A 이미 부정적인 상황}, {B 또 다른 부정적인 상황}]

나. 의미 운율: 주로 부정적 감정 지향의 단어와 어울림[52].

앞서 '안 그래도$_2$'의 경우 문맥에 의존하여 다양한 화용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로 인해 '안 그래도$_2$'는 특별히 경향성을 가지는 통사적 패턴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본고의 절 공기를 형성하는 부사적 표현으로는 볼 수 없는 듯하다.

반면 전술하였듯이 '안 그래도$_3$'은 중첩된 사태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한 통사적 패턴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안 그래도$_3$'이 형성하는 구문은 '가뜩이나'와 거의 동일한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가뜩이나'가 보이는 통사적 패턴을 다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51) 문어 자료에서 '안 그래도'는 총 112개가 나타났는데, 그 중 '안 그래도$_3$'은 57개(50.8%)로 나타났다.

52) 이에 비해 '안 그래도^2'의 경우 긍정적 감정 지향의 단어와 어울리는 경향이 높다.

(23) ‘가뜩이나’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통사적 패턴 1: [<u>가뜩이나</u> {서술 A -(으)ㄴ/데}, {서술 B}]

나. 통사적 패턴 2: [<u>가뜩이나</u> {서술 A -(으)ㄴ/는 명사구}, {서술 B}]

‘안 그래도$_3$’도 위와 같이 ‘안 그래도 … -(으)ㄴ/는데, … ’나, ‘안 그래도 … -(으)ㄴ/는 NP’의 패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계량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자의 경우 총 68개의 용례 중 45개(66.1%)로 나타났고, 후자의 경우 15개(22%)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구만’ 등을 동반한 구문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통사적 패턴은 유사한 듯하지만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견된다.

(24) 가. ?<u>가뜩이나</u>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도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어 더 힘든 것 같다.

나. <u>안 그래도</u>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도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어 더 힘든 것 같다.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가뜩이나’가 쓰인 (24가)와 같은 표현은 어색하지만, ‘안 그래도$_3$’이 쓰인 (24나)와 같은 표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동일하게 부정적인 중첩 사태를 표현하는 구문이라 하더라도, 구문의 고정성에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앞서 통계 수치로 나타냈듯이 ‘안 그래도$_3$’은 대부분 ‘안 그래도 … -(으)ㄴ/는데, … ’나, ‘안 그래도 … -(으)ㄴ/는 NP’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24나)와 같은 표현이 수용성이 큰 것은 구문이 얼마만큼 고정되었느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는 통시적으로도 오랜 세월에 걸쳐 관습화된 구문이 존재했었으나, ‘안 그래도’는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탓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뜩이나’는 하나의 구문을 이루어 단일한 표현을 나타내는 데에만 쓰이지만, ‘안 그래도’는 앞서 밝혔듯 ‘이미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안 그래도$_2$’처럼 쓰이는 일도 많기 때문에, 구문이 고정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절 공기 관계가 불안정한 ‘안 그래도$_3$’은 ‘가뜩이나’에 비해 후행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화 참여자가 최소 노력의 원리(principle of least effort)로 의사소통 충족(requirement of communication)을 달성하려고 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이해된다. '안 그래도$_3$'이 '가뜩이나'보다 생략이 쉽게 일어나는 현상은 '가뜩이나'보다 '안 그래도$_3$'이 더욱 빈번한 표현이기도 하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훨씬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므로 언중들 입장에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뜩이나'보다 더 친숙한 표현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안 그래도$_3$'의 통사적 절 공기 관계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25) '안 그래도$_3$'가 형성하는 통사적 패턴

가. 통사적 패턴 1: [<u>안 그래도</u>$_3$ {서술 A -(으)ㄴ/데}, {서술 B}]

나. 통사적 패턴 2: [<u>안 그래도</u>$_3$ {서술 A -(으)ㄴ/는 명사구}, {서술 B}]

3.2.3. 요약

이상으로 '안 그래도$_3$'에 대한 의미·통사적 논의와 그 절 공기 패턴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안 그래도$_3$'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6) '안 그래도$_3$'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u>안 그래도</u> {A 이미 부정적인 상황}, {B 또 다른 부정적인 상황}]

나. 통사적 패턴 1: [<u>안 그래도</u> {서술 A -(으)ㄴ/데}, {서술 B}]

다. 통사적 패턴 2: [<u>안 그래도</u> {서술 A -(으)ㄴ/는 명사구}, {서술 B}]

라. A, B는 대체로 부정적 감정 지향의 서술어

마. '가뜩이나'에 비해 'B'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3.3. ‘더욱이’

3.3.1. ‘더욱이’의 기본적 의미

‘더욱이’는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7) 《고려》
앞 내용에 한층 더한 내용을 덧붙여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28) 《표준》
그러한 데다가 더.

주요 사전에서 기술된 의미 정의는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를 언급한 선행연구에서도 대체로 ‘부가’의 의미를 중심으로 ‘더욱이’의 용법을 기술하였다. 김선영(2003: 51), 서정수(2005: 43, 170), 이후인(2015: 31~34)이 대표적이다.

형태적인 면에서 알 수 있듯이 ‘더욱이’는 정도부사 ‘더욱’에서 파생되었다. ‘더욱’과의 차이는 다음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가. 이 집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 <u>더욱이</u> 매우 좁다.
나. *이 집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 <u>더욱</u> 매우 좁다.
(30) 가. 건강이 <u>더욱</u> 나빠졌다.
나. *건강이 <u>더욱이</u> 나빠졌다.
cf) (수입원이 끊겨서 가세가 기울었다) 건강도 <u>더욱이</u> 나빠졌다.

(29가)에서처럼 ‘더욱이’는 선행문과 후행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더욱’이 특정 용언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라면, ‘더욱이’는 문장부사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29)와 (30)의 문장 성립 여부로 나타난다. 그러나 (29나)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는 특성상 선행절의 사태와 연관되어 일

련의 중첩 사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cf’와 같이 선행 맥락을 상정하면 괜찮다. 그래서 (29나)의 문장은 ‘더욱이’가 쓰이면 관련된 사태가 이전에 더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수용된다. 즉 ‘더욱이’는 인접한 문장, 특히 선행문의 명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더욱’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더욱이’는 의미적으로 ‘가뜩이나’, ‘안 그래도$_3$’과 유사하다. 이들과 차이가 있다면 ‘가뜩이나’와 ‘안 그래도$_3$’은 부정적 의미 운율을 보이는데, ‘더욱이’는 중성적 의미 운율(neutral prosody)의 특징을 보인다. 다음 항에서는 ‘더욱이’가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면서, ‘더욱이’가 어떤 의미적 절 공기 양상을 갖는지 기술하기로 한다.

3.3.2. ‘더욱이’의 구문적 특징

‘더욱이’ 역시 인접한 선·후행절과 어울려 중첩된 사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구문을 형성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쓰인다. ‘가뜩이나’, ‘안 그래도$_3$’에 비하여는 단순 부가적 차원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31)이 그와 같은 예이다.

(31) 가. [A 그 아이는 이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u>더욱이</u> [B 몸도 너무 약하다].

나. [A 그 같은 고통은 보통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 만한데] <u>더욱이</u> [B 금지옥엽으로 자란 그녀로서는 참기 힘든 일이었다].

다. [A 해적들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미국 선박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죠]. <u>더욱이</u> [B 일반 항로를 택하지 않은 제이슨의 위치를 알아낸 것과 탈취한 제이슨을 곧바로 중국 영해로 끌고 가 미국의 영향권 밖에 둔 사실 등으로 볼 때] 단순히 해적들이 한 짓이라곤 보기 어렵습니다.

라. [A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애들이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B 애들한테 다가가려는 열정이야 좋은 자세지만... 문제는 애들이 이를 잘못 오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u>더욱이</u> [C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도 아니고]...

마. [A 오늘 그는 옛날 그가 비자로 있던 상전댁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

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u>더욱이</u> [B 혼인을 하게 될 만석이는 바로 웅보 자신의 핏줄이 아닌가].

'더욱이'는 (31가, 나)와 같이 중첩된 사태의 표현에도 쓰이지만, (31다, 라, 마)와 같이 어떤 사실을 단순히 더한다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향도 보인다. 중첩된 사태 역시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태가 더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안 그래도$_3$'와 같이 묶어서 기술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더욱이'가 선행절, 후행절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 '더욱이'는 선행절로 나타내는 명제에 한층 더한 내용을 부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설상가상을 의미하는 다른 부사적 표현보다는 의미 기능이 좀 더 단순하다. '단순 부가'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기에서는 '더욱이'에 인접한 절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더욱이'의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더욱이'와 공기하는 선행문의 어미군(群)을 알아보고, 그 대응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른 접속부사들도 그렇겠지만 선행절이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떤 접속부사들도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미기능을 가진 연결어미와 '더욱이'와의 공기 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189)에서는 선행어미와 결합 제약이 자유로운 접속부사류와 결합 제약이 엄격한 접속부사류를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더욱이'는 후자에 속한다[53]. 여기에서 활용한 연결어미들로 결합양상을 살펴보겠다[54]. 유의할 점

---

53) 그러나 '더욱이'의 결합 제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54)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189~194)에서 활용한 연결어미의 목록(이후인 2015:49 참조, 재수정).

(1) 대등 접속: ① 나열: -고, -며
② 대조: -지만, -(으)나

(2) 종속 접속: ① 상황: -(으)ㄴ데, -(으)니까
② 까닭: -어/아서, -(으)니, -(으)므로, -느라고. -거늘
③ 조건: -(으)면, -거든, -어/아야
④ 양보: -어/아도, -더라도, -(으)ㄴ들, -(으)ㄹ망정, -(으)ㄹ지언정, -(으)ㄹ지라도
⑤ 의도/목적: -(으)려고, -고자, -(으)러
⑥ 결과: -도록, -게
⑦ 전환: -다가
⑧ 첨가: -(으)ㄹ뿐더러, -(으)ㄹ뿐 아니라

은 '더욱이'의 의미와 기능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자에 따라 직관이 다르겠지만, '더욱이'를 '더욱'의 의미로도 받아들이는 화자가 있기 때문이다. [A, 더욱이 B]라는 구조를 인지적으로는 [더욱이 A, B]로 이해해서[55] 문법성 여부를 판별하는 우를 범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제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에서 활용한 연결어미들로 '더욱이'의 선행절에 올 수 있는 어미들을 가려보자.

(32) 가. 용호는 늘 열심히 {공부했고/공부했으며} **더욱이** 잘하기까지 했다.
나. 용호는 늘 열심히 {*공부했지만/*공부했으나} **더욱이** 1등까지는 하지 못했다.

(32가)의 나열의 어미들은 '더욱이'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선행절의 사태에 대등한 사태나 더한 사태가 부가된다는 점에서, 사태를 나열하는 어미들은 '더욱이'와 잘 어울릴 수 있다. 반면 (32나)의 대조의 어미들은 반대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두 명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의 척도를 나열하는 '더욱이'와 공기하지 못한다.

(33) 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더욱이** 일이 잘 안 풀리기까지 한다.
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더욱이** 일이 잘 안 풀리기까지 한다

(33)은 상황 제시와 관련된 어미와의 연결 관계이다. 기본적으로 '-는데'가 쓰일 때에는 명제 관계가 점층된 사태를 표현하면 대체로 공기가 가능하다[56]. '-니까'는 '-는데'에 비해 점층 사태의 명제 관계에서도 '더욱이'와 공기할 수 없다. 가령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더욱이 일이 잘 안 풀리기까지 한다'라는 문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점층 사태를 표현하게 되면, 소위 시간적 인과를 나타내게 된다[57]. '-니

⑨ 기타: -(으)ㄹ수록, -되

55)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해당 문장 앞에 문장 성립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맥락을 상정하여 문법성을 판별하려 할 수도 있다.

56) 예컨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더욱이** 전화벨까지 울렸다'와 같은 문장은 '더욱이'가 나타내는 명제 관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까'에 비해 '-는데'는 일반적 상황을 제시하는 기능이 더 많으므로 '더욱이'와 쉽게 공기할 수 있다.

(34) 가. ??사람들이 {빠져 나가서} **더욱이** 회의장은 공허해졌다.
나. ??회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니} **더욱이** 다른 임원들도 줄줄이 따라 나갔다.
다. ??경기 결과가 {좋았으므로} **더욱이** 상여금도 받게 되었다.
라. ??허둥지둥 {빠져 나가느라고} **더욱이** 사람들에게 인사도 못 했다.
마. ??거룩하신 얼굴에 손톱자국이 {있거늘} **더욱이** 왕대비 크게 노하시어….

(34)는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와의 공기 관계이다. 이들 예문에 대한 수용성 여부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수용된다고 한다면, 제시된 예문과 관련한 점층적 사태를 상정해 놓을 때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더욱이'는 복문으로 구성된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되므로 여기에서 검증하는 예문들의 대상이 아니다.

(35) 가. *집에 {가면} **더욱이** 빨래도 해야 한다.
나. *집에 {가거든} **더욱이** 빨래도 해야 한다.
다. *일찍 집에 {가야} **더욱이**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조건을 나타내는 어미와의 공기 관계는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가. *영화를 {봐도}, **더욱이** 배우 이름도 기억을 못한다.
나. *영화를 {보더라도}, **더욱이** 배우 이름도 기억을 못한다.
다. *영화를 {본들}, **더욱이** 배우 이름도 기억을 못한다.
라. ?내가 {굶어 죽을망정/굶어 죽을지언정/굶어 죽을지라도}, **더욱이** 그 자식이 주는 돈은 안 받을 것이다.

57) 그런 차원에서 '-는데'에 비해 '-니까'는 앞뒤에 나타나는 명제들의 인과 관계가 보다 더 확실한 경우에 쓰이는 것 같다.

양보의 어미들과의 어울림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37라)는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을망정, -을지언정, -을지라도'를 첨가의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37라)의 기대세계의 명제는 '굶어 죽을 상황이면 그 자식의 돈을 받아도 된다'이다. 이러한 기대 명제가 후행절에서 부정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굶어 죽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다짐, 각오를 부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된다[58].

(38) *그녀는 그를 {만나려고/만나고자/만나러} **더욱이** 그의 직장까지 찾아갔다.
(39)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나올 수 있게} **더욱이** 조작마저 하고 말았다.
(40) *사진을 {보다가} **더욱이** 울기까지 했다.

(38)~(40)에서 의도/목적, 결과, 전환의 어미들과도 공기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41) 이번 답사는 방언 조사를 {해야 할뿐더러/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유적지도 탐방해야 한다.

(41)과 같은 첨가의 연결어미와는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42) 사랑이 {더해갈수록} **더욱이** 슬픔도 깊어진다.

(42)의 '-을수록'은 정도가 더해감에 비례하여 후행절에 나타나는 다른 일의 정도가 더하거나 덜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따라서 중첩 사태를 더하는 '더욱이'의 의미와 어울릴 수 있다.

(43) *이번 행사는 정장을 입고 {오시되} **더욱이** 넥타이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58) 명정희(2016)에서는 '-을망정'과 같은 양보의 어미가 특정 구문에서 첨가의 접속어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24라)는 명정희(2016)에서 상정한 양보 어미가 첨가의 의미로 해석되는 조건에 들어맞지는 않지만, '-을망정'이 형성하는 모종의 특징이 사람에 따라 (24라)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욱이'와 공기할 수 있는 선행절의 연결어미는 '-고, -(으)며, -(으)ㄴ/는데, -할뿐더러/할 뿐 아니라, '-(으)ㄹ수록'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말뭉치 자료를 통해 보면, '더욱이' 앞에는 일부의 연결어미들만 오는 사실이 관찰된다.

'더욱이'는 문어에서 2,010개, 구어에서는 56개가 검색되었다. 구어보다는 문어에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문어에서 임의로 1,000개를 조사하였는데[59], 선행절의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위에서 살펴 본 선행절 연결어미와의 공기 양상과 대체로 일치했다. 선행절은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연결어미 중에서는 '-고, -며'가 고빈도로 나타나고, 단어 접속[60], '-(으)ㄴ/는데, -뿐 아니라, -거니와, -(으)ㄹ수록' 등은 그 공기성이 대동소이했다[61].

구어에서는 선행절이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38개), '-고'가 10개, '-면'은 3개, '-ㄴ/는데'가 2개, 단어 접속이 3개, 기타 1개로 종결어미와 '-고' 외에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의 선행절의 특징은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더욱이'가 수식하는 후행절의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일반적인 문장부사의 수식 범위는 문장 전체로 알려져 있다(이익섭·채완 2000: 130). 또한 일반적으로 접속부사는 문장부사의 하위부류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접속부사 역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는 의미적으로 선행 사태

---

59) '더욱이'는 구어보다 문어에서 훨씬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문어 지향적인 용법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문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적합하다.

60) 다음과 같은 접속 구성을 말한다.

가. 따라서 **삶, 더욱이 삶다운 삶**을 최고의 가치로 요구하는 민중 자신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그 해결을 넓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61) 또한 선·후행절의 어미가 일치하는 경우, 공기 관계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예도 소수 발견된다.

가. 하지만 은근한 사람끼리의 **밀담이면, 더욱이 그게 정담(情談)이면** '이렁저렁, 머시기 거시기'로 속마음 다 털어놓고도 남는다.

나. 김대중이 무슨 당이고, 김영삼이 **무슨 당인지도 모르던, 더욱이 국가보안법이 무슨 뜻인 줄도 모르던** 촌무지랭이가 이제는 월간잡지에 정치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읽어보고 김 선생에게 갖다주는 정도가 되었다.

에 더한 성질의 사태가 부가됨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부가된 사태는 한 문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문장 단위를 넘어서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더욱이'의 작용역에 속하는 후행절은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198~202)에서는 접속부사의 수식 범위는 후행 문장이 아니라 후행 문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44) 가. **그러나**,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기본 자료의 신빙성 여부부터 차근차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 **그러나**,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을 거쳐 안정성 여부를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44가)에서 '그러나'의 작용역은 후행 문장 전체에 걸쳐 있다. '그러나'로 역접되는 내용이 의미상 한 문장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44나)는 접속부사 뒤에 한 문장만 연결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후행 문장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44나)의 문장에 뒤이어 (44다)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의 작용역은 후행 맥락에 걸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임유종·박동호·홍재성 2001: 198~202).

수식 범위가 문장을 넘어선 후행 맥락까지라고 하면, 그 맥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62], 또 맥락까지 수식한다고 하는 표현이 다소 모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일련의 어휘·문법 요소로 선형적으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절이라고 하고, 그 절의 여러 형식 중 하나가 '문장'이라 본다면[63], 문장부사가 수식하는 대상, 곧 문장

62)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198~202)에서는 문맥 수식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용의 '통일성(unity)'과 접속부사를 후행하는 문장에 차례로 옮겨 대입시킨 후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따지는 일종의 진단법을 들고 있다.

63) 구본관 외(2015: 206)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장)'과 '절'을 동일시하는 것에는 생성 문법의 영향이 크며, 어떤 근거에 따라 동일시할 수는 있겠으나 동일시될 범주는 '문(장)'이 아니라 '절'인 것이다.

부사의 작용역이 꼭 하나의 문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체로 어떤 명제를 '문장'의 형식을 띤 '절'에 담는 경우가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선행절과 대조되는 이야기를 '그러나'로 이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문장'의 형식을 띤 절 하나에 담기에 불충분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64]. 맥락이라고 해서 그 범위가 불분명해 보이는 것이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수식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문장 형식에 국한하지 않는 절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은 논의를 '더욱이'에도 적용한다면 '더욱이'에 이어지는 후행절의 영역도 수식 범위도 부가된 선행'절' 관련 내용이 끝날 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5) 가. 이 사건은 순분이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나는 노동자의 이런 경험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그것은 유치한 경우라고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사실적이고 감동적인, 그리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꼭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 아닌 가령 대학생들이나 가정부인들도 (그리고 최소한 나 자신까지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며 순분이와 비슷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을 것이며 아마도 많은 노동자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사위와 딸과 이제 헤어져야만 하게 되었으니, 이전에 그렇게 알고 있던 대로 사위가 그저 이름없는 신사가 아닌 것이 섭섭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타이사는 아기를 가진 몸이어서 험한 뱃길에 떠나 보내기가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페리클레스도 아내가 해산하기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사가 꼭 남편과 함께 가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녀가 몸을 풀기 전에 타이어에 도착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45가)에서 '더욱이'가 미치는 작용역은 밑줄 친 부분, 즉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나타난 '절'이다. 그에 비해 (45나)에서는 '그러나' 앞 부분까지이다. 문장 단위로 두 문장이 되는 것이다[65].

64) '짧고 간결한 문체'가 좋은 글쓰기 형식이라는 사조(思潮)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Ernst(2004: 53)에서는 부사의 작용역에 따라 부사를 분류하였다[66]. 그에 따르면 '더욱이'는 그 작용역이 명제(propostion)가 된다. 누차 언급했듯 '더욱이'에 따르는 내용은 선행절에서 나타나는 사태에 더한 사태이다. 이 사태는 단일한 사태일 수도 있고 복수 사태일 수도 있다. 후자일 경우 문장 단위를 넘어서서 표현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욱이'의 후행절은 선행절의 사태에 더해지는 일련의 사태로 이루어진다. 이 사태는 분명 사건(event)은 아니다. 그보다 명제(propositi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더욱이'의 후행절은 일련의 명제가 끝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더욱이'가 다른 문장부사(접속부사)와 같이 쓰일 경우, 다른 부사들에 후행해서 쓰이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에 선행하는 부사는 '그리고, 게다가, 하물며, 따라서, 또한, 이미, 이제' 등이 있다. 아마 '더욱이'는 다른 접속부사와 그 지위가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은 듯하다. 가령 '그리고, 또한'은 '더욱이'에 비해 단순 접속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진다. '따라서, 하물며'는 선행절과의 결속력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선행절 바로 뒤에 반드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접속부사들과 같이 쓰일 때 후치된다는 점으로 무엇보다도 '더욱이'는 후행절과 의미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3.3. 요약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 (3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46) '더욱이'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A 특정 상황}, <u>더욱이</u> {B 특정 속성이 더한 상황}, {C 특정 속성이 더한 상황}, {D 특정 속성이 더한 상황}]

나. 통사적 패턴: [{A 종결어미/나열의 연결어미}, <u>더욱이</u> {B 종결어미/나열

---

65)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200~202)에서 제시한 통일성에 따른 진단법과 후행하는 각 문장에 차례로 '더욱이'를 옮기는 진단법으로도 확인된다.

66) Ernst(2004: 53)의 부사 분류는 다음과 같다.

Speech-Act > Fact > Propostion > Event > Specified Event

의 연결어미}, {C 종결어미/나열의 연결어미}, {D 종결어미}]

다. 비고: A, B, C, D는 중성적 의미 운율.

4. 척도 비교와 관련된 부사적 표현

본 장에서는 본고의 논의 대상 중 척도 비교와 관련된 부사적 표현인 '차라리', '오히려', '하다못해', '하물며'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들의 전반적인 문법을 기술하고 이들이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차라리'와 '오히려', '하다못해'와 '하물며'는 의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의미의 전염 현상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겹치는 요소들이 절 공기 관계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차례대로 논의할 것이다.

4.1. '차라리'

4.1.1. '차라리'의 기본적 의미

'차라리'는 만족스럽지 않은 양자(兩者)를 비교 선택하는 의미의 부사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사전에서 제시한 '차라리'의 정의를 살펴보자.

(1) 가. 《표준》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할 때에, 저리하는 것보다 이리하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 대비되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마땅치 않을 때 상대적으로 나음을 나타낸다.
나. 《고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어떤 상태나 동작의 선택에서 어떤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나음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1)에서 제시한 두 사전 정의의 차이는 이른바 선택지(選擇肢)의 성질이다. 《표준》에서는 비교 대상인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마땅치 않은 것이라 정의한 데에서

《고려》와 차이를 보인다. 그 외에는 주로 부사(어) 범주의 하위 분야를 다루는 논의에서 '차라리'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 중에서도 위 (1)의 정의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만을 제시하겠다.

서정수(1996: 51)에서 '차라리'를 의외성 부사어로 분류하였다. 이 의외성은 '차라리'가 수식하는 문장에 표현된 명제의 성격을 의미한다. 민현식(1999: 173)은 주관적 비교 평가의 양태 부사로 '차라리'를 파악하였다. 김선영(2003: 53)은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형성된 예상이나 기대에 위배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67][68]. 그리고 '차라리' 다음에 제시되는 명제의 선택은 주관적 호오(好惡)로써 나타낸다고 하였다. 손남익(2014: 1097)에서는 '차라리'에 [+선택], [+사실], [+비교], [+우위]의 의미자질을 상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사실]의 의미자질이 '차라리'의 어떤 특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최규련(2005: 323~324)은 초점사 논의에서 '차라리'를 잠깐 다루었다. '차라리'와 '오히려'는 'A라기 보다는 차라리/오히려 B이다'의 형태로 나타나며 A를 제외하고 B를 지시한다는 차원에서 같다고 보았다[69]. 이는 결과적으로 '차라리'가 어떤 것을 지시하느냐에 맞춘 설명이라 생각된다. 이후인(2015: 37~38)은 '도리어', '오히려[70]'와 유사한 의미·기능의 '차라

---

67) 이 연구에서는 '차라리'를 '도리어', '오히려'와 비교·대조하였다. '차라리'에 비해 '도리어', '오히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상이나 기대에 위배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차라리'보다 '도리어', '오히려'의 비교 기준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이다.

68) 이 설명을 위해 제시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79) ㄷ. 위로는커녕, 그 어두운 카페의 구석자리에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그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차라리** 잔인한 비웃음에 가까운 것이 되어 있었다. <KAIST>
김선영(2003: 53)

김선영(2003)의 설명에 따르면, '그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화자의 예상/기대와는 달리 '잔인한 비웃음에 가까운 것'이 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러한 '차라리'의 용법은 '오히려$_1$'의 용법과 닮아 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라리'의 용법이 원래의 용법, 즉 '비교 대상의 평가 후 선택'의 용법에서부터 확장이 된 것으로 본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69)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외 개념과 보완집합(complementation) 개념과의 관련을 보이는 표현들로 보았다. 이들은 문장 상에서 자신들이 직접 결합되어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앞의 표현들, 즉 보완집합(A)를 제외시키고, 뒤에 나오는 다른 보완집합(B)를 지시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보완집합은 일종의 여집합적 개념이다.

70) 후술하겠지만 본고는 '오히려'를 '오히려$_1$'과 '오히려$_2$'로 구분한다. 이때의 '오히려'는 본고의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_1$'이다.

리'와 그와 구별되는 '차라리'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후자의 '차라리'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조금 더 강화된 양상을 보이며, 비교되는 두 명제 중 후행 명제를 선택하는 화자의 태도까지 명시한다고 볼 수 있다. 김선영(2003)도 그렇지만 이 논의는 특히 기존 사전에서는 하나로 정의하였던 '차라리'의 의미·기능을 면밀히 살펴 둘로 구분했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차라리'의 의미·기능을 대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선행연구 중에서도 본고의 논점과 관련되는 부분은 '차라리'의 용법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차라리'의 용법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면 각 '차라리'의 구문적 특징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차라리'의 용법을 분명하게 기술하는 것은 '차라리'의 구문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것이다. 앞서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전적으로 '차라리'는 다의어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의 '차라리'가 쓰인 예문을 살펴보자.

(2) 가. **차라리** 자결할망정 항복하지는 않겠다.
나. 술이 취한 강 영감의 눈에서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은 **차라리** 강 영감으로 하여금 여느 때 느낄 수 없는 위엄을 풍기게 하고 있었다.

(2가)는 전형적인 '차라리'의 용법이다. 이 문장은 대비되는 '자결'과 '항복' 중 화자 주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결'이 나은 선택임을 나타낸다. 이는 사전 정의에도 부합되는 의미이다. 그러나 (2나)는 사정이 다르다. 몇몇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나)와 같은 '차라리'는 '도리어', '오히려'와 부합된다. '차라리'의 원래의 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을 상정하자면, '강 영감의 눈물이 풍기는 것이 무엇이냐'에서 문맥상 비교 선택지에는 다른 여러 후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선택지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는 '평소 느낄 수 없는 위엄이 풍긴다' 정도로 느끼고 이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에서는 '위엄' 따위가 풍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러한 '눈물'에서는 보통 '나약함'이나 '절망' 따위의 것들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러한 예상/기대와는 반대로 '위엄'이 풍긴다는 것이다. (2나)와 같은 상황에서 화자의 척도 비교는 다음

의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상황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정도)

(3) ●——\——\——\——→

A B C D

(평소 느낄 수 없는 위엄이 풍김)

화자는 위 (2나)와 같은 발화 전에 (3)의 A~D[71] 정도의 여러 표현의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그 중 A, B, C로 말하기보다는 D가 적절한 것 같다는 발상에서 D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러한 쓰임은 '차라리'의 원래의 용법과는 구별되며, '차라리'는 (2가)의 원형적인 의미에서 (2나)의 용법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가. 그것은 태극(太極)과 비슷하지만 태극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확산, 진화하는 태극이며 끝없이 차원 변화하는 늘 새로운 태극이다.

나. 그 벽돌은 흰색이 아니었다. **차라리** 일종의 지저분한 회색이었다.

다. 당시 토요토미는 중국은 물론 인도까지 아우르려고 했는데 이 야심은 황당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애처로웠다.

라. 하지만 막상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나니까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머리 깎고 스님이 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아간 거였어요.

(4)의 예문들에서는 '오히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차라리'가 쓰였다. '차라리'가 (2가)에서 (2나)와 같은 용법의 확장을 겪었다고 한다면, (2가)의 '차라리'의 용법을 바탕으로 (2나)의 '차라리'의 용법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낫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4)의 예문들은 (2나)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해석될 수 있다. (4가)는 '그것은 일반적인 태극이 아니라 확산, 진화하는 태극이라 하는 게 더 적절하다'로, (4나)는 '그 벽돌은 흰색보다는 지저분한 회색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로, (4다)는 '토요토미의 야심은 황당하기보

71) 더 많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네 가지 선택지로 단순화시켰다.

다는 애처로워 보였다'로, (4라)는 문맥을 좀 더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으나 '다른 선택보다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도로 해석된다. 곧 각 문장에 이러한 해석이 함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선영(2003: 53)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본래의 '차라리'는 그 의미 특성상 후행 서술어에 '-겠-', '낫다', '싶다' 등의 서술어가 나타난다[72]. (4)에서는 그러한 서술어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문맥상으로는 비교, 선택, 판단 등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래의 '차라리' 구문이 나타내는 비교 선택이라는 기본적 의미가 통사적으로 달리 표상되어 쓰이다가, 결국에는 외현적인 통사 구조에서 나타나는 의미 그대로 쓰이게 된 것이다.

요컨대, 'A보다 차라리 B가 낫다'라는 비교 선택의 평가를 나타내는 기본적 구조에서 'A보다는 B다'라는 구조로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2나), (4라)와 같이 '비교 선택'으로의 해석이 점점 복잡해지게 되어, '오히려'의 용법과 유사해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4)의 '차라리'의 용법을 기존의 '차라리'의 용법이 확장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 확장의 과정은 원래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통사적으로는 달리 표상되어 쓰이면서, 결국 통사 구조에 의미가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5) 가. 청송은 **차라리** 순이가 반가웠다.
나. 주형은 기가 막혀 **차라리** 헛웃음이 나온다.
다. 영규, **차라리** 표정이 없어진다.
라. 정윤은 **차라리**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
마. 냉정한 현실 앞에서 사랑은 **차라리** 유치찬란임을.
바. 기가 막혀 **차라리** 웃음이 다 난다.

위 (5)는 주로 드라마·영화의 지문이나 내레이션(narration)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다. (5)의 '차라리'는 앞서 언급한 (4)의 '차라리'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때의 '차라리'는 '오히려'로 바꿔 써도 무방할 듯하나 전달하고자 하는 어감은 달

72) 이외에도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서술어와 공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라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히려'를 선택하기보다 '차라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5가)의 경우 '청송은 오히려 순이가 반가웠다'로 바꾼다면, '청송은 순이가 오히려 원망스럽기보다 반가웠다'의 정도의 의미임을 예상할 수 있고, '차라리 순이가 반가웠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감정 후보군 중에서 그 상황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감정 하나를 선택함' 정도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포착된다. (5)의 나머지 예도 같은 맥락에서 '오히려'와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위의 상황에서 '오히려'가 쓰이면 '예상/기대와는 반대로'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게 되고, '차라리'가 쓰이면 '다른 것보다도'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게 된다[73].

이처럼 여러 모로 '차라리'와 '오히려'는 닮은, 혹은 닮아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차라리'와 '오히려'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의미의 전염 현상(傳染, contagion)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박진호(2015)는

---

73) '오히려'와 '차라리'의 용법 차이는 여러 논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김경훈(1996: 39~40)은 다음과 같은 예로써 그 용법이 다르다고 보았다.

가. 비가 와서 일하지 못하고 쉰 것이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 잘 된 셈이네(전화위복이 된 셈이네).
나. 동생이 언니보다 [오히려, ?도리어, ?차라리] 더 크지 않니?
다. 자유가 아니면 [?오히려, ?도리어,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에 따르면, (가)는 안 좋을 뻔한 상황이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사태로 반전되고, (나)는 언니가 동생보다 더 키가 커야 하는데 동생이 크다는 예상 밖의 상황임을 보여줄 때에는 '오히려'가 적합하다. (다)는 화자의 강한 집착 또는 의지를 보이는 데는 '차라리'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예상 밖의 상황일 때'에는 '오히려'가, '화자가 강한 집착이나 의지를 보일 때'에는 '차라리'가 쓰인다고 하였다.

한편 민현식(1999: 174)도 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한 바 있다.

가. [도리어, 되레, 오히려, 외려, *차라리] 그이는 나한테 대들고 큰 소리를 치더라니까.
→ 부당한 반전(反轉) 사태의 평가
나. [*도리어, *되레, 오히려, 외려, 차라리] 네가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편이 낫다.
→ 유리한 사태의 평가

'도리어, 되레'는 '화자의 관점에서, 사태의 불리하거나 부당한 반전과 그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동'의 표현에 초점이 놓인다. 반면 '차라리'는 '낫다, 좋다, 이롭다' 등의 긍정적, 적극적 자질의 용언에 호응하는 데서 알 수 있듯 '화자의 관점에서 유리하거나 합당한 사태의 제시'에 초점이 놓인다. '차라리'보다 '오히려'가 그 사용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이나 '유리하거나 합당한 사태의 제시'에서는 '차라리'가 더 적극적, 강조적으로 제시하는 점이 다르다. 이 두 논의는 '오히려'에 비해 '차라리'는 주관적 평가와 화자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사태를 제시한다고 관철했다. 본고에서는 '차라리'의 좀 더 다양한 양상을 살펴봤을 때 보다 적합한 정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74], 그에 따르면 의미의 전염은 한 문장 내에서 같이 출현하는 단어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어휘부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 사이에서 흔히 일어난다. 곧 통합 관계보다 계열 관계가 전염의 주된 동기이다(박진호 2015: 622). '차라리'의 용법 확장에는 '차라리'와 계열 관계에 있으며 어휘부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히려'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오히려' 구문에 놓이는 A, B는 예상/기대한 바(A)와 예상/기대에 상반되는 바(B)이다. 그리고 '차라리' 구문에 놓이는 A, B는 좀 더 마땅치 않은 것(A)과 그나마 나은 것(B)이다. 두 구문을 형성하는 A, B는 기본적인 관계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대립 구도에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원래 '차라리'가 가진 통사적 구성이 달라지면서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의미적으로 '오히려'와 유사하며, 구문을 형성하는 A, B도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점도 유사하다. 또한 '오히려'도 본래의 '차라리'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둘 사이의 전염이 일어나게 된 동기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차라리'는 그 용법에 따라 '차라리$_1$'과 '차라리$_2$'로 나눌 수 있겠다. 각각의 정의는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다.

(6) 가. '차라리$_1$'

여러 비교 대상들을 평가하여 그 중 나은 것을 이를 때 쓰는 말. 대체로 비교 내용들은 화자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화자의 선택 역시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인 경우가 많음. 결과적으로 선택된 내용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음.

나. '차라리$_2$'

'오히려$_1$'와 유사한 의미로 쓰임. '차라리 B'라고 하는 문장은 곧 '다른 여러

74) 언어의 전염 현상은 어떤 성질이 하나의 언어요소로부터 다른 언어요소로 옮아가는 현상이다. 전염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겠는데, 전염되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① (음운) 형식의 전염, ② 의미의 전염, ③ 결합적 속성의 전염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전염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비교적 항구적일 수도 있다. 일시적 전염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점차 관습화되어 항구적인 전염이 될 수도 있다(박진호 2015: 620 참조).

선택지 중 그 상황에 적절한 것'을 선택함을 나타냄.

(6나)의 '차라리$_2$'의 예는 (5)와 같은 예문을 들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 '차라리$_1$'과 '차라리$_2$'의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다. 두 '차라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비교 대상의 동반 여부를 들 수 있으나, '차라리$_1$'도 비교 대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 또한 (4)와 같은 '차라리'는 '차라리$_1$' 같으면서도 '차라리$_2$'와도 의미적으로 부합된다 할 수 있어서 모호한 경우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문장을 하나하나 의미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분하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75].

4.1.2. '차라리'의 구문적 특징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이제 '차라리'의 구문적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차라리$_1$'이든 '차라리$_2$'이든, 여러 비교 대상들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의미가 통사적으로는 어떻게 표상되며 어떠한 절 공기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차라리'의 통사·구문론적 특징에 대해서 김선영(2003)과 이후인(2015)에서 논의된 바 있다. 우선 이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김선영(2003: 53~54)

가. '차라리'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겠-'이 결합되거나 '낫다, 싶다' 등의 서술어가 나타난다.

나. '차라리'는 '-보다', '-커녕' 뒤에 쓰여 비교되는 두 대상에서 후자가 나타내는 사태나 명제를 강조한다.

다. '차라리'는 비교되는 명제나 사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쓰임이 가능하다.

---

75) 그럼에도 이렇듯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는 것은, 두 '차라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함이라기보다 한 어휘가 가진 의미의 스펙트럼에서 '차라리'의 경우는 그 의미·용법이 (5가)에서 (5나)로 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말하고자 함이다.

(8) 이후인(2015: 53~54)

가.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 등의 앞에 오는 문장은 통사적으로 부정문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행절에 어휘적 부정소가 오기도 한다.

나.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의 선행절에는 '-느니', '-(으)ㄹ 바에야', 조사 '보다', '은/는커녕'과 같은 구문이 오기도 한다.

다. '도리어, 오히려, 차라리'는 선행절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라. '차라리'는 '도리어, 오히려'에 비해 선행절과의 제약이 심하다.

이들 논의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본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

① 비교 표현과의 동반 양상

'차라리'는 대체로 비교 표현과 한 문장 내에 잘 동반되지 않는다. 위 (7나), (8나)를 참고하면, '차라리' 구문에서 비교되는 표현들이 문장에 드러날 때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실현된다[76].

(9) 가. A보다 **차라리** B

나. A은/는커녕 **차라리** B

다. A느니 **차라리** B

라. A(으)ㄹ 바에 **차라리** B[77]

실제 구어 자료에서 '차라리'의 200개 예 중, 비교 표현과 동반한 경우는 17개(8.5%)에 불과하다[78]. 위 (9)와 같은 비교 표현과 동반되는 경우보다 동반되지 않

76) [A(으)ㄹ지언정 차라리 B]나 [A(으)ㄹ망정 차라리 B]와 같은 구문도 잘 쓰일 법하나 현대 한국어 화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의고적이라 생각해서인지 말뭉치에서 소수 확인된다. 그것도 구어 말뭉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A(으)ㄹ지언정 차라리 B] 구문은 중세 문헌에서 많이 확인된다.

77) 구문에서 '차라리'의 위치는 꼭 B앞으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A 앞에도 위치할 수 있는데, 위치와 관계없이 B를 수식한다.

78) 각 비교 표현의 동반 빈도는 다음과 같다.

은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비교 표현이 동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비교 표현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 비교 대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대화 상황에 의해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위 (7), (8)의 논의에서 다루어졌던 바이다[79]. 즉 문맥상 생략되는 성분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서 조응되는 성분(담화 전체, 선행문, 선행문의 구성 성분, 화·청자 등)들이 해당된다(문금현 2014: 240). 이후인(2015: 54)에서 지적했듯이 '차라리' 구문에서의 비교표현의 생략은 통사적 차원에서 생략된 성분들이 전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80]. 대체로 생략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비교 표현이 생략되지 않고 표현되는 경우에는 화자가 자기의 주장을 더욱 단언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81].

비교 표현과의 동반 양상	출현 빈도
'보다'의 동반	4개(2%)
'은/는커녕'의 동반	1개(0.5%)
'-느니'의 동반	8개(4%)
'-(으)ㄹ바에'의 동반	2개(1%)
非동반	183개(91.5%)
기타	2개(1%)
총	200개(100%)

79) 이 관점에서 두 논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비교되는 명제, 사태의 잦은 생략을 김선영(2003: 54)에서는, '차라리'가 대비되는 사태나 명제의 연결하는 것이 주 기능이 아니라 예상에 반하는 명제나 사태를 강조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기 때문이라 보았다. 이후인(2015: 54)에서는 선행문(선행절)이 쓰이지 않아도 선행문(선행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생략이 쉽게 일어나며, 후행문의 강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인 것으로 보았다. 두 입장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오히려 두 논의에서 언급했던 사항들, 즉 사태, 명제의 연결 기능보다 예상에 반하는 사태, 명제의 강조 기능이 더 강하다는 점, 선행문(선행절)이 생략될 경우 선행문(선행절)의 내용이 전제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동감하는 바일 것이다.

80) 다만 문금현(2014: 235)에서는 어휘적 전제의 기제를 다루면서 다른 부사와는 달리 문장부사는 문장 의미가 가지는 전제와 별 상관이 없다고 보았다. 그에 대한 예로 '**설마** 그가 그런 짓을 했을까?'를 들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양태부사들도 어휘적 전제를 가지는 예로 보고자 한다. 가령 '**차라리** 잘됐다'와 같은 경우 '잘됐다'라고 하는 것에 비해 '**차라리** 잘됐다'라고 하면 그 의미상 모종의 맥락이 전제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양태부사들의 전제 양상은 '양태'라는 특성상 보다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81)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너 같이 친구 애인이나 뺏는 기집애한테 뒤통수 맞느니 **차라리** 아무 피해 안 주는 저 남자가 더 편해!

나. 자네들을 믿느니 **차라리**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게 빠르겠네!

한편 이러한 '차라리' 구문에서 비교 표현의 잦은 생략은 비교한다는 것보다 선택된 것이 강조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것과 비교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앞서 제시한 예에서는 (3나), (4라), (5)가 그러한 경우로 생각된다. 가령 '차라리 잘 됐어'라고 하면, 맥락상 '다른 상황에 비해 이 상황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우는 비교 명제, 사태가 흐릿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10) 가. A보다 **차라리** B가 낫다. → 비교 대상과 선택 대상의 대비. 결과적으로 B가 강조됨.
나. **차라리** B가 낫다. → 비교 표현이 비실현됨으로써 중요성이 더 하락. 그리고 B가 강조됨.

(10가, 나)의 과정을 거쳐 비교 표현의 출현 가치가 더욱 낮아짐으로써 '차라리'는 역설(力說)만을 나타내는 용법도 가지는 것이다. 이는 앞서 상정한 '차라리$_2$'의 생성 기제이며, '차라리' 뒤에 긍정적 평가의 서술어 외에도 다양한 형태·통사 구성을 취할 수 있게 된 기제인 것이다.

② 서술어의 성격

'차라리'는 어떤 비교 대상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의 서술어와 자주 공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가 쓰인 200개의 예 중에, 긍정적인 서술어가 쓰인 경우는 79개로 나타났다. 이 중 빈번하게 쓰인 서술어는 '낫다'(26개, 32.9%), '잘되다'(17개, 21%), '좋다'(13개, 16.4%) 등이었다[82)83)]. 여기에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와 같은 의견을 묻는 의문문도 20

다. 이러구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 바엔, **차라리** 죽어도 상관없다구...
라. 보살펴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주인이 없는 쪽이 나아요.

이러한 경우 비교 대상 A와 B의 의미적 거리는 더욱 먼 것으로 상정되는 경향이 있다.

82) 그 외에 '행복하다', '고맙다', '편하다', '괜찮다', '옳다', '귀엽다', '홀가분하다' 등이 근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개가 나왔다. 이러한 성격의 서술어들에는 '-(으)ㄹ 것-', '-겠-', '-(으)ㄹ 텐데', '-(으)ㄹ까 보다/싶-', '-는지도 모르-'등이 잘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어떤 편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③ 문장 유형

'차라리'가 취하는 문형의 계량적 접근은 큰 의미가 없는 듯하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모두에 골고루 잘 쓰이기 때문이다[84].

(11) 평서문

가. 나 같으면 그 돈 모아 **차라리** 가게를 하나 차리겠다. (의지)

나.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몰라. (평가, 추측)

다. **차라리** 죽어도 상관없어. (평가)

라. **차라리** 잘된 일이야. (평가)

마. **차라리** 내가 하고 싶다. (평가, 의지)

(12) 의문문

가. **차라리** 나도 알바할까? (평가 질문)

나. **차라리** 결혼을 시키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평가 질문)

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이를 업둥이로 들이는 게 어떻겠소? (평가 질문)

라. **차라리** 이럴 거면 4년은 뭐하러 버텨? (질책)

마. 그냥 올 바엔 **차라리** 어리굴젓이라도 가지고 오지 그랬냐? (질책)

(13) 명령문

가. **차라리** 아예 만나지를 마. (나은 행동의 권유)

나. **차라리** 이혼하고 가. (나은 행동의 권유)

---

83) 이러한 비율은 '차라리'의 말뭉치 검색 결과 전체 3,000여 개에서도 비슷하다. '낫다'가 380여 개, '좋다'가 240여 개, '잘되다'가 200여 개로 나타난다.

84) '차라리 내가 할걸'과 같은 문장은 감탄문으로 본다면, '차라리'는 감탄문까지 거의 모든 문형에 다 쓰일 수 있다.

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은 행동의 권유)
라.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나은 행동의 권유)

(14) 청유문
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차라리** 열심히 즐기자.
나. **차라리** 소녀는 보내주십시오.

'차라리'는 문형에 있어서 특별한 공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선행문(절)의 성격

앞서 (8가)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정정의 부사의 한 종류로서 '차라리'는 그 앞에 통사적인 부정문이나 어휘적 부정소가 오는 경우가 있다[85]. 그런데 특히 구어에서는 통사적인 부정문이나 어휘적 부정소가 따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15) 가.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낫지 않냐구.
나. **차라리** 인연을 끊고 말자.
다. 전 **차라리** 고마운 일이다 싶어요.
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너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걸 그랬지 싶어.

구어에서는 (15)와 같은 단일한 문장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각 문장들은 의미적으로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더 푸는 게 낫다', '인연을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보다 끊자',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이다 싶다', '그때 숨길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할걸 그랬다'일 것이다. 문어에서는 이러한 의미 해석이 구어에서보다는 통사적 구문으로 좀 더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라리' 구문의 일반적인 경향은 그러한 구문이 생략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85) 이때 선행문(절)은 비교 표현을 포함해서 '차라리' 구문에 선행되는 모든 문장(절)을 말하는 것이다.

⑤ 배타성(排他性)

조애숙(2011)에서는 ‘むしろ’와 ‘오히려’를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문법적 특성을 고찰한 바 있다. ‘むしろ’는 ‘오히려’뿐만 아니라 ‘차라리’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むしろ’ 구문에서 나타나는 비교 대상을 각각 ‘自者’, ‘他者’라 불렀다. 이는 본고에서 비교 대상을 A, B라 간단히 칭한 바와 같다. ‘むしろ’의 의미적인 특징으로 대비되는 ‘他者’, 즉 A가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관점에서 ‘むしろ’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86]. 이러한 관점은 비교 선택을 의미하는 ‘차라리’의 특징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6) 가. 아빠 때문에 졌다고 소문나느니 **차라리**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아.
나. 요즘 같아선 **차라리** 시집이나 확 가버릴까 싶다니깐.
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거래 안 해. **차라리** 그때처럼 콩밥을 먹구 말지.
라.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16)은 ‘차라리’에 후행하는 사태가 선택됨으로써(혹은 더 낫다고 판단함으로써),

86)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 幸いなことに、原住民は部隊に危害を加えるようなことはなかった。むしろ反対に、部隊に不穏な動きがないかを、向こうの方から偵察に来るらしかった。(狼狽309)
가′. 다행히도 원주민은 부대에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부대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없는지 정찰하러 오는 듯 했다. (狼狽334)
나. 日本{の高齢化社会を考えていくうえで、決して見過してはならない重要な点は、高齢化をめぐるさまざまな問題が、<いま老年に達した人々>よりも、むしろ [若い世代] に直接関わ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る。(高齢)
나′.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은, 고령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지금 노년에 이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젊은 세대]에 직접 관계된다는 것이다.

조애숙(2011: 276~277)

위의 예에서 (가, 가′)는 ‘원주민이 부대에 한 행동’으로서 ‘위해를 가하려는 일’을 부정하고 있으며, (나, 나′)에서는 ‘고령화 문제의 관련자’로서 지적된 ‘젊은 세대’에 대비되는 ‘지금 노년에 이른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다른 비교 대상들이 배제되는 경우이다. (16가)는 '모르는 척을 하는 게 나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아빠 때문에 졌다고 소문이 난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배제하려 한다. (16나)도 '시집을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다른 사태들을 배제시키려 한다. (16다)는 '콩밥을 먹는 게 더 낫다'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거래를 한다는 사실'이 배제되며, (16라)도 어떤 사태를 '잘 됐다'라고 평가함으로써 다른 평가가 배제된다.

조애숙(2011: 277)에서는 이러한 배타성은 'むしろ'뿐만 아니라 '오히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양 형태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본고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차라리'는 비선택된 사태는 완전히 배타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1.3. 요약

'차라리' 구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된다. 넓은 의미에서 모두 비교-선택을 나타낸다. 그 중 '차라리$_1$'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다. '차라리$_2$'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선택되는 사태, 감정 등이 강조된다는 점이 더 부각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비교 대상을 명확히 상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차라리' 구문이 구분된다. 두 '차라리' 구문 모두 비교 표현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비교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도 모종의 비교 대상이 있음이 전제된다. 다만 '차라리$_2$'의 경우 그러한 전제가 성립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는 '차라리'의 용법 확장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 드러나야 하는 중요도가 떨어짐으로써, 비교보다는 역설적(力說的) 단언의 기능에 더 충실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차라리$_1$'

가. 의미적 패턴: [{서술 A: 비교 대상/사태} **차라리** {서술 B: 주관적 판단으로 선택}]

나. 통사적 패턴 1: [{(A보다)} **차라리** {B가 낫다/좋다 등 긍정 평가 표현}]

다. 통사적 패턴 2: [{(A -느니)} **차라리** {B가 낫다/좋다 등 긍정 평가 표

현}]

라. 통사적 패턴 3: [{(A(으)ㄹ바에)} **차라리** {B가 낫다/좋다 등 긍정 평가 표현}]

마. 비고: A의 내용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B에는 '-겠-'과 같은 추측의 선어말어미가 자주 공기함.

(18) '차라리$_2$'

가. 의미적 패턴: [**차라리** {서술 B: 주관적 판단으로 선택}]

나. 통사적 패턴: [**차라리** {서술 B: '형용사'나 '명사-이다'}]

다. 비고 1: '차라리$_1$'에 비해 중성적 의미 운율.

라. 비고 2: 어떤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마. 비고 3: '오히려'와 비슷한 의미이지만 '오히려'의 반(反)기대(counter-expectation)의 의미는 약함. 선택된 것에 대한 단언, 역설(力說)의 의미가 강함.

4.2. '오히려'

4.2.1. '오히려'의 기본적 의미

'오히려'는 앞서 논의한 '차라리'와 유사한 점이 많은 부사이다.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19) 《표준》

가.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예) 우리의 도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 머리를 숙이느니 **오히려** 죽는 게 나을 것이다.

(20) 《고려》

가. 일반적인 기준이나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

예) 여행 중에는 **오히려** 낯모르는 사람들이 더 편하다.

나. 앞 내용보다 뒤 내용이 더 나음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어구나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예) 어차피 죽을 거라면 가족이 모두 함께 죽는 게 **오히려** 나을 게다.

(21) 《연세》

가.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로.

예) 네가 잘못해 놓고 **오히려** 큰소리니?

나. 아직도 조금.

예) 시험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오히려** 시간이 남았다.

각 사전이 기술하고 있는 '오히려'의 첫 번째 정의는 거의 차이가 없다. 《표준》의 두 번째 정의는 《고려》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연세》의 경우 '오히려'의 두 번째 의미가 다른 사전과 차이를 보인다. 이 '아직도 조금'이라는 의미는 시간과 관련된 문장 외에는 적용되는 바가 없는 듯하다. 이 의미는 '오히려'의 첫 번째 정의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오히려'의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차라리'와 유사하다. 앞부분에서 '차라리'가 '차라리$_1$'과 '차라리$_2$'로 나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_1$'은 '차라리$_2$'와, '오히려$_2$'는 '차라리$_1$'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을 갖게 된 것을 전염 현상으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의미만을 지니고 있게 되다가, '차라리'의 영향으로 두 번째 용법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오히려'를 다룬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예상과는 달리'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의미의 부사 '도리어', '차라리'와 비교·대조하는 관점이 많다. 김경훈(1996: 39~40), 민현식(1999: 173), 김선영(2003: 52~53), 서정수(2005: 51, 159), 임유종(2005: 138~140)[87], 최규련(2005: 323), 조애숙(2011)[88], 이후인(2015: 36, 52~56)[89] 등이 대표적이다.

87) 이 논의에서는 '역접'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를 파악하였다. '오히려'는 경우에 따라 '역접'보다는 '예상외로'라는 어휘적 의미 기능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의미 차이가 선행 연결어미와의 결합 제약에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가 무표적인 접속 기능만이 아니라 어휘적인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 보았다.

이상의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먼저 '오히려'의 용법의 분화 양상부터 살펴보자.

먼저 '오히려$_1$'는 의미적으로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와 같은 구문으로 나타난다. 이때 A는 예상/기대되던 내용, B는 그에 반(反)하는 내용이다. 실제로는 꼭 상반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의외적인 내용이 오기도 한다. 그리고 앞서 다룬 '차라리'도 그렇지만, '오히려$_1$'도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2) 작년 겨울 그와 헤어지게 되었고, 나는 그때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다.
(작년 겨울 그와 헤어지게 되었고 나는 그때 힘들 줄 알았는데(A)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다(B))

문맥상 A의 내용을 복원할 수는 있으나 (4)와 같이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헤어지면 힘들 줄 알았는데 그와는 반대로'와 같은 배경정보(문맥)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오히려'가 그러한 배경정보를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23) 작년 겨울 그와 헤어지게 되었고, 나는 그때 마음이 후련했다.

(23)은 (22)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23)에서는 '마음이 후련한' 결과 사태에 대해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단지 중립적인 사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2)와 같이 '오히려'가 쓰이면, 결과적으로 B가 강조되는 효과를 낳는다.

'오히려'의 이러한 효과는 수사법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

---

88) 이 논의에서는 일본어 'むしろ'와 '오히려'의 의미적 관점에서 문법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부사는 공통적으로 「<문중에서 초점화(focusing)되는 요소>와 <그와 대비되는 다른 요소>와의 계열적 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초점화요소인 自者와 대비되는 他者를 비교하여 자자를 선택하는 비교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自者는 발화 자상(自想)이나 기시(期時)와는 다른 결과임을 나타내는 의외성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89) 이 논의는 정정의 부사류로 '오히려'를 상정했으며 통사적인 제약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다른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24) 가. **오히려** [B 제가] 더 미안합니다.
나. 당신이 독특하다는 게 **오히려** [B 다행이에요].

(24가)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B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예상/기대에 반하는 내용이라 보기는 어렵다. 수사적으로 '미안함'을 좀 더 어필한 것이다. (24나)도 동일한 층위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는 역설(力說) 용법의 정도 부사처럼 쓰인다. 즉 인상적 표현을 위한 수사적 용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히려$_2$'는 [A보다 오히려 B가 낫다/좋다] 정도의 구문으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두 대상 중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A, B는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선택되는 B는 그 중 그나마 나음을 의미한다[90]. 아마 이 용법에서 원래의 A, B는 상반되는 대상/내용이었을 것이다. 두 상반되는 대상/내용 중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상황, 혹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책, 현실적인 조언 등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담화 맥락상에서 이 용법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A, B에 주로 상반된 대상/내용이 오던 것이 굳이 상반된 것이 아니더라도, A, B에 좋고 나쁘고를 상대적으로 따져야 하는 모호한 성격의 선택 대상/내용이 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용법이 확장되었다고 여겨진다[91]. 아래의 예로 이해를 돕도록 하자.

(25) 가. [A 머리를 숙이느니] **오히려** [B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나. 히메루스는 당신의 나라를 알고 있으니 [A 그 쪽]으로는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오히려** [B 서쪽]으로 잠시 피했다가 뱃길로 돌아가든지 하세요.
다. 차가 먼길로 돌아가야 하니 [A 타나] [B 걸으나] 시간은 비슷한 걸 뭐. **오히려** [B 걷는 편]이 빠를지도 몰라.

---

90) 김선영(2003: 53)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화자의 주관적 호오(好惡)를 나타내는 '오히려'라 할 수 있음.
91) 앞서 '차라리'의 논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때 '차라리'의 영향, 즉 의미적 전염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라. 물금댁의 울음을 나는 어떻게 달래야 할는지 몰랐다. 이런 종류의 가슴 타는 하소연이라면 **오히려** [B 멀리 도망가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25)는 모두 상반된 성질의 A, B가 쓰인 예문들이다. (25가)에서 A, B는 서로 상반된 내용이다. 아마 A는 '사는 것', B는 '죽는 것'일 텐데, 화자의 관점에서 두 선택지 모두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화자의 신념에 따라 좀 더 나은 선택을 판단하는 차원에서 쓰였다. (25나)에서 A, B는 상반된 방향이다. 그 방향은 추적하는 상대가 예측하는 방향(A),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B)일 것이다. 그 두 방향 중 좀 더 적절한 방향을 선택함을 나타낸다. (25다)에서 A, B는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이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25라)에서는 A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소연 듣기'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A, B는 상반된다[92].

이렇듯 상반된 A, B로 구성된 '오히려'의 절 간의 공기 양상은, A, B의 상반성이 꼭 극명하지 않아도 대상/내용 선택의 차원에서 쓰이게 된다.

(26) 가. 그렇게 [A 매일 싸울 바]에는 **오히려** [B 헤어지는 게] 좋겠다.
나. 그 일은 [A 내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B 네가 하는 게] 낫다.
다. [A 어차피 죽을 거]라면 [B 가족이 모두 함께 죽는 게] **오히려** 나을 게다.
라. 아울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해가 갈수록 깊어져 **오히려** [A 학교]보다 [B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수능시험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26)에서는 '싸움'과 '헤어짐', '내가 하는 것'과 '네가 하는 것', '혼자 죽는 것'과 '가족이 모두 죽는 것', '학교 수업의 질'과 '학원 수업의 질' 등 A, B의 상반성이 극적이라기보다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오히려$_1$'과 '오히려$_2$'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오히려$_2$' 같은 경우는 구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93]. 구어에서는 '더 나은 선택'을 표현하는 데에 아

92) (25)와 같이 '오히려$_2$'가 쓰인 예문은 모두 '차라리$_1$'로 대체할 수 있다.
93) '오히려'가 쓰인 구어 말뭉치의 예문 158개를 추출해서 검토한 결과 '오히려$_1$'은 147개(93%), '오히려$_2$'는 11개(6.9%)로 나타났다. 문어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문어 말뭉치에서 예문 164개

직 '차라리'가 지배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2. '오히려'의 구문적 특징

앞서 '오히려$_1$'은 의미적으로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때 B에 올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절 등으로 다양하다. 의미적으로는 A는 화자의 기대/예상과 관련된 내용이 온다. 꼭 기대/예상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상식이리라 생각되는 내용이 온다[94]. 반면 B에는 A와 상반되는 내용이 와야 하며, A와 유사한 내용은 올 수 없다.

(27) 가. 두 개의 태풍이 합쳐지며 **오히려** 그 위력이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 ?두 개의 태풍이 합쳐지며 **오히려** 그 위력이 폭발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 것으로...

(27)과 같은 예문의 경우, '오히려'의 앞부분에는 '두 개의 태풍이 합쳐짐'이라는 문맥에 의해 '그 위력이 더 강해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예상과는 동일한 내용으로 B를 바꾸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것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A, 그리고 A에 상반되는 B 중 A가 문장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들에서도 B에 대해 A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결국 결과적인 '오히려'의 기능은 문중의 특정요소를 초점화하는 것이고(최규련 2005, 조애숙 2011), 그로 인해 역설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오히려'가 쓰이는 문장(절)과 인접한 문장(절)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후인(2015: 53~54)에서도 언급했듯이 '오히려'의 선행절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주로 온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_1$'에 해당된다. 부정적인 내용이라 함은 통사적 부정이나

를 추출해서 검토한 결과, '오히려$_1$'은 153개(93.2%), '오히려$_2$'는 11개(6.7%)로 나타났다.
94) 이를 조애숙(2011)에서는 '자상(子想)'이라 지칭했다.

어휘적 부정[95]이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28) 가. 정말 날 죽이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가 운이 없었던 거죠.
나. 괜히 죄책감 같은 거 보이지 말구 **오히려** 세게 나가세요.
다. A: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그런 증세가 있었습니까?
B: 아니요. **오히려** 혼자 방에 틀어박혀 뭔가 하는 걸 좋아했어요.

'오히려$_1$'의 선행절은 통사적으로는 매우 자유롭다. 따라서 (28)과 같이 통사적으로 연결어미를 취한 구성이 오기도 하고,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오기도 한다. 단지 '오히려$_1$'에 쓰인 내용, 즉 예상/기대에 반하는 내용과 대치되는 내용만 오면 되는 것이다. 특히 구어의 경우 (28다)와 같은 대화문 형식에서 어떤 질문이나 진술에 대해 부정하며, 질문/진술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오히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선행문(절)에 부정 형식의 내용이 얼마나 오는지 조사해 본 결과, 구어의 경우 추출된 158개 중 66개(41.7%)에서 부정 형식의 내용이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어의 경우 전체 164개에서 60개(36.5%)로, 구어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형식적으로 부정문이 아니더라도 맥락상 부정적인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9) 가. 발권력에 의존하여 정부 실패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오히려**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이 같은 실패의 인과관계와 책임소재부터 분석하고 가려내어 오류와 실패의 재발을 막는 방안의 강구가 더 시급하다.
나. 전후 복구와 국방력의 재건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이러한 반대는 맥없이 수그러들곤 했다. **오히려** 비변사는 인조대에 이르러 서인정권에 의해 더욱

95) 통사적 부정이란 긍정문에서 부정 부사 및 부정의 보조 용언 구성 등을 사용하여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어휘적 부정이란 긍정문에서의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고 별개의 어휘로서 부정문을 만드는 경우를 이른다. 어휘적 부정에 사용되는 어휘에는 '없다', '아니다', '모르다' 등이 있다(구본관 외 2015: 358~359).

확대·강화되었다.

'어렵다', '수그러들다', '실패하다', '망할 징조이다', '무의미하다', '무모하다' 등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서술어까지 포함하면 '오히려$_1$'의 선행절은 부정적 내용이 오는 경향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선행절에는 유독 역접의 연결어미 '-지만'이 오는 경우가 많다. 예상/기대에 상반된 사태를 표현하므로 이러한 역접의 연결어미는 공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오히려$_1$'에 선행하는 연결어미와의 제약에 대해서는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193~196)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오히려', '도리어'와 선행 어미 간에 자유로운 결합 관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거의 모든 대등 접속어미나 종속 접속 어미와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오히려'는 역접의 접속 기능보다 '예상외로'와 같은 의미 기능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라 보았다[96]. '오히려$_1$'에 후행하는 절의 내용과 선행절에 제시된 사실이 상반되는 내용이면 어떤 형식을 취하든 상관이 없으므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라리'의 경우 선행절의 연결어미 간의 결합제약이 심하다. 이는 '차라리'가 두 비교 대상 간에 나은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의 작용역이 좀 더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연결되는 명제 내용과 의미적으로 긴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97]. '오히려$_1$'의 후행절 역시 기대/예상된 바와 상반된 내용만 오면 어떠한 통사 구조를 가지든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히려$_2$'는 의미적으로 [A보다 오히려 B가 낫다/좋다]와 같이 나타난다. 우선 '오히려$_1$'에 비해 '오히려$_2$'에 후행하는 내용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

96) 이 논의에서는 접속부사를 '무표적 접속부사'와 '유표적 접속부사'로 구분하여 접속부사가 보이는 결합제약의 양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표적 접속부사는 '그리고, 그러나'와 같이 단순한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들을 말한다. 이들은 접속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순접이나 역접 등의 의미 기능이 연결어미와 충돌하지 않고 어울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합제약이 자유로운 편이라 하였다. 반면 유표적 접속부사는 접속보다는 유표적 어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194~196) 참조.

97)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194~196)에서는 무표적 접속부사의 경우 선행하는 연결어미와의 결합제약이 많은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차라리'가 '그리고, 그러나'와 같은 무표적 접속부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차라리'의 의미나 작용역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와 관련된다. 즉 A와 B의 내용이 상반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30) 가. 저렇게 마음고생 심할 때는 **오히려** 모르는 척 지켜봐 주는 기 더 낫다.
나. 말도 마세요. 덥구, 짜증나구... **오히려** 동사무소가 더 시원하고 편하지.
다. 아니다. **오히려** 잘됐네. 니들 둘이 같이하는 게 더 낫겠다.
라. 그러나 단순히 더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에 맞추어서 절충적으로 학습해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대안들은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학습활동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이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 '이 대표 대세론'이 굳어져 당내 경선은 무의미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대표 대세론'을 방치하기보다는 다른 결심을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위 (30)과 같이, 여러 비교 사태/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낫다, 편하다, 도움이 된다, 유리하다. 유의미하다, 다행해하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의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또한 비교 대상이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과적으로 '오히려$_1$'과 마찬가지로 '오히려'에 후행하는 선택된 대상에 초점이 놓여, 역설적 단언의 효과를 보이게 된다.

4.2.3. 요약

이상의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31) '오히려$_1$'이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서술 A: 예상/기대/상식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서술 B: 서술 A에 상반되거나 의외적인 내용}]
나. 통사적 패턴 : [{(서술 A ~지만)} **오히려** {서술 B}]
다. 비고 1: A는 부정 형식을 포함한 부정 내용이 오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생략되어 나타남.

라. 비고 2: 결과적으로 후행 서술 내용이 초점화됨.

(32) '오히려$_2$'이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서술 A: 척도상의 낮은 수준에 있는 내용보다} 오히려 {서술 B의 선택}]

나. 통사적 패턴: [{서술 A보다} <u>오히려</u> {서술 B}가 낫다:긍정적 평가의 서술어]

다. 비고 1: A는 잘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척도상에는 존재함.

라. 비고 2: 결과적으로 후행 서술 내용이 초점화됨.

4.3. '하다못해'

4.3.1. '하다못해'의 기본적 의미

'하다못해'는 선택할 수 있는 척도상에서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원래는 '-다 못하-' 구성에서 기원한 것임을 형태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척도상에 놓일 수 있는 여러 사태/대상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하다못해'를 '오히려'와 '차라리'와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하는 부사로 판단하였다. 사전에서는 '하다못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33) 《표준》

제일 나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 올 수 없으면 <u>하다못해</u> 전화라도 한 통 해야 할 게 아니야.

<u>하다못해</u> 냉소조차 아끼는 완전 중립적인 태도가 처음엔 장모를 의식한 특별한 배려인 듯해서 고맙더니만.

(34) 《고려》

가. 요구되는 수준을 가장 낮춘다고 하더라도.

예) 머리가 나쁘면 **하다못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노래를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쉬운 동요 하나는 부를 수 있어야지.

나. 애써 노력하거나 바라다가 별 수 없이.

하다못해 그녀는 학교를 자퇴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다못해 그의 어머니는 역전 뒷골목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

(33), (34)에는 '하다못해'의 정의를 하나로 한정해 놓은 데에 비해 (34)에서는 둘로 나누었다. 의미적으로 (33)과 (34가)의 용법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34나)는 (33)의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는 의미 기술이라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두 사전이 용법 기술에 차이를 보이지만, '하다못해'의 용법은 사전에서는 최대 두 가지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다못해'가 정확히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98], '하다 못하여(서)' 구성의 어휘화 과정에서 그 용법이 확실하게 고정된 것은 아닌 듯하다. 각 사전에서의 용법 기술의 차이가 그러한 점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하다못해'의 의미가 위 (33), (34)의 의미 기술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35) 가. 학교 오는데 옷 좀 신경 쓰지, **하다못해** 치마라도 좀 입구 와야지, 그게 뭐냐?

나. 우리 이모, 조카, **하다못해** 헤어진 옛날 남자친구까지 내가 여기서 못나가는 아나운서라는 거 알아요.

나′. 걔는 잘생겼지, 노래도 잘하지, **하다못해** 연기까지 잘하더라고.

나″. 길 가는 아가씨도 금주 씨로 보이고, **하다못해** 진통하는 임산부까지 금주 씨로 보인다니까요.

---

98) 최정진(2015: 211)에 의하면 '-다 못해' 구성 자체가 통시적으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적어도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현재의 용법처럼 쓰인 것이다. '하다못해' 역시 근대 한국어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하다못해'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어휘화되어 현재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어 말뭉치에서 '하다못해'가 쓰인 용례는 162개로 확인된다. 이 중 '하다못해'는 대체로 (35가, 나)의 두 가지 용법으로 구분되는 듯하다. (35가)는 가장 기본적인 '하다못해'의 의미·용법으로 생각되는 예이다. 이때의 '하다못해'는 (33), (34가)의 정의, '제일 나쁜 경우라고 하더라도'라는 의미에 부합한다. (34나)와 같은 '하다못해'는 구어 말뭉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99].

(35나~나″)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한 용례라고 생각된다. 통사적으로 (35가)는 보조사 '라도'와 많이 공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에는 '최소한, 적어도' 정도의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다. (35나~나″)는 '까지'와 많이 공기하는 경향이 있다. (35나)의 용례를 보면, 화자 자신이 유명하지 않은 아나운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척도가 '이모 ~ 옛 남자친구'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00]. 이때 (33)이나 (34가)의 정의대로 이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듯하다. '제일 나쁜 경우'나 '요구 수준을 가장 낮춘다고 해도' 정도의 의미와 (35나)가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스럽다. (35나′)에서는 (33)이나 (34가)의 정의대로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상정할 수 있는 척도는 '잘생겼음 ~ 연기를 잘함'으로 보이는데, '하다못해 연기까지 잘하면'이라는 내용은 '제일 나쁜 경우'도 아닐뿐더러 '요구 수준이 가장 낮은 것'도 아니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35나″)는 '길 가는 아가씨 ~ 진통하는 임산부'로 척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역시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척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로써 (35가)와는 달리 (35나)와 같은 '하다못해'는 형성되는 척도의 낮은 수준이나 가장 나쁜 수준에 해당되는 사태, 대상을 선택한다기보다 극단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척도상에 있는 여러 대상, 사태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최종적으로 극단에 있는 대상, 사태 서술을 통해 강조 효과를 실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5가)와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로 상정되는 화자의 기대와 관

99) 문어 말뭉치도 살펴봤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100) 이러한 (35나)의 '하다못해'는 절과 절의 공기 관계를 나타낸다기보다 단어를 접속하는 기능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겠다. 외현적으로는 단어 접속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의미적으로는 '우리 이모도 내가 여기서 못나가는 아나운서라는 것을 알고, 우리 조카도 내가 여기서 못나가는 아나운서라는 것을 알고, **하다못해** 헤어진 옛날 남자친구까지 내가 여기서 못나가는 아나운서라는 거 알아요'와 같은 문장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보면, 단어 접속이 아닌 절 접속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련된 척도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상, 사태를 서술함으로써 역시 강조 효과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하다못해'의 영어 번역을 통해서도 이해된다.

(36) 가. You could've at least called me to let me know you couldn't come.
가′. 하다못해 못 온다고 전화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나. Even his servants despised him.
나′. 하다못해 하인들까지도 주인을 멸시하였다.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다못해'에 상응하는 영어 번역어로는 주로 'at least'와 'even'가 선택된다. 맥락에 따라 이들 중 한 가지가 쓰이는 것이다. 이 외에도 'finally', 'so far as'등이 번역어로서 쓰이는데, 이들 모두 척도의 극단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다못해' 역시 '제일 나쁜 경우', '가장 낮은 수준'뿐만 아니라 척도상의 극단에 미치는 대상, 사태를 서술함으로써 모종의 강조 효과를 실현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하다못해'의 영어 번역어로도 잘 드러난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이들이 보이는 강조의 표현 효과는 같으나 그 실현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의 이러한 양상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어휘화되기 이전의 구성인 '-다 못하-' 구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음 항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4.3.2. '-다 못하-' 구성과의 의미적 연관성

이제 앞에서 언급한 '하다못해'의 기본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다 못하-' 구성과 비교하여 그 연관성을 논의하기로 하자. 일단 본고에서 (35가)와 (35나)의 '하다못해'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의미적인 면에서 엄밀한 구분은 아니다. (35가)의 '하다못해'는 (33), (34가)와 같은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최소한', '다른 것은 못 해도' 정도의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다. 그런데 (35나)와 같은 '하다못해'는 의미상 그렇게 대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35가)와 구분된

다는 것이다. 두 구문은 분석의 결과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로 망라될 수도 있지만, 우선 논의의 편의상 둘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35가)의 '하다못해'를 '하다못해$_1$'로, (35나)의 '하다못해'를 '하다못해$_2$'라 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두 '하다못해'는 '-다 못하-' 구성에서 온 것이므로 구문상의 특징도 '-다 못하-'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다 못하-'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진가리(2014)를 참고할 수 있다. 진가리(2014)에서는 '-다 못하-' 구성을 의미에 따라 둘로 구분하였다. 그 예를 살펴보자.

(37) 가. 이모님 방에 불을 피우지 않아 결국 추위를 <u>견디다 못해</u> 우리 집으로 올라 오셨더라.
나. 끝까지 <u>기다리다 못해</u> 그 애 집엘 찾아갔다.
(38) 가. 함박눈이 <u>내리다 못해</u> 쏟아져요.
나. 형에게 끼니 쌀을 애걸하는 흥부의 모습은 <u>가련하다 못해</u> 처량하다.

진가리(2014: 233)

위 (37), (38)은 각각 '-다 못하-$_1$'과 '-다 못하-$_2$'이다. '-다 못하-$_1$'은 '불능(不能)', '-다 못하-$_2$'를 '과도(過度)'의 의미로 설정하였는데[101] 이러한 의미 구분은 '하다못해'의 의미와도 크게 연관된다. 기본적으로 '하다못해'도 위와 같은 (37), (38)의 구성에서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102]. 그러한 차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용례이지만 (34나)와 같이 '애써 노력하거나 바라다가 어쩔 수 없이'의 의미의 '하다못해$_3$'[103]는 (37)의 '-다 못하-' 구성처럼 불능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편의상 그 예를 다시 보이기로 한다.

(38) 가. <u>하다못해</u> 그녀는 학교를 자퇴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나. <u>하다못해</u> 그의 어머니는 역전 뒷골목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

---

101) 최정진(2015)에서는 '-다 못하-^{2}'에 대해 다루었는데, 그 의미를 '어떤 정도를 지나침' 또는 '과급(過級)'으로 기술하였다.
102) '하다못해'의 '하다' 역시 원래는 위의 '견디다', '기다리다' 등과 같은 지위의 동사였을 것이다.
103) 편의상 이러한 용법의 '하다못해'를 '하다못해^3'으로 부르기로 한다.

(38)의 '하다못해'는 이미 어휘화되어 '하다'가 어떤 사태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때에는 '하다못해'가 어떤 척도를 형성하여 '하다못해'의 후행 서술 내용이 척도의 어느 지점에 있는 사태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 좀 더 원래의 '-다 못하-$_1$' 구성에 가깝게 쓰인 것이며, '하다못해'의 '하다'의 실질적 의미는 미약하며 그 의미는 맥락에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104]. 그러한 차원에서 (38가)의 '하다못해'는 '그녀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힘들게 계속 이어가다 못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38나)의 '하다못해'는 '그의 어머니는 힘들게 공부하는 아들의 어려운 형편을 지켜보다 못해'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35나)와 같은 용례들을 살펴보자. 편의상 아래에 예를 다시 보이기로 한다.

(39) 가. 우리 이모, 조카, **하다못해** 헤어진 옛날 남자친구까지 내가 여기서 못나가는 아나운서라는 거 알아요.

나. 걔는 잘생겼지, 노래도 잘하지, **하다못해** 연기까지 잘하더라고.

다. 길 가는 아가씨도 금주 씨로 보이고, **하다못해** 진통하는 임산부까지 금주 씨로 보인다니까요.

위 (39)의 예에서 쓰인 '하다못해'는 동질적인 용법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의 '하다못해'는 (38)의 '-다 못하여(해)' 구성의 의미와 유사하다[105]. 즉 과도·과급의 의미이다. 최정진(2015: 213~214)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척도적 판단을 이용하여 서술 내용을 강화하려는 표현 욕구'는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예로 '~이/가 아니라', '~(으)ㄴ 정도를 넘어서', '~(으)ㄴ 수준을 넘어서', '~이기 이전에', '~이라기보다 ~이다'와 함께 '다 못해' 구성을 설명하였다.

---

104) 한국어에서 이러한 식으로 '하-' 형식만으로 연결어미과 결합하여 어휘화된 경우는 얼마든지 있으므로(예: 해서, 하여, 하긴, 하기야 등) 본고에서의 해석도 어긋난 해석은 아닐 것이다.

105) 진가리(2014), 최정진(2015: 207)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구성의 '-다(가) 못하-'구성은 항상 '-다 못해(서)'로만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못해서'의 '서'도 종종 생략되므로 편의상 '-다 못해'로 표시하기로 한다.

(40) 가. 체력만 보면 김씨는 인간**이다 못해** 짐승이다.
나. 체력만 보면 김씨는 인간**인 정도/수준을(를) 넘어서** 짐승이다.
다. 체력만 보면 김씨는 인간**이기 이전에** 짐승이다.
라. 체력만 보면 김씨는 인간**이라기보다** 짐승이다.
마. 체력만 보면 김씨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최정진(2015: 212~214) 참조

이러한 '화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척도적 판단을 이용하여 서술 내용을 강화하려는 표현 욕구'는 위 (39)의 '하다못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척도 비교를 통해 '-다 못해'에 후행 내용을 강화하려는 표현 욕구의 실현은 '하다못해$_2$'에도 나타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될 수 있다.

(41) 가. 그 사람은 냉정하**다 못해** 비정하다.
가′. 그 사람은 냉정하**다 못해** 비정하기까지 하다.
나. 비가 내리**다 못해** 퍼 붓네 아주.
나′. 비가 내리**다 못해** 퍼 붓기까지 하네 아주.
다. 폭행 다이어트법은 파격이**다 못해** 충격이다.
다′. 폭행 다이어트법은 파격이**다 못해** 충격이기까지하다.

(39)와 같이 쓰이는 위 (41)의 '하다못해$_2$'는 '까지'와 많이 공기하는 경향이 있다. 높은 정도이든 낮은 정도이든 척도의 극단을 나타내기 위해 극단과 관련된 보조사 '까지'가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하다못해$_2$'의 용법은 과도·과급의 '-다 못해' 구성과 닮아있다. 위 (41가~다)는 최정진(2015: 208)에서 제시한 예인데, '-다 못해' 뒤에는 특정 척도 지점 이상의 사태, '비정하다', '퍼붓다', '충격이다'를 나타냄으로써 서술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41가′~다′)와 같이 '-다 못해' 뒤에 후행하는 사태를 '까지'가 결합하는 구성으로 나타내도 의미상 별 차이가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다 못해' 구성과 '하다못해$_2$'가 완전히 닮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 못해' 구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잇는 기능 때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척도는 대개 두 가지이다. 그러나 '하다못해$_2$'는 이미 어휘화되어 하나의 문장부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척도상에 위치하는 대상이나 사태를 나열하다가 최종적으로 서술내용을 강화하기 이전에 척도상의 끝에 위치한 대상이나 사태를 언급하는 것이다. 즉 (39가)의 경우 '내가 못나가는 아나운서라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안다'라는 내용을 인상적으로 말하기 위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척도 집합들, '이모, 조카, 헤어진 옛 남자친구'를 순차적으로 나열하였다[106]. 이는 (39나)와 같이 서술어가 나열되기도 하며, (39다)와 같이 절 단위의 내용도 나열되기도 하는 등 제약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제 '하다못해$_1$'에 대해 논의할 차례이다. 앞서 '하다못해$_3$'은 불능의 '-다 못하-'와 관련이 있고, '하다못해$_2$'는 과도·과급의 '-다 못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하다못해$_1$'은 불능의 '-다 못하-'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2) 가. 밥을 먹다가 이가 아파서 **먹다 못해** 남겼다.
나. 밥을 먹다가 이가 아파서 **먹다 못해** 물이라도 삼켰다.
(밥을 먹다가 이가 아파서 더 먹지는 못하고, 배는 고프니 물이라도 삼켰다)

(42가)는 전형적인 불능의 '-다 못하-' 구성이다. 이때는 먹는 행위를 시작·진행한 후 치통으로 인해 행위를 더 이어가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42나)는 '하다못해$_1$'과 유사한 용법의 '-다 못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최소한', '다른 것은 못해도' 정도의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때는 먹는 행위를 시작·진행한 후 치통으로 인해 행위를 더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행위로 먹는 행위를 이어갔음을 의미한다. 이 예문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42가)와 같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그만함'을 표현하였던 '-다 못해'가, (42나)와 같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행위를 그만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다른 행위를 함'을 나타내어야 하는 상황에도 쓰이는 것으로 용법이 확장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적격성에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상황

106)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외현적으로는 단어 접속으로 나타났지만, 원래는 절 접속이었던 것이 중복 표현들을 제거함으로써 단어 접속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각주 100 참조.

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42나)와 같은 예를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여하튼 '하다못해$_1$'에 보조사 '라도'가 잘 공기하는 것은 '하다못해$_1$'이 주로 이러한 맥락에서 쓰이기 때문이라 하겠다[107].

(42가)와 같이 '-다 못하-'가 쓰이면, '-다 못하-'의 선행 내용이 부정되고, 후행 내용이 긍정된다. 반면 (42나)와 같이 '-다 못하-'가 쓰이면 '-다 못하-'의 선행 내용도 여전히 긍정되며, 후행 내용도 긍정되면서 척도상 양 극단에 놓인 두 내용이 대조되면서 후행 내용이 서술적인 차원에서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다못해$_1$'에 접근해보자.

(43) 가. 노래를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쉬운 동요 하나 정도는 불러보겠다.
나. 취직을 하지 못했으면 **하다못해** 우유 배달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43)은 '하다못해$_1$'이 쓰인 예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다못해' 자체는 어휘화되었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불능과 관련된다면, 무엇에 대한 불능인지는 명시된 바 없어 모호하다. 다만 맥락으로 상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조금 거칠게 해석하자면 (43가)의 '하다못해'는 '노래를 부르다 못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때 '부르다 못해'는 자의로 노래 부르는 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 능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차라리 척도상 낮은 수준에 있는 것, 즉 쉬운 동요 정도는 부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화자는 '노래 부르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으로나마 이어감을 나타낸다. (43나) 역시 이때 '하다못해'는 취업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시작할 능력이 없으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인 '우유 배달'을 선택하라는 질책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설명일 수도 있으나 요지는 주로 어떤 사태의 중단을 나타내는 불능의 '-다 못하-' 구성에서 더 나아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사태를 계속 이어감'이라는 맥락에서의 쓰임이 특화된 것이 '하다못해$_1$'이라고 판단하는 바

107) 보조사 '라도'는 대체로 최선이 아닌 다른 선택을 의미하지만, 극단적인 것의 선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 옆집 아저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라도** 배신할 만한 사람이다.

이다. (43)과 같은 예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해석할 수 있으나, '하다못해'가 나타내는 불능의 요지가 무엇인지 해석하기 쉽지 않은 용례도 많다. 이는 그만큼 '불급의 사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사태를 이어나감'이라는 맥락에서 시작된 (42)와 같은 '-다 못하-' 구성이 '하다못해'로 이어져 독자적인 형태로 굳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4.3.3. '하다못해'의 구문적 특징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다못해'가 쓰이는 구문의 특징을 분석해 보자. 우리는 '하다못해'를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하다못해$_3$'은 제외하기로 한다. 용례가 잘 발견되지 않고 극소수의 용례로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다못해$_1$'과 '하다못해$_2$'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앞서 4.3.2를 통해 '하다못해$_1$'은 진가리(2014)의 불능/불급[108]의 '-다 못하-$_1$'이 특정 맥락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그 통사·의미적 특징도 '-다 못하-$_1$'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못하-' 구성	의미적 특징		통사적 특징				
	의미	대치 가능한 구성	주어 일치	선,후행 절 용언 어간	공기 가능한 부정 극어	'선행 용언 어간 + -다' 구성의 중첩	부정 서술어의 생략
일반적 부정 '-다 못하-^{1}'	불능 (不能)	'-지 못하-'	필수	동사	있음(도무지, 도저히 등)	가능	불가능
상위 언어적 부정 '-다 못하-^{2}'	과도 (過度)	없음	필수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없음	불가능	불가능

108) 어떤 일을 하기에 힘이나 능력,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불급(不及)'이라고 하는 것

<표1> '-다 못하-' 구성의 의미·통사적 특징(진가리 2014: 254)

이제 <표1>의 '-다 못하-$_1$'의 특징과 '하다못해$_1$'의 특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하다못해$_1$'은 의미적으로 불능과 연관되며 어휘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적어도' 정도의 맥락에서 쓰인다고 논의하였다. 그러한 의미적 배경을 지니는 '하다못해$_1$'은 '-지 못하-'와는 의미적 연관성이 떨어지게 된다[109].

다음으로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다 못하-$_1$'의 통사적 특징은 크게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연결어미가 부사로 어휘화된 것이기 때문에 통사적 특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_1$'은 문장부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행절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선·후행절을 접속하는 기능은 없다.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는 선행절이 오는 경우가 많다.

(44) 가. 아니, 사람 머리통이 꼈으면 **하다못해** 열림 버튼이라도 눌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열심히 뒷바라지 할 테니까 **하다못해** 영어라도 배워오자.
다. 벌레든 뭐든 **하다못해** 풀 한 포기라두 다 생명이야.
라. 강아지든 고양이든 **하다못해** 똥파리라도 집안에 키워야 돼.

(4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다못해$_1$'의 선행절은 통사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자유로운 구성을 취한다. 이는 '하다못해$_1$'이 '불급의 사태에 대해 최대한의 능력으로 사태를 이어나감'과 관련되는 의미로서 '다른 것은 못해도' 정도로 해석되어 후행 서술 내용을 강화시키는 방책으로 사용된다는 기능으로 완전히 굳어졌음을 의미한다. (44가, 나)는 척도상의 비교 대상들이 명시되지 않은 예로, 이때에는 척도상의 비교 대상들이 완전히 '하다못해'에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4다, 라)는 척도상에 위치한 몇몇 개체를 명시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 '반려동물와 같이 사는 삶'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도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09) 그러나 '-지 못하- ~ 라도'와 같은 구성의 의미는 '-다 못하- ~ 라도'와 유사하다.

‘하다못해$_1$’의 후행절은 의미적으로 질책, 원망, 충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다.

(45) 가. 학교 오는데 옷 좀 신경 쓰지, **하다못해** 치마라도 좀 입구 와야지, 그게 뭐냐?
나. 젓가락 갈 데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라도 단백질 식품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뭐 우리한테 할 말 없냐? **하다못해** 미안하단 소리 한마딘 해야지.
라.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애를 쓰고, **하다못해** 계획이라도 세워봐야 거기에 니 색깔이든 냄새든 발라지는 거 아냐.
마. 라라 초등학교를 나오셨더군요. **하다못해** 단짝 친구라도 보고 싶은 게 정상 아닌가요?
바. 그러니까..조미란씨도 저한테 **하다못해** 최...최소한 김간호사라고 부..부르시라구요!

(45)와 같이 ‘-어야지’와 같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미나 ‘아닙니까?/아닌가요?/아냐?’와 같은 반문(反問) 표현, 보조사 ‘라도’와 같이 화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조하여 일러주는 표현이 자주 공기한다. 이러한 표현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인지는 ‘하다못해’의 선행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후행절에는 기대 척도상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대상이나 사태에 보조사 ‘라도’가 자주 공기한다. 공기하지 않더라도 ‘라도’를 붙일 경우 대체로 자연스럽다. ‘하다못해’의 선행절의 주어와 ‘하다못해’의 후행절의 주어는 일치되어야 하는 제약 등이 있다.

‘하다못해$_1$’과 같이 ‘하다못해$_2$’의 선행절도 자유로운 구성을 취한다. 그러나 ‘하다못해$_2$’는 아래와 같이 ‘하다못해$_1$’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46) 가. 걔 땜에 우리가 얼마나 피 봤어? 생체학, 병리학, **하다못해** 해부학의 그 변태교수한테까지… 하여간 한 번만 더 그래봐… 가만 안둘 테니까…
나. 글쎄 없다니까아! 일본통 헌터! 각 호텔 인사팀장! **하다못해** 일본 문화원까지!

다. 상철 형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최동찬은 형님 집과 사무실 대여금고, **하다못해** 헬스장 사물함까지 미친 듯이 뒤지고 다녔어.

라. 침대며 가구며 **하다못해** 칫솔치약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정말 놀랬어요.

(46)과 같이 '하다못해$_2$'가 나타나는 용례 대부분은 척도상에 위치한 대상이나 사태들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화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척도적 판단을 이용하여 서술 내용을 강화하려는 표현 욕구'는 'A, B, C 하다못해 D'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척도상에 놓인 'A, B, C'는 대체로 명사(구)의 형식을 취한다. 앞서 각주 100에서 밝혔듯이 대체로 명사(구)를 취하는 'A, B, C' 근본적으로 명사로 보기보다, 가령 (46라)의 경우 '침대도 준비해 놨고, 가구도 준비해 놨고, 하다못해 칫솔치약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와 같은 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복된 내용을 생략하다보니 실제로는 'A, B, C'가 명사(구)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다못해$_1$'이 그 의미 특성상 보조사 '라도'와 자주 공기한다면, '하다못해$_2$'는 그 의미 특성상 보조사 '까지', '조차'와 자주 공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다못해$_1$'과는 달리 '하다못해$_2$'에 올 수 있는 후행 내용의 서법상의 특징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4.3.4. 요약

'하다못해'는 사전에서는 최대 두 가지로 정의된다. 사전 정의를 토대로 우리는 '하다못해'를 세 가지 용법으로 분류했다. 사전 정의 중 첫 번째 정의, '제일 나쁜 경우라 하더라고', '기대 수준을 가장 낮춘다고 하더라고'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용법을 '하다못해$_1$'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긴 하지만 '제일 나쁜', '가장 수준이 낮은' 정도로 부정적인 맥락이 아니며 오히려 긍정적 극단을 나타내는 맥락에서도 쓰이는 경우를 '하다못해$_2$'로 보았다. '애써 노력하거나 바라다가 별 수 없이.'의 의미는 '하다못해$_3$'으로 보았는데, 용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하다못해$_1$'과 '하다못해$_2$'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다음으로 '하다못해'를 '-다 못하-' 구성과 연관하여 그 구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하다못해$_1$'은 불능/불급의 '-다 못하-$_1$'가 특정 맥락에서 쓰이면서 파생된 것

으로 파악하였고, '하다못해$_2$'는 '과도/과급'의 '-다 못하-$_2$'('-다 못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들 내용과 공기 제약 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7) '하다못해$_1$'이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대치표현: '적어도', '최소한'

나. 의미적 패턴: [{(서술 A)} <u>하다못해</u> {서술 B}]

→ A: 배경 제시/ 척도상에 놓인 비교 대상이나 사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B: 화자가 기대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행동 권유, 사태 희망.

다. 후행절의 형태·통사적 공기 요소: 보조사 '라도', 종결어미 '-어야지', '-라고', '아닙니까/아냐/아닌가요?'등의 반문 표현

라. 표현 동기: 화자가 처한 불급의 사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사태를 이어나감.

(48) '하다못해$_2$'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대치표현: '심지어', '게다가'

나. 의미적 패턴: [({서술 A}, {서술 B}, {서술 C}) <u>하다못해</u> {서술 D}]

→ A, B, C, D는 같은 형태 구성의 척도상 비교 대상, 사태들임. D는 척도상 가장 극단에 있는 대상, 사태. 긍정적 극단일 수도 있고 부정적 극단일 수도 있음. 주관적 판단에 의함. '하다못해'에 선행하는 척도상의 비교대상들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다. 후행절의 형태·통사적 공기 요소: 보조사 '까지', '조차'

라. 표현 동기: 화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척도적 판단을 이용하여 서술 내용을 강화하려는 표현 욕구[110]

110) 최정진(2015)의 표현.

4.4. ‘하물며’

4.4.1. ‘하물며’의 기본적 의미

‘하물며’는 선행절(문)과 긴밀한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문장부사이다. 선행절(문)의 내용과 후행절(문)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접속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물며’로 이어지는 절(문장)은 주로 선행절(문)의 내용을 더 강화시켜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한 내용 강화보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양태부사에 속하기도 한다. 사전에 기술된 ‘하물며’의 정의를 살펴보자.

(49) 《표준》
그도 그러한데 더욱이.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의 접속 부사.

(50) 《고려》
앞 내용보다 뒤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주로 ‘-거든’, ‘-거늘’, ‘-ㄴ데’ 등의 어미로 끝나는 절 뒤에서 반어적이거나 감탄적인 의문문이나 부정적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51) 《연세》
[주로 '~도 ~거든/는데 하물며 ~랴/는가'의 꼴로 써서] (앞의 내용과 견주어 뒤의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어) 더군다나. 더욱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물며’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의미·용법이 하나로 정리되는 것이다. (50), (51)과 같은 경우 공기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명시해 놓아 실용적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다른 대상들도 그렇지만 ‘하물며’ 역시 부사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부사 중에서도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부분적 성격의 논의가 많다.

여기에서는 의미적 차원에서 언급된 바를 살펴보기로 하자. 최현배(1983: 603)에서는 '벌림(羅列)'의 부사로 그 앞에 말한 것에 다른 것을 달아 나열하는 뜻을 가진다고 보았다. 김선영(2003: 51~52)에서는 '하물며'를 '더구나', '더욱이'와 함께 다루었는데, '더구나', '더욱이'와 달리 '하물며'가 이끄는 후행 문장은 의미상 선행 문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행 문장에 제시된 상황이나 조건 등에 단순히 부가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하물며'는 선행 문장이 후행 문장의 전제가 된다고 본 것이다. 선행문을 전제로 하여 후행 문장을 강조하는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후인(2015: 34~35)에서는 정보 전달 가치 측면에서 '하물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의미적으로 '하물며'가 이끄는 후행절은 참이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 가치는 떨어진다는 의미도 전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단순한 부가의 '하물며'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상훈(2009)는 평서문, 의문문에서의 '하물며'의 용법을 상세히 다룬 논의로 '하물며'만 다룬 독자적 논의이다. 현대 한국어의 양상을 살펴보고 중세·근대 한국어 자료에서의 양상까지 검토하였다. 평서문에서 쓰일 때에는 단순 '첨가'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좋고, 그에 비해 의문문으로 쓰일 때에는 사전적 정의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52) 가. 천으로 만을 대항하기도 어려운 노릇인데, **하물며** 만의 네 곱절인 사만이랴. (박종화, 임진왜란)

나. 사람의 경우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군사력이 만사를 좌우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 있겠소? (박경리, 토지)

다. 본국의 실정이 어지러운데 **하물며** 교포들을 꼬집을 심산은 없다. (임동권, 끈 떨어진 뒤웅박)

라. 우리들은 누구도 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처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저들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이상훈(2009: 211~218) 참조

(52가, 나)는 수사의문문 형식으로 쓰인 '하물며'이다. 이때에는 앞 내용보다 뒤 내용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의미라 하였고, (52다, 라)는 단순 부가라 보았

다. 이는 '하물며'를 문형에 따라 두 가지 용법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논의라 생각된다. 그러나 위 (52가~라)는 문장 유형은 분명 다르지만, '하물며'가 잇는 선·후행절(문)의 명제 관계는 동일하다. 가령 (52가) 같으면 '천으로 만을 대항하기도 어려운데 만의 네 배인 사만은 더 어렵다'를 나타내고, (52나)는 '사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말할 것도 없다'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52다)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본국의 실정이 어지러우므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포들을 꼬집을 마음'은 더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며, (52라)는 '우리들 중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52가~라)의 선·후행절의 명제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은 일종의 척도를 형성하면서 선행절의 내용은 후행절에 서술되는 내용의 근거가 된다. '하물며'가 쓰인 문장에서 핵심 내용은 '하물며'에 후행하는 절의 내용이다. 김선영(2003: 52)에서 언급했듯이 '하물며'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전제가 된다. 곧 이 전제는 '하물며'의 후행 서술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 차원에서 (52가, 나)와 (52다, 라)는 동질적이다. 다만 문장의 유형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문장 유형은 형식적인 분류이다. 특정 문장 유형이 특정 화행을 담보하라는 법은 없다. 가령 평서문은 주로 서술의 의미를, 의문문은 질문의 의미를, 명령문은 명령의 의미를, 청유문은 청유의 의미를, 감탄문은 감탄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발화에서는 문장 유형과 화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구본관 외 2015: 295). 수사의문문은 그 대표적 예이다[111]. (52가, 나)가 수사의문문 형식을 취하여 강한 단언을 전달한다면, (52다, 라)는 평서문 형식을 취하여 강한 단언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52가, 나)와 (52다, 라)는 문장 유형은 다르지만 동일한 화행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111)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는 강한 단언, (나)는 감탄의 화행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가. 그런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어?
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구본관 외(2015: 295~296)

선행절과의 의미적 호응 관계없이 접속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하물며'는 다음과 같은 예라 생각된다.

(53) 가. 그래서인지 집안은 언제나 만들다 만 미완성 작품으로 어지럽다. 독특한 합판으로 바닥을 깔고 집안 구석구석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벽이나 바닥에 그림도 그리고 페인팅도 하고 **하물며** 냉장고에까지 도트 무늬로 페인팅을 했다.

나. 불륜의 묘미가 뭐야? 은밀하잖아. 티내면 안돼. 그래서 애가 더 타. **하물며** 가질 수 없어. 얼~마나 자극적이야. 사람 죽이는 거지.

다. 내 아들의 죽음은 나라를 위해서도 공익을 위해서도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팔자소관이었건만도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겼을 때 온 국민이 축제분위기에 들떠 있다는 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 **하물며** 그들은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기쁨을 안전하게 지키다가 죽은 전사자들이다. 마침 경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으니 좀 더 그들을 배려할 수는 없었을까.

(53)의 '하물며'는 후행 서술 내용이 평서문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 평서문과 선행절의 명제 관계는 (53다, 라)와 동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3가, 나)와 같은 예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하물며'의 선·후행절의 명제 관계와는 별개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는 단순히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척도를 형성하여 서술 내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12]. 그에 비해 (53다)는 '하물며'에 후행하는 서술 내용과 선행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맥락을 잘 살펴보면 결국 '하물며'의 후행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가 곧 선행절의 내용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53)의 예로써 '하물며'는 (52)와 같은 선·후행절(문장) 간에 긴밀한 의미 관계로 묶인 경우가 있으며 (53)와 같이(특히 (53가, 나)), 척도 형성을 바탕으로 한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여 서술 내용의 강화를 꾀하는 '하물며'가 있음이 확인된다. 전자의

112) 이러한 면에서 이때의 '하물며'는 '하다못해'와 닮은 구석이 있다.

‘하물며’를 ‘하물며$_1$’로, 후자의 ‘하물며’를 ‘하물며$_2$’로 부르기로 한다. 말뭉치 자료를 통해 판단하자면 ‘하물며$_1$’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하물며$_2$’도 엄연한 공시적인 용법 중 하나로 판단되므로 구분지어 다루기로 한다.

4.4.2. ‘하물며’의 구문적 특징

앞서 ‘하물며’를 용법에 따라 ‘하물며$_1$’과 ‘하물며$_2$’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하물며’가 나타나는 구문의 특징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하물며$_1$’의 후행절에는 ‘-(으)ㄴ가’, ‘-냐’, ‘-랴’, ‘-(으)ㅁ에랴’ 등 수사의문문을 형성하는 의문문 종결어미, ‘더 말할 것이 없다, 더 말할 나위 없다’ 등의 서술절을 형성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하물며$_1$’이 형성하는 구문의 패턴을 파악해 보자.

‘하물며$_1$’는 구어 말뭉치에서는 총 76개로 그 수가 적게 나타난다. 반면 문어 말뭉치에는 461개로 나타나는데[113], 현대 한국어에서 ‘하물며$_1$’는 문어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어 말뭉치만으로는 ‘하물며$_1$’의 특징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어 말뭉치와 같이 다루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물며$_1$’의 선행문(절)의 내용은 후행 내용의 근거로 작용한다. 우선 선행문(절)의 특징을 살펴보자. 여러 사전이나 선행연구에서 ‘하물며^1’와 자주 공기하는 요소로 선행절에는 ‘도, 조차’ 등의 보조사, ‘-거늘’, ‘-거니와’, ‘-거든’, ‘-(으)ㄴ/는데’, ‘-니까’, ‘-(으)ㄹ진대’ 등의 연결어미를 들었다.

실제로는 ‘하물며$_1$’의 앞 문장은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어 말뭉치 자료 76개 중,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는 31개(4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으)ㄴ/는데’가 28개(36.8%)로 나타났다. ‘-거늘’이나 ‘-거니와’는 의고적 표현이라 할 수 있어 일상 발화 위주의 현대의 구어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문어 말뭉치 자료에서는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가 246개(5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역시 ‘-(으)ㄴ/는데’가 92개(19.9%)로 나타났다. 문어에서는 ‘-거늘’, ‘-거니와’가 각각 30개(6.5%), 3개(0.6%)로 소수 나타났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113) 개화기 시기에 쓰여진 《독립정신》, 《청일전기》 등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거늘’, ‘-거니와’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전이나 선행연구에 언급되었던 것만큼 ‘하물며$_1$’와 잦은 공기 관계를 이루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행문이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 평서문의 형태가 많았다.

이제 ‘하물며$_1$’의 후행 서술 내용이 갖추고 있는 형태를 살펴보자. ‘하물며$_1$’의 후행 서술 내용은 대체로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실현된다. 말뭉치 검토 결과 구어에서는 76개 중 평서문이 29개(38.1%), 의문문이 34개(44.7%)로 나타났다. 그런데 종결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생략된 경우가 13개(17%)인데, 이들은 대부분 의문문이 비실현형인 것으로 여겨진다. 문어에서는 총 456개 중 평서문이 211개(46.2%), 의문문이 226개(49.5%)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종결어미가 생략된 경우가 19개(4.1%)로 나타났다. 이들도 의문문의 비실현형인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_1$’의 후행 서술 내용은 의문문의 형태가 좀 더 우세하게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의문문으로 실현될 때 구어에서는 어떤 종결어미가 우세하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양한 형태의 종결어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통 ‘하물며’에는 ‘-(으)ㄴ가’, ‘-냐’, ‘-랴’, ‘-(으)ㅁ에랴’ 등의 의문형 종결어미가 많이 공기한다고 하지만, 이들 중 특히 ‘-랴’와 ‘-(으)ㅁ에랴’와 같은 어미는 일상 발화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구어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으)ㄹ까’, ‘-(으)ㄴ가’ 정도가 많이 보이는데 다른 종결어미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어 말뭉치에서는 좀 더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문어 말뭉치에서 의문문 226개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종결어미는 ‘-(으)ㄴ가’로 72개(31.8%)이다. 그 다음으로는 ‘-랴’가 64개(28.3%)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나머지 종결어미들은 그 빈도가 대동소이하다.

(54) 가. 어른도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애들이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나. 온라인 구매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 사이트만 붙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도 한 곳에서만 구매하지 않는다. **하물며** 온라인 세계라고 달리 행동하겠는가?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하물며$_1$'에 후행하는 수사의문문에는 선어말어미 '-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54)와 같이 '-겠-'이 결합한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구어·문어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제 '하물며$_1$'에 후행하는 내용이 평서문을 이루는 경우를 관찰해 보자. 앞서 논의했듯이 '하물며$_1$'에 평서문의 형식으로 후행되어도 수사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와 화행 의미가 같은 경우가 많다. 두 경우 대체로 강한 단언의 화행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다보니 '하물며$_1$'의 후행 내용에는 부정 서술어가 오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태나 대상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정 서술어로서 역설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55) 가. 어느 한구석 마음에 드는 데가 없는 널, **하물며**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애까지 데리고 오겠다는 널, 나는, 아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화이트끼리도 자기 일은 비밀이야. **하물며** 그레이 요원 임무를 알 턱이 없지.
다. **하물며** 뿌리도 없는 접객용 꽃꽂이의 화려함을 가지고 서로의 우열을 다툴 수는 없다.
라. **하물며** 일의 규모가 커진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구어에서나 문어에서나 '없-'과 관련된 표현들이다. '-(으)ㄹ 수 없-', '말할 것/필요도 없-', '-(으)ㄹ 리가 없-', '-(으)ㄹ 수밖에 없-' 등의 구성들이 전체의 절반가량의 비율로 관찰된다[114]. 이들이 쓰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없-', '아니-'와 같은 어휘적 부정문, 단형·장형 부정문 등의 부정 표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물며$_1$'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통사적 패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14) 이 외에도 '-(으)ㄹ 나위 없-', '-(으)ㄹ 여지가 없-', '-(으)ㄹ 턱이 없-', '-란 법이 없-', '-기 짝이 없-' 등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56) '하물며$_1$'이 형성하는 통사적 패턴

가. 통사적 패턴 1: 평서문A + 하물며$_1$ + 의문문('-(으)ㄴ가')/평서문('-(으)ㄹ 수 없-'류)B

나. 통사적 패턴 2: 절 A -(으)ㄴ/는데 + 하물며$_1$ + 의문문('-(으)ㄴ가')/평서문('-(으)ㄹ 수 없-'류)B

위 (56)이 현대 한국어에서 '하물며$_1$'이 보이는 가장 전형적인 두 가지 형태·통사적 패턴이라 판단된다. 여기에 어떤 의미적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57) 가. [A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법이야.] **하물며** [B 김회장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너구리를 옭아맬려면 절대 서둘러선 안 돼.]

나. [A 옷을 사두 백화점 가보구 시장 가 보구 그러는 거야.] **하물며** [B 결혼인데, 이 사람두 보구 저 사람두 보구 그래야지, 맹꽁이처럼 한사람만 죽어라고 쳐다보니?]

다. [A 꽃이 폈다가 진 꽃나무에도 흔적이 남고, 냇물이 흐르다 말려버린 자리에도 흔적이 남는데...] **하물며** [B 사람 맘이 그렇게 쉽게 접어질 수가 없지.]

(58) 가. 내가 제수씨한테 너처럼 하디? [A 나는 제수씨 하늘처럼 알고 대해.] 그런데 **하물며** [B 형수 될 사람한테, 니가 임마 이럴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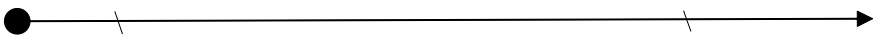
나. 세상에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A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동물이다.] **하물며** [B 동물의 왕국이라니.. 난 그 프로를 3초 이상 본적이 없다.]

다. [A 홈런볼에 초코가 없으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저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B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은 어떻겠습니까?!]

대체로 '하물며^1'의 선·후행절(문) A와 B의 관계는 위 (57), (58) 두 가지 경우로 관찰된다. '하물며^1'에 후행하는 내용은 선행하는 내용을 전제·근거로 한다. 따라서 [전제·근거 - 진술] 관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앞선 전제·근거는 상대

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며 후행 서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이 강한 내용일수록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57)과 같은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57)의 [A 하물며 B] 관계에서 B의 전제·근거인 A는 보편적 진리/상식에 해당된다. 그 외에 어떤 규칙/원칙도 잘 나타난다. (58)은 보편적 진리/상식은 아니지만 주관적 특성, 자기원칙과 같은 내용으로 B를 뒷받침하게 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A와 B의 이러한 관계는 척도상에도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57)과 같은 A, B 관계에서 A는 B가 나타내는 사태에 대한 준거가 된다. 가령 (57가)의 경우 '신중을 기하는 일'에는 정도에 따른 척도가 존재한다. 이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59) 

(57가)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두 사태는 위와 같은 척도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 즉 '토끼' 같은 작은 사냥감을 잡을 때에도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교활한 '늙은 너구리' 같은 사냥감을 대할 때에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_1$' 구문의 모든 A와 B는 위 (59)와 같은 구도를 형성하지는 않는 듯하다. (57다)와 같은 예에서는 척도상 A가 B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사실 A, B의 척도상의 위계는 정해진 것이 없고, 단지 후행 내용에 대한 전제·근거로만 기능할 수 있다면 '하물며$_1$' 구문이 온전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척도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58)에도 적용되는 바이다[11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하물며$_1$'의 절 공기 양상을 제시할 수 있다.

(60) '하물며$_1$'이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서술 A} <u>하물며</u> {서술 B}]

A: B에 대한 전제·근거. 보편적 진리/상식, 자기 원칙이 옴.

B: 전체 구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 A를 바탕으로 판단한 현실과

115) 이러한 A, B와의 관계로 인해 '하물며'는 '하다못해'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관련된 구체적 사태를 진술함.

나. 통사적 패턴 1: [{서술 A: 평서문} **하물며** {서술 B: 의문문('-(으)ㄴ가')/평서문('-(으)ㄹ 수 없-'류)}

다. 통사적 패턴 2: [{서술 A -(으)ㄴ/는데} **하물며** {서술 B: 의문문('-(으)ㄴ가')/평서문('-(으)ㄹ 수 없-'류)}

라. 비고: 의미상 A-B는 척도 관계를 형성하게 됨.

이어서 '하물며$_2$'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하물며$_2$'의 용례는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하물며$_1$'에 비해 그 용법이 구분되므로 따로 다루기로 한다. 원래의 '하물며' 구문에서 '하물며'의 선·후행 내용이 척도 관계를 형성하다는 사실은, '하물며$_1$'이 '하물며$_2$'와 같은 용법으로 확장하게 된 기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하물며$_1$'과 구별되는 '하물며$_2$'의 용례를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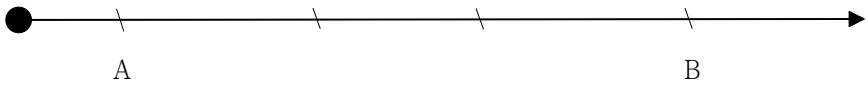
(61) 가. 그래서인지 집안은 언제나 만들다 만 미완성 작품으로 어지럽다. 독특한 합판으로 바닥을 깔고 집안 구석구석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벽이나 바닥에 그림도 그리고 페인팅도 하고 **하물며** 냉장고에까지 도트 무늬로 페인팅을 했다.

나. 불륜의 묘미가 뭐야? 은밀하잖아. 티내면 안 돼. 그래서 애가 더 타. **하물며** 가질 수 없어. 얼~마나 자극적이야. 사람 죽이는 거지.

다. 난 걔보다 이쁘단 말야. **하물며** 난 자연미인이야!

위 (61)은 '하물며$_2$'로 여겨지는 예이다. 앞서 '하물며$_1$'은 [A 하물며 B] 구조에서 [A-B] 관계는 [전제·근거-진술]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물며$_2$'에는 이러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 가령 (61가)에서 B, 즉 냉장고에도 도트 무늬로 페인팅을 했다는 데에 대한 전제·근거로 A의 내용, 즉 벽이나 바닥에 페인팅을 했다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 (61나)에서 '가질 수 없음'의 전제·근거가 '티내면 안 됨'이나 '애가 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61다) 역시 '자연미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걔보다 예쁨'이 전제·근거로 작용할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하

물며$_2$'의 용례들은 원래의 '하물며$_1$'의 의미와는 다르게 쓰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훈(2009: 221)이 지적한 단순 '첨가'의 '하물며'는 이러한 용례들이라고 본다. 즉 평서문에 쓰이는 '하물며'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입에서 언급했듯이 이때의 '하물며'는 원래 '하물며'를 구성하는 A, B 간의 척도적 해석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 여겨진다.

(62) 

'하물며$_2$' 구문에서는 화자 주관적 기준에 의해 위와 같은 척도의 여러 군데에 놓일 만한 사태나 대상들이 나열된다. (61가)의 '독특한 합판으로 바닥을 깖, 벽이나 바닥에 페인팅을 함, 냉장고에 페인팅을 함'이라는 집안의 어지러운 상황을 형성하는 척도, (61나)의 '은밀함, 티가 나면 안 됨, 애가 탐, 가질 수 없음'이라는 불륜의 묘미라고 하는 척도, (61다)의 '그 여자보다 예쁨, 자연미인'이라고 하는 미인의 척도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대상들이 나열되다가 척도의 극단에 해당되는 대상, 사태가 '하물며$_2$'에 후행하게 된다. 이 역시 척도적 기준을 통해 서술 내용이 강화되는 표현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하물며$_2$'의 용법 확장 역시 의미상 유사한 표현의 의미적 전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하다못해$_2$'가 전염의 인자(因子)로 추정된다. '하물며$_2$'는 '하다못해$_2$'의 특징과 유사한 면도 갖추고 있다. '하다못해$_2$'와 같이 '하물며$_2$' 구문에도 척도상에 위치한 대상이나 사태들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3) '하물며$_2$'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출현 환경: [A, B, C 하물며 D]
나. A~D는 모두 척도상에 위치한 대상/사태. '하물며'에 후행하는 D는 그 중 극단적 위치에 놓인 대상/사태.
다. 그 의미 특성상 보조사 '까지', '조차'와 자주 공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 통사적으로 자유로운 형식을 취함.

4.4.3. 요약

'하물며'는 용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행절(문)의 내용과 후행절(문)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접속 기능을 수행하며, '하물며'로 이어지는 후행절(문)이 선행절(문)의 내용을 더 강화시켜주는 용법의 '하물며'를 '하물며$_1$'로 보았다. 또한 척도 형성을 바탕으로 한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여 서술 내용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용법의 '하물며'를 '하물며$_2$'로 보았다. 이들 각각의 '하물며'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는 아래와 같다.

(64) '하물며$_1$'이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서술 A} <u>하물며</u> {서술 B}]

A: B에 대한 전제·근거. 보편적 진리/상식, 자기 원칙이 옴.

B: 전체 구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 A를 바탕으로 판단한 현실과 관련된 구체적 사태를 진술함.

나. 통사적 패턴 1: [{서술 A: 평서문} <u>하물며</u> {서술 B: 의문문('-(으)ㄴ가')/평서문('-(으)ㄹ 수 없-'류)}

다. 통사적 패턴 2: [{서술 A -(으)ㄴ/는데} <u>하물며</u> {서술 B: 의문문('-(으)ㄴ가')/평서문('-(으)ㄹ 수 없-'류)}

라. 비고: 의미상 A-B는 척도 관계를 형성하게 됨.

(65) '하물며$_2$'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출현 환경: [A, B, C 하물며 D]

나. A~D는 모두 척도상에 위치한 대상/사태. '하물며'에 후행하는 D는 그 중 극단적 위치에 놓인 대상/사태.

다. 그 의미 특성상 보조사 '까지', '조차'와 자주 공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 통사적으로 자유로운 형식을 취함.

5. 판단의 근거와 관련된 부사적 표현

본 장에서는 본고의 대상들 중 판단의 근거와 관련되는 내용에 잘 쓰이는 '어쩐지',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의 문법을 기술하기로 한다. 특히 '어쩐지'와 '아니나 다를까'는 화자가 예상 혹은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던 바가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 '어차피'의 경우, 사실 본 장의 범주로 꼭 묶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으나, '어차피'로 실현되는 내용이 어떤 행동, 사태의 당위성을 더해준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화자 혹은 행위주의 판단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주에 넣었음을 밝힌다.

5.1. '어쩐지'

5.1.1. '어쩐지'의 기본적 의미

먼저 '어쩐지'의 기본적 의미를 알아보자. '어쩐지'는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표준》
어찌된 까닭인지.
예) 그의 충혈된 눈이 <u>어쩐지</u> 마음에 걸렸다.
(2) 《고려》
가. 어찌 된 까닭인지. 또는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왠지.
나. 마음속으로 짐작한 바가 그대로 일어나거나 드러났을 때, 그 짐작대로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할 때 쓰는 말.
예) <u>어쩐지</u> 아침에 기분이 영 안 좋더라니 기어이 사고가 생기고 말았지 뭐야.

'어쩐지'의 기본적인 의미는 (1)과 (2가)에 기술된 바와 같다. 이때에는 '알 수 없

는 이유로' 정도로 바꿔 쓸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2나), 《고려》 에서의 두 번째 의미 기술인데, 이때에는 기본적 의미의 '어쩐지'와 다의적 차원에서 구분되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2나)의 '어쩐지'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와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2나)의 설명은 의미 기술보다 '어쩐지'의 특별한 용법에 해당된다. 즉 (1), (2가)는 '어쩐지'의 의미 기술, (2나)는 '어쩐지'의 특정 용법을 기술한 것이다. 실제로 전자의 '어쩐지', 후자의 '어쩐지'는 그 구문적 특징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어쩐지'는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태 서술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합하여 쓰일 것이다. 반면 후자의 '어쩐지'는 특정 구문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후자의 '어쩐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겠다. 전자의 경우를 '어쩐지$_1$'로, 후자의 경우를 '어쩐지$_2$'로 구분하겠다.

'어쩐지$_2$'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최근의 이후인(2015: 38~39)을 참조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어쩐지'는 증거성과 의외성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후행 명제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행 명제에서 의외성의 의미가 도출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추론이 발화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어쩐지$_2$'가 어떠한 구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5.1.2. '어쩐지$_2$'의 구문적 특징

'어쩐지$_2$'는 구어 말뭉치에서 434개[116]의 용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가. <u>어쩐지</u> 아침에 기분이 영 안 좋더라니 기어이 사고가 생기고 말았지 뭐야.
나. 그 자식 그거 <u>어쩐지</u> 눈빛이 안 좋다 했어/했더니.
다. <u>어쩐지</u> 방안에 냄새가 난다 싶어서 혹시나 했더니.
라. 신입사원이 벌써 사고 쳤다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u>어쩐지</u> 난 걔 첨부터 맘에 안 들었어.

116) 구어에서 1,209개가 나왔으나, 571개는 단순 지문으로 쓰여 제외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부 '1'의 용법으로 쓰였다. 구어적 성격이 강한 인물 간의 대화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구어에서의 '어쩐지'의 용법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마. <u>어쩐지</u>…

앞서 (2나)에서 정의한 바로는 '마음속으로 짐작한 바가 그대로 일어나거나 드러났을 때, 그 짐작대로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할 때' '어쩐지$_2$'를 쓴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의 용례들을 살펴봤을 때, 일어난 사태가 꼭 화자가 짐작한 바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거칠지만 '어떤 사태를 겪고, 과거에 그 사태의 동기, 원인이 될 만한 경험적 사실에서 추리·추론하여, 과거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표현함'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더 적절한 듯하다.

(3가)는 사고를 겪고 난 뒤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었다는 사실과 사고를 겪은 사실을 인과 관계인 것처럼 나타낸 예이다. '어쩐지$_2$' 구문에서는 겪었던 사실과 그에 대한 동기는 꼭 논리적인 긴밀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보다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다. (3가)와 같은 예가 형태·통사적으로 완전한 '어쩐지$_2$'의 구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3나, 다)에서는 화자가 겪은 결과적 사태가 언어 단위로 실현되지 않고 생략된 예이다. (3라)는 화자가 겪은 결과적 사태가 '어쩐지$_2$'의 선행 서술 내용에 나타나는 예이다. 그리고 (3가~라)는 모두 (3마)와 같이 '어쩐지'만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때 구체적인 의미는 맥락으로 파악된다.

(3마)와 같이 '어쩐지$_2$'라는 단어 하나만 쓰여도 구체적인 정황까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십중팔구 우리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라는 해석보다 '(아까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라는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어쩐지'와 유사한 의미의 '왠지', '웬일인지' 등의 표현과 구별된다.

(4) 가. 왠지…
나. 웬일인지…

(4)와 같이 단어 하나만 발화한다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어쩐지$_2$'가 단독으로 독립되어 쓰여도 '어떤 사태를 겪고, 과거에

그 사태의 동기, 원인이 될 만한 경험적 사실에서 추리·추론하여, 과거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표현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어쩐지$_2$'가 특정 맥락에서 완전히 관습화된 구문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어쩐지$_2$'가 나타나는 구문에서 후행 서술 내용, 즉 일어난 어떤 사태나 상황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태보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태가 일어난 동기'가 정보 가치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쩐지$_2$'의 용법은 '어쩐지$_1$'에서 어떻게 확장된 것일까? '그의 눈이 <u>어쩐지</u> 충혈되어 보였다'에서와 같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도의 의미로 쓰이던 '어쩐지'가 특정 상황에서 매우 우세한 용법으로서 쓰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5) 가. A의 눈이 <u>어쩐지</u> 충혈되어 있었다.
나. A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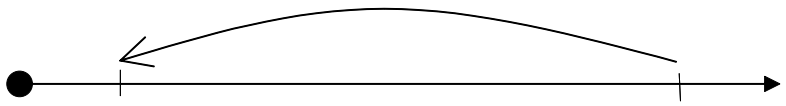
(5가, 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태를 나타낸다. 단지 (5가)와 같은 '어쩐지'가 쓰인 문장에서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인식을 갖는 경위나 원인/이유를 확실히 따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 경과에 대해 인식하거나 나열할 때, 흔히 시간적 순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쩐지'는 원의미대로 (5가)와 같이 쓰였을 것이고, (5가)와 같은 내용 뒤에는 전혀 다른 화제가 제시되기보다 (5가)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시간적 순서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5)와 같은 내용 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6) 갑: A가 오늘 결근했대.
을: <u>어쩐지</u> 어제 눈이 충혈되어 있더라. 많이 피곤했구나.

어떤 사람의 본질적인 외현적·내재적 특성이 있다면, 분명히 무표적인 경우와 유

표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특이점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대상이나 사태가 유표적일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을의 입장에서 A의 충혈된 눈은, 평소와는 다른 A의 상태였고, 그래서 그것을 쉽게 지각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평소와 다른 A의 상태에서 도출되기 쉬운 사태일 것이다.

(7) 1. A의 눈이 <u>어쩐지</u> 충혈되어 있었다.
2. 다음 날 A는 결근했다.
→ A의 눈이 <u>어쩐지</u> 충혈되어 있었는데, 다음 날 A는 결근했다.

(8)


'어쩐지'가 있는 문장에서의 일련의 사건의 흐름은 (7), (8)처럼 자주 나타나게 되며, 화자는 '결근한' 사실의 이유/원인을 'A의 충혈된 눈'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어쩐지'는 두 사건과의 관계, 즉 원인-결과가 되는 것이다. 사실은 두 사실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알게 됨을 나타낸다.

결국 어떤 결과적인 사태를 접했을 때, 화자는 그 사태의 이유/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어쩐지'를 흔히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위 (7), (8)과 같이 일련의 내용이 구조화된 구문으로 고착화되어 (9)와 같은 구문적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된다.

(9) A의 눈이 <u>어쩐지</u> 충혈되어 있더라니, 그는 오늘 결근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어쩐지$_2$'가 형성하는 의미적 패턴
가. [어쩐지 {서술 A}, {서술 B}]
A: 확인된 현재 사태의 동기, 원인을 과거의 지각된 경험에서 추리·추론

B: 확인된 현재 사태

나. 표현 동기: 화자가 확인한 어떤 사태를 과거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표현함.

이제 '어쩐지$_2$' 구문의 통사적인 절 공기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어쩐지$_2$'의 이러한 의미적 특징은 전체 구문의 통사적 패턴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어쩐지$_2$'의 의미적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어떤 사태를 겪고, 과거에 그 사태의 동기, 원인이 될 만한 경험적 사실에서 추리·추론하여, 과거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표현함'이라는 기술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사태를 겪음', 둘째 '과거에 그 사태의 동기, 원인이 될 만한 경험적 사실에서 추리·추론', 셋째 '과거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표현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사항 중 첫째와 둘째는 구문 차원에서 언어 단위로 실현된다. 셋째는 화자의 표현 욕구와 관련된다.

(9)와 같은 구문이 전형적인 '어쩐지$_2$'의 구문적 패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둘째의 내용은 '어쩐지$_2$' 구문의 선행절에 표현되고, 첫째의 내용이 후행절에 표현되는 것이다. 어떤 사태의 동기, 원인을 과거의 경험적 사실에서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본적으로 과거시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결과의 원인, 근거라 할 수 있는 과거의 사실은 증거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은 과거의 다른 경험적 사실 중에서도 의외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실이 화자의 기억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의외성과도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선행절의 서술 내용은 '-더-'가 공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물론 다른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인 '-었-', '-았었-'도 관찰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그만큼 선행절의 어떤 내용이 화자가 겪은 결과 사태의 근거로 만들고자 하는 화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다른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는 이런 경우에도 쓰일 수는 있지만 선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 사태의 동기·원인은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기·원인에 대해 화자가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아 아까 그게 좀 이상했는데'가 아니라 '이상했던 것 같은데' 정도의 추측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외에도 '-다 했-'. '-다 싶-' 등과 같은 추측과 관련된 표현도 잘 쓰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후행절은, 앞서 설명한 선행절의 내용에 '결과 사태에 대한 화자의 지각'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통사적으로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117]. 이상과 같이 논의한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 '어쩐지$_2$'가 형성하는 통사적 패턴

형태·통사적 공기 요소: [어쩐지 {서술 A}, {서술 B}]

A: '-더-' 등의 증거성 표지, '-다 했-', '-다 싶-' 등의 추측 표현이 자주 옴.

B: 자유 결합. 생략되는 경우도 많음.

5.1.3. 요약

'어쩐지'는 용법에 따라 '어쩐지$_1$', '어쩐지$_2$'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어찌된 일인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어쩐지$_2$'의 경우 어떤 사태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에서 흔히 사용한다. 따라서 '어쩐지$_2$'는 일련의 사건을 관습적으로 특정 구문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어쩐지$_2$'의 용법을 자세히 기술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본고에서 기술한 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 '어쩐지$_2$'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어쩐지 {서술 A}, {서술 B}]

A: 확인된 현재 사태의 동기, 원인을 과거의 지각된 경험에서 추리·추론

B: 확인된 현재 사태

나. 형태·통사적 공기 요소: [어쩐지 {서술 A}, {서술 B}]

117) 물론 결과 사태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A: '-더-' 등의 증거성 표지, '-다 했-', '-다 싶-' 등의 추측 표현이 자주 옴.

B: 자유 결합. 생략되는 경우도 많음.

다. 표현 동기: 화자가 확인한 어떤 사태를 과거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표현함.

5.2. '아니나 다를까'

5.2.1. '아니나 다를까'의 기본적 의미

'아니나 다를까'는 화자가 예상한 바가 그대로 실현되었을 때 쓰는 관용 표현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쩐지$_2$'와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어쩐지$_2$' 역시 화자가 예상한 바가 실현되었을 때 쓰이는 표현이다. '어쩐지$_2$'는 화자가 지각한 어떤 경험·예감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귀결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결과적 사태를 겪은 후에 그 경험·예감이 그 사태의 원인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일련의 과정을 특정 패턴으로 표현한다. 두 표현 다 어떤 예상·짐작이 그대로 실현될 때 쓰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는 부사 관련 연구에서도 잘 논의되지 않았던 표현이다. 사전에서만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서의 정의로는 상세한 특징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13) 《고려》

부사. 짐작하거나 예상한 바대로.

(14) 《표준》

관용구. 과연 예측한 바와 같다는 말.

《고려》에서는 '아니나 다를까'를 하나의 부사로 등재하였다. 반면 《표준》에서는 관용구로 보고 있다. 그 정의 기술은 동일하다. '아니나 다를까'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도 위에서 언급한 의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응하는 영어 표현으로는 주로 sure enough, (just) as (one) expected 정도가 대표적이다.

'아니나 다를까'는 형태적으로 '아니나'와 '다를까'의 결합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형태의 어떤 의미로도 '예상한 대로'라는 의미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통시적으로 두 형태의 결합형이기는 하겠으나 공시적으로 쓰이는 의미에 대해 두 형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아니나 다를까'는 하나의 굳어진 단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5.2.2. '아니나 다를까'의 구문적 특징

본고에서 다루는 다른 표현들에 비해 '아니나 다를까'는 그렇게 고빈도로 쓰이는 표현은 아닌 듯하다. 구어 말뭉치에서는 21개로 조사되었다. 좀 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문어 말뭉치도 검토한 결과 169개로 나타났다[118][119].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문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필요에 따라 인터넷 검색에서 나타난 '아니나 다를까'의 용례도 사용하겠다.

먼저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아니나 다를까'는 매우 소수이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지문에 나타났다. 21개 중 19개가 지문에 쓰였고, 2개만이 인물 간의 대화에 나타났다.

(15) 가. (민규, 영규가 라면 쪽 보는 것이 불안하다. <u>아니나 다를까</u> 영규가 라면을 덮은 신문지를 휙 젖힌다.)

나. (우주를 힐끔거리던 흑인 노숙자, 주변 눈치 살피며 조심스레 다가온다. 경계하는 우주, <u>아니나 다를까</u> 노숙자,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드는데 흉기 같다.)

다. 저번부터 눈 여겨 봤었는데요... <u>아니나 다를까</u> 요즘 인터넷에서 최고로 인

118) '아니나 다를까'가 구어적 성격보다 문어적 성격이 강한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구어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고적인 표현도 아닌데 말뭉치 자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다를까'의 사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19) 문어 말뭉치 중에서 '아니나 다를까'의 선행 내용이 드러난 것들만 모았다. 선행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것, 즉 시스템상 선행 내용이 안 나타나는 검색 결과까지 포함하면 234개이다.

기 끄는 글이에요.

라. 숙희는 늘 흰 쌀밥을 싸왔거든. 나는 혹시나 해서 숙희 도시락을 열어보았지. **아니나 다를까** 역시 숙희는 흰 쌀밥을 가져온 거야.

(15가, 나)는 드라마·영화의 지문에서 쓰인 '아니나 다를까'이다. 이때에는 묘사되는 상황을 보면서 특정 인물이 그 상황의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미 예상한 듯한 표정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설명을 '아니나 다를까'라는 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담화 내의 특정 맥락을 한 마디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겠다. (15다, 라)는 인물 대사에서 쓰인 '아니나 다를까'이다. (15다)는 어떻게 될지 화자가 예전부터 이미 지각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고, (15라)는 화자가 관찰한 특정 인물의 습관에 유추해 어떤 상황을 예상했는데, 예상한 대로 그 상황이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아니나 다를까'가 쓰임으로써 진행되는 상황에 특정 배경정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어에서도 '아니나 다를까'는 인물 간의 대화에서보다 상황 묘사에 더 잘 쓰인다. 그러다보니 주로 소설 자료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아니나 다를까'의 의미 특성상 선행문(절)은 평서문 종결어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뒤에 이어지는 예상된 사태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상황이 제시되기 때문에 다른 문장 유형의 종결어미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종결어미는 거의 과거시제 표현과 같이 나타난다. 예로써 살펴보자.

(16) 가. 달포 전에 왠지 모르게 몽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낌새도 이상하여 아무도 모르게 석기를 산으로 보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나. 선흥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봉이네 모친이 시키는 대로 이불을 들쳐 쓰고 누워 있었다. 한참 뒤에 밖에서 두런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삽짝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 봄날 치고 좀 더운 거 아닌가 싶을 때 **아니나 다를까** 후드득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진다.

라. 병모는 전화내용이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은 형사가 병모에게

말했다.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한 바의 근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나 관련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16가, 나)는 '-었던-'과 '-더-'가 쓰인 예이다. 후행 사태를 예상한 이는 과거의 유표적 사태에서 그것을 추리·추론한다. 과거의 유표적 사태라 함은 화자에게 있어서 의외적 사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서의 의외성 표지 '-더-'가 잘 나타난다. 이렇듯 '아니나 다를까'의 선행 내용은 의외성을 띤 경우가 많다. (16다)는 그러한 의외적 사태로 어떤 사태를 추리·추론하는 차원에서 보조용언 '싶-' 구성이 쓰인 것이다. 이러한 문법 요소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16라)와 같이 어떤 의외적 사태를 '불안하다'와 같은 형용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류의 표현으로는 '꺼림칙하다', '심상찮다', '마음에 걸리다', '수상하다' 등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의 후행 서술 내용은 의미상 행위 주체가 예상한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어떤 형태·통사적 제약은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예상한 사태를 겪은 후의 서술이기 때문에 시간상 미래의 내용은 오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 시제 표현과 공기하지 않는다. 또한 '어쩐지$_2$'에서도 그러했지만 '아니나 다를까'도 후행 서술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예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발화상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보 전달 차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5.2.3. 요약

이상 논의한 '아니나 다를까'의 문법과 절 공기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17) '아니나다를까'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서술 A: 예상 근거} <u>아니나다를까</u> {서술 B: 실현된 예상 내용}]

나. 통사적 공기 관계

서술 A: 평서문의 형태로, 서술어는 과거시제 '-었-', '-더-', 추측 표현 '싶-'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음. 의외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꺼림칙하다', '심상찮다', '마음에 걸리다', '수상하다'과 관련된 표현이 자주 옴.

서술 B: 예상 내용만 나타남. 시간상 미래의 내용은 올 수 없음. 그 외 형태·통사적 제약은 자유로운 편.

다. 후행문(절) B의 특징: 예상 내용만 나타남. 시간상 미래의 내용은 올 수 없음. 그 외 형태·통사적 제약은 자유로운 편.

5.3. '어차피'

5.3.1. '어차피'의 기본적 의미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차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8) 《표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19) 《고려》
이렇거나 저렇거나 귀결(歸結)되는 바. '어차어피(於此於彼)'의 준말.

사전에서는 '어차피'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어차피'의 상세한 용법까지는 파악될 수 없다. 또한 '어차피'를 다룬 논의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단 '어차피'를 번역한 영어 표현을 살펴보면 용법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 가. In any case, that's a job for me to do.
<u>어차피</u>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 If we have to go anyway, it would be better to leave early.
어차피 가야 한다면 일찍 떠나는 것이 낫다.
다. One way or the other, it's a debt that has to be paid off.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다.
라. After all, he is not going to recover.
어차피 낫지 않을 병이다.

'어차피'는 영어 번역으로 주로 위의 네 가지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의미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20가~다)가 같은 의미로 쓰인 부류로 묶일 수 있고, (20라)처럼 '결국'의 의미로 쓰이는 '어차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는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그 용법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어차피'의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구문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5.3.2. '어차피'의 구문적 특징

'어차피'는 그 어휘의 의미상 단 하나의 구체적인 의미로 고정해서 기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 용례를 살펴보면서 그 용법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어차피'는 어떤 사실에 대해 설명이나 이유·원인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필연성을 부여할 만한 설명이나 이유/원인을 상정하는 기능을 한다.

(21) 가. 교육소설을 통해 교육현실에 미리 가볼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고 그런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잊지 않은 채 계속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내가 부딪칠 현실이니까.
나.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를 둘러싼 작금의 충격과 파장은 어차피 우리 사회가 한번은 겪고 넘어야 할 성숙의 과정이고 또 충격의 상당부분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들이기도 하다.

(21가)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에 대해 '내가 부딪힐 현실'이라는 필연적 이유를 '-니까'로 나타난 절로 제시한 것이다. (21나) 역시 '금융실명제 전면실시의 여러 혼란스러운 정황'이 필연적일 만한 내용을 '어차피'에 후행하는 절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때 '어차피'가 형성하는 명제는 처하게 된 상황에 당위성으로 작용할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는 모종의 인과 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화자는 처한 상황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가 보이는 당위성의 양상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가. **어차피** 교통비든 뭐든 저희 교육청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예고되거나 확정된 사항]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다. 몸은 **어차피** 산흙이 되어버릴 텐데….
[보편적 진리/예고되거나 확정된 사항]

다. 글쎄, 상처로 남을 행복이라면 빨리 깨어지는 것이 좋겠지. **어차피** 깨어질 행복인데.
[가능성이 높은 추측/예상]

라. **어차피** 떠나야만 한다면 미련 안 남게끔 빨리 가세.
[예고되거나 확정된 사항/의무]

(22)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어차피'에 실린 당위성은 보편적인 진리, 예고되거나 확정된 사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측/예상/기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화자 입장에서는 구정보이다[120]. (22가~라)에서 '어차피'에 따르는 내용들은 화자 입장에게는 내재된 사실들이고, 청자는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어차피'의 영어 번역 중 '결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처럼 '어차피'는 '결국'과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22)의 예도 그러하다. 이는 '결국'과 '어차피'가 갖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121]. 이은령(2013)에서 '결

120) 정보 가치의 차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모호하다면, 적어도 이때 '어차피'에 후행하는 내용은 화자에게 의외적인 정보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국'에 초점을 맞추어 '결국'의 여러 특성을 고찰한 바 있다. 특히 '결국'의 논증을 위한 접속기능을 다룬 부분이 본 논의에 참고된다. 관련된 예를 살펴보자.

(23) 가. 국민의 희생을 끌어내는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중국도 사람 사는 사회다.
나. 여기에 덧붙여 글 솜씨도 있어야 한다. 신문기자는 결국 글로 승부하는 직업이다.
다. 문화는 대중의 생활양식이고 사고방식이다. 결국 문화는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은 시간적 관계(순접)에 얽매이지 않고 선행문에서 제시된 경험적 사실을 후행문에서 일반화의 논리로 연결할 수 있다. 경험적 사실에서 일반화의 논리로 비약하는 연결(순접)은 논증의 전개상 부자연스러우며, 기본적인 순접 접속사(그래서, 그리하여 등)를 쓰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결국'과 같이 논리적 전개과정이나 논증의 단계에 필요한 접속사가 선택되어 쓰이며, 이와 같은 '결국'의 역할은 단순한 접속부사로서 축소 기술할 수 없는 발화적 가치와 논증적 역할을 보여준다.

'결국'의 논증적 기능을 고찰한 이은령(2013)의 시각은 '어차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의 (23)에서 '결국'을 '어차피'로 대체해도 적합한데, 이는 '결국'의 다양한 용법 중 (23)과 같은 쓰임은 '어차피'와도 상통하기 때문이다[122]. 처한 상황에 대해 화자가 제시하는 당위적 설명이나 이유/원인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인과관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발화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121) 어떤 사태의 마지막 국면을 강조하는 어휘로 '결국' 외에도 '마침내', '드디어'와 같은 부사 어휘가 있다. 그러나 위 (23)의 예문들에게 '어차피'를 '마침내', '드디어'로 대체하면 부자연스럽게 되고 만다. 이 같은 사실은 '결국'이 '마침내', '드디어'와 다른 의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 구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은령(2013) 참고.

122)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적 상황에 도달함을 나타낼 때에는 '결국'은 쓸 수 있지만, '어차피'는 쓸 수 없다.

가. A는 B를 끝까지 추궁했다. 결국 B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 A는 B를 끝까지 추궁했다. *어차피 B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없는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차피'는 '결국'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어떠한 양상이든지 간에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해당 상황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필연'이 아니더라도),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필연/당위적'인 사실, 이유/원인을 기술함으로써 두 명제를 연결한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개연성을 바탕으로, 처한 상황보다는 화자가 판단한 '필연/당위적'인 사실, 이유/원인을 강조하게 되는 기능을 한다.

(24) 가. 신동지, 이제 갈 시간입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입니다.
나. 넌 **어차피** 연애하느라고 매일 바빴을 거 아냐.
다. 먼저 자. **어차피** 늦었으니깐 마저 봐야지. 출근이야 제때 어영부영해질 거야.
라. 흥부 놀부는 운명적으로 불화할 수밖에 없다. 소설이 갈등과 불화의 양식이란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소설이 **어차피** 갈등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그와 같은 소설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작가의 운명이다.

(24가)에서는 '이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당위성으로 강조하면서 지향해야 할 태도의 방향을 강화하는 담화적 기능을 한다. 나머지 예들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차피'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어차피'의 구문적 특징을 분석해 보자.

우선 '어차피'로 이어지는 문장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당위성 부여'라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그 당위성은 보편적인 진리, 예고되거나 확정된 사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추측/예상/기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등을 이유/원인으로 기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통사적으로도 '-기 때문, -으니, -니까' 등의 원인/이유와 관련된 표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어차피'는 문어에서 1,467개, 구어에서 4,046개로 매우 빈번히 쓰이는 표현이다.

① 인과 관계의 나열

명제와 명제 간의 관계에서 처한 상황에 대하여 당위성을 부여하는 '어차피'는 선치(先置)된상황 제시에 후치되는 경향이 있음. 문어·구어 자료에서 임의로 각각 100개씩의 예문을 검토하였는데, 대략 3:7로 '결과(상황)-이유/원인' 어순이 우세했다[123]. 즉 앞서 제시한 (22)와 같은 흐름의 담화가 대체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였다.

범언어적으로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의미적 차원에서 도상성(iconicity)을 반영하여, 인과 연쇄(causal chain)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어차피' 구문은 그러한 경향과는 반대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25) 가. **어차피** 회식할 거면 애들 다 데리고 나와.
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야. 후회 없이 살자.
나. 해보자. 승률은 **어차피** 50 대 50이니까….
나′. 너무 미련 갖지 마. 내가 봤을 땐 **어차피** 헤어질 거였어.

좀 거칠게 명제 간의 관계를 단순화시키자면 (25가, 가′)은 [이유/원인 - 판단/결과] 순이고, (25나, 나′)는 [판단/결과 - 이유/원인] 순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5가′, 나′)는 각 명제가 주절-종속절 구조가 아니나 독립적인 문장으로 병치(竝置)된 용례이다. 즉 앞서 제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5가, 가′)보다 (25나, 나′)에 속하는 유형이 훨씬 많다.

이원표(2001: 264~270)에서는 '이유'의 전경화(foregrounding)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절들 간의 정상적인 어순은 종속절이 주절보다 앞에 오는 것이다. 그 경우에 주절은 이야기되어지는 주요 내용의 흐름을, 종속절은 주절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 '-니까'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외에 이유/원인이 나타나는 절의 내용을 강조

123) 문어에서 33:67, 구어에서 25:75로 구어에서 '이유/원인'을 후치시키는 경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하기 위해 다른 접속사나 그에 상당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왜냐하면' 구문인 것이다. 선제시된 결과 내용에 대한 이유, 추론, 증거, 동기 등을 부여함과 더불어 이런 것들을 전경화함으로써 초점을 주어지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서'와 '-니까'가 도치된 경우로 이원표(2001)은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6) 가. 일하기가 어려웠다, 오늘은 날씨가 몹시 더워서.
나. 선생님이 실망했을 것이다, 네가 안 왔으니까.

이원표(2001:265)

(26)은 주절(결과절)과 종속절(이유절)이 도치된 경우이다. 이러한 도치된 어순은 정상적인 어순의 경우에 비해 이유절이 강조되고 있다.

Giora(1983: 158~161)에 의하면 접속의 문법요소에 의한 종속절이 문장의 뒤에 오는 경우에는 전경화될 수 있다. (26)은 그러한 Giora(1983)에 대한 한국어의 예가 되는 것이다(이원표 2001: 265~266). '어차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차피' 구문이 보이는 주요 의미 패턴이 [어떤 판단/상황 - 당위적인 설명/이유]이고, 인과 관계의 일반적 어순에서 벗어나는 패턴이라면, 화자는 그 '어차피'에 이어지는 내용이 더 초점적인 내용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124][125]. 즉 (26)에서 '주절-종속절'의 복문 구성이 아니라 (26가′,나′)처럼 독립적인 문장으로서 일련의 명제가 이어진 구성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26가, 가′)와 같은 선치 구문보다 (26나, 나′)의 연쇄 구조가 더 선호된다.

'어차피' 구문이 (26가, 가′)의 패턴을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본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자 한다.

(27) 가. 이유/원인 제시의 긴박성(immediacy): 정보의 중요도에 의함.
나. 선점(preemption): 이의를 차단하기 위한 논리적 강화. 충분한 설명 및 이

124) 작은 차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제된 문어 자료보다 구어에서 그러한 어순의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사실도 관련 있을 것이다.
125) 그러한 차원에서 '어차피' 구문과 '왜냐하면' 구문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유를 제시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해명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방지.

② [어차피 A+B] 구조에서 나타나는 인과 관계

앞서 '어차피'는 처해진 상황에서 취하게 될 어떤 태도, 판단, 행동 등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 당위성은 곧 필연적인 이유로 귀결된다. 대체로 선·후행절 혹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바에서 기원하는 계기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필연적·논리적 귀결성이 부족한 인과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그 인과 관계를 좀 더 당위적으로 만들어준다. '어차피'와 연결어미 '-어서'는 잘 공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차피'가 인과 관계와 관련된 연결어미와 어울리는 양상을 보면, [어차피 ~ 어서] 구문은 잘 쓰이지 않고, [어차피 ~ 니까], [어차피 ~ 기 때문에], [어차피 ~ 므로] 등으로 더 잘 쓰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126].

이원표(2001: 137~140)에서는 '-어서'와 '-니까'를 서로 다른 의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내용 영역의 '-어서'는 기본적으로 두 절에 표현된 사건과 사건 사이의 "상관적인 계기성"을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고, 그러한 상관적인 계기성은 남기심·루코프(1983)에서도 언급되는데[127], 결과적으로 '-어서'의 인과 관계 의미가 상관적 계기성으로 유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논의에서는 '-니까'도 같이 다루고 있다. '-니까'는 "발견"의 의미가 발전한 것으로, 인식영역과 화행영역에서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Sweetser(1990)의 이론틀로 설명하였다. 요점만 언급하자면, "A를 하는 과정에서 B를 발견했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추상화되어서 추측이나 판단일 경우[128],

126)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가령 '어차피 MT는 안 갈 거라서, 계속 가자고 꼬셔봤자 너만 힘들어'와 같이 화자가 논리적 귀결성이 나름대로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면 '-어서'가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127) 이유절 A와 결과절 B에 존재하는 상관적 계기성은 "잠재적으로 A와 B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B는 단순히 A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A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남기심·루코프(1983) 참조.

인식영역에서의 인과관계를, 명령이나 제안, 약속 등과 같은 화행일 경우[129], 화행영역에서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원표(2001: 140)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내용영역의 '-어서'가 인식영역 및 화행영역의 '-니까'보다 두 절 사이의 의미적 밀접성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보았다[130].

'-어서'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차피' 구문에서는 '-니까'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차피'가 형성하는 절과 절(명제들)의 사건 관계는 상대적 계기성도 부족하고, 논리적 귀결성도 부족하다. 그러나 어떤 행동, 사태, 상황에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니까'나 '-기 때문', '-므로'와 같은 어미들이 선호되는 것이다.

③ 담화 기능

'어차피'가 형성하는 구조가 '주절-종속절' 관계이든 독립 문장이든, '어차피'는 단순히 처해진 상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이유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여러 정보들을 꾸준히 나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내용들을 "좀더 중요하고, 의의가 있으며, 이야기의 내용에 중심적인 것으로서(Tomlin 1985: 87)"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이원표 2001: 265~266). 그리고 독립 문장으로 명제가 나열될 때에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Tomlin(1985)에 따르면 독립 문장은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거나 정보의 전경화를, 종속절은 배경화를 낳는다. 경향성을 따졌을 때 '어차피'가 독립 문장으로 잘 나타나는 것은 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왜냐하면' 구문과 유사한 듯하다. 이원표(2001: 147~149)에서 논의한 '왜냐하면' 구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왜냐하면' 구문의 특징

가. 이유와 결과가 도치되어 나타남. "결과 + 왜냐하면 + 이유"의 구조를 가짐.

---

128) 예를 들면, '선생님이 보고 계시니까 잘 나오던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
129) 예를 들면, '엄마가 괜찮다니까 계속 놀아도 돼'.
130) 이러한 의미적 차이로 인해 '-어서'와 '-니까'의 두 구문 사이에 통사적 차이를 낳거나 그러한 차이가 통사적 차이에 의해 반영된다는 것이다.

나. 결과와 이유가 각각 독립적인 문장에 의해 표현됨. 즉 결과와 이유 부분이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병렬구조(parataxis)를 이루고 있음.

다. 이유절과 결과절에서의 시상 및 종결형의 선택과 관련된 제약이 없음. '-어서'나 '-니까'와 달리 이유와 결과 부분이 별개의 독립적인 문장에 의해 표현되는 데에 기인함[131].

라. 이유 부분의 범위가 기존의 접속어미가 사용되는 경우보다 넓음. 결과 부분에 직접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 이상의 여러 문장들에서도 이유가 제시될 수 있음.

마. '왜냐하면'이 '-아서', '-니까', '-때문에' 같은 기존의 어미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음.

바. 비교적 긴 이야기나 논쟁성이 밑은 장르에서 많이 발견됨.

'왜냐하면'과 '어차피'는 그 뉘앙스는 다르다고 생각되나 상당 부분 의미·용법상 겹치는 부분이 있다. 담화상으로 '어차피'는 완전히 (28나)라고 할 수는 없으나 (28나)처럼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유/원인의 당위성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존의 접속어미보다 넓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29) 가. 죽음은 <u>어차피</u> 우리들 누구나의 것이다. 삶에 따라붙는 개인적인 차이는 죽음의 경우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다. 죽음은 남의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살아 있는 자의 타인에 대한 윤리 의식은 죽은 이를 향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죽음을 향한 살아 있는 자의 윤리 의식이 아쉽다.

나. 한여름을 그는 군상을 만드는 데 바쳤다.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u>어차피</u> 아무도 없는 집이었다. 외로움이 불면처럼 그를 덮어 눌렀다. 이미 죽은 어머니가 그의 무력한 잠속에 나타나곤 했다. 생전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그의 작업장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 가자 어머니는 몸을 돌이키더니 일어섰다. 강박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다. <u>어차피</u> 인수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경영 책임을 물어서 교체해야지. 그때까진 우리 쪽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기획실장으로 심어놓고, 그 사람을 잘 구

131) 이는 이유와 결과의 의미적 밀집성이 '-어서', '-니까'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슬려야 돼. 호텔의 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면 큰일난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실이 (29)의 '어차피'가 나타난 구문에서도 확인된다. (29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보편적 진리로 생각되는 사실을 제시해두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잇는 것이다. (29나)도 '그'의 입장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며, (29다)도 그러한 패턴을 보인다[132]. '어차피'가 형성하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담화상에서 '어차피'는 일종의 화제화(topicalization) 기능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29가)의 앞에는 처한 상황에 대한 서술이 있었으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차피'는 화제가 바뀌는 부분에서 쓰여서 '죽음'과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도입을 매끄럽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29나)에서는 '외로움'이 화제화되고, (29다)에서는 '인사 교체 대비책'이 화제화된다.

5.3.3. 요약

이상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어차피'의 절 공기 관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30) '어차피'가 형성하는 절 공기 관계

가. 의미적 패턴: [{서술 A: 화자 주관적 결정·판단}, **어차피** {서술 B: 화자 주관적 이유·원인}]

나. 통사적 패턴 1: [{서술 A ~ 청유·명령형 어미}, **어차피** {서술 B: ~니까/~기 때문에/~므로 등의 이유·원인의 표현}

다. 통사적 패턴 2: [{서술 A ~ 판단·단언의 표현}, **어차피** {서술 B: ~니까/~기 때문에/~므로 등의 이유·원인의 표현}

라. 경우에 따라 A와 B는 도치도 가능.

132) 구어 자료의 경우 한 화자의 대화량이 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일관성을 띤 담화가 문어에 비해 적다.

6.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일부 부사적 표현들이 특정 내용의 절과 절의 공기 관계를 이루는 데에 관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절 공기(clause collocation) 개념에서 해당 현상들을 접근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단어와 단어도 특정 공기 관계를 맺듯이 절과 절 역시 공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기 관계는 일부 부사적 표현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절 공기 관계는 기본적으로 개별 부사적 표현들이 가지는 구문과도 유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고는 아직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사적 표현들의 구문과 관련한 문법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고는 10개의 부사적 표현들을 분석하여 문법 사항들을 기술하고, 개별 부사적 표현들이 형성할 수 있는 절 공기 패턴을 제시하였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10개의 부사들은 의미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절 공기 관계의 개념을 소개하고, 부사적 표현이 절과 절 간의 공기 관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사적 표현들의 구문과 절 공기 관계를 제시할 때 유용한 의미 운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첩되는 사태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들에 대하여 다루었다. ‘가뜩이나’와 ‘안 그래도$_3$’의 경우 의미적인 패턴이 같은데, 이는 통사적 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의 구문 패턴이 닮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접속부사에 속하는 ‘더욱이’에 대해서는 한층 더한 사태를 부가한다는 기능과 후행절과의 관련성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척도 판단과 관련된 부사적 표현들인 ‘차라리’, ‘오히려’, ‘하다못해’, ‘하물며’를 다루었다. 이들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와 ‘오히려’가 의미적 전염에 의해 용법이 서로 확장되며, ‘하다못해’와 ‘하물며’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전반적인 문법 사항들을 기술하고, 절 공기 관계를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화자가 판단하는 바의 근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사적 표현들인 ‘어쩐지’,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를 다루었다. ‘어쩐지’와 ‘아니나 다를까’는

특히 용법이 유사한데, 구문의 패턴 역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어차피’는 문맥에 따라 그 기능이 다양하였다. 대체로 어떤 결정에 대해 이유, 근거 등의 내용이 ‘어차피’에 후행하여 절 공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다하지 못한 사항들을 정리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10여 개의 다양한 부사적 표현들을 다루었으나 의미적으로 유사한 다른 부사적 표현과 비교·대조해가며 다루지는 못하였다. 유의한 표현들과의 논의가 더해지면 좀 더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절 공기 관계를 표방하며 문법 기술에 나섰으나, 절과 절 간의 공기 관계에 있어서 관찰 폭을 더욱 넓히는 것도 미진한 점 중 하나이다.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의미적인 공기 관계에 접근할 때에, 당장 인접한 요소들 외에 좀 더 관찰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지금껏 포착하지 못했던 공기 현상들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라 했던 바와 같이, 본고에서 다룬 대상들의 공기 관계의 범위를 넓혀 접근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의 논의는 사실 특정 표현이 나타내는 구문의 문법 사항을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실과 절 공기 관계라는 현상의 경계가 모호하였다는 점도 인정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그 대상을 일부 부사적 표현에 그쳤지만, 다른 부사적 표현이나, 특히 연결어미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절과 절 간의 공기 관계의 양상을 좀 더 다채롭게 기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논저류>

강범모(2011),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운율", 언어 36(1), 1~23.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문법론》, 집문당.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Ⅰ》, 집문당.

구본관 외(2016), 《한국어 문법 총론Ⅱ》, 집문당.

김경훈(1996), 《현대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영(2003), 《현대국어의 접속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해(2000), 《연어연구》, 한국문화사.

남기심·루코프(1983), "논리적 형식으로서의 '-니까' 구문과 '-어서' 구문",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명정희(2016), "양보 접속어미의 의미·통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6년 2월 형태론 집담회·통사론 연구회 공동 발표회 발표문.

문금현(2004), "전제의 유형", 한국어의미학 14, 223~254.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361~384.

박진호(2011ㄱ),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389~422.

박진호(2011ㄴ), "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1~25.

박진호(2015), "언어에서의 전염현상", 언어 40(4), 619~632.

백채원(2010), 《중세 한국어의 정도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손남익(2014), 《부사사전》, 역락.
양명희(2006), “비지시 대용어의 대용성”, 한국어의미학 19, 105~124.
양해승(2014),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이상훈(2009), “부사 ‘하물며’의 의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 《국어학논집》 6, 도서출판 역락, 209~222.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이선웅(2015), “통사 단위 "절"에 대하여”, 배달말 56, 77~104.
이선웅·이은섭(2013), “이론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문법”, 국어국문학 163, 249~277.
이선희(2003), “현대중국어의 주관량(主觀量) 대소전도현상과 어순변화”, 중국언어연구 17, 225~250.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이은령(2013), “'결국'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 한민족어문학 64, 5~36.
이익섭·채완(2000),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이홍매(2009), “부사 '자칫'과 '하마터면'의 의미, 통사, 화용 대비”, 한국언어문화학 6(1), 97~117.
이후인(2015),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월인.
임유종·박동호·홍재성(2001), “접속부사의 구문론적 특성”, 언어학 28, 177~209.
임유종(2005), 《수식언의 문법》, 한국문화사.
정희자(2009), 《담화와 문법 그리고 의미》, 한국문화사.
조애숙(2011), “韓日語副詞 「むしろ」와 「오히려」의 意味硏究”, 일본연구 48,

263~281.
조원형(2015), “한국어 연결어미의 기능 되짚어 보기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569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집, 한글학회, 91~106.
진가리(2014), “‘-다 못하-’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71, 229~257.
최규련(2005), 《국어의 초점사 현상》, 한국문화사.
최정진(2015), “‘과급(過給)’을 의미하는 ‘다 못해’ 구성의 특징”, 언어와언어학 67, 205~228.
최현배(1983),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Blakemore, D. (2002). Relevance and Linguistic Meanin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oan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Philadelphia: Benjamins.
Charles, M. (2009), “Stance, Interaction and the Rhetorical Patterns of Restrictive Adverbs: Discourse Roles of *Only*, *Just*, *Simply* and *Merely*”, in M. Charles, D. Pecorari, S. Hunston, ed., Academic Writing: At the Interface of Corpus and Discourse, New York: Continuum.
Cowie (ed.)(1998), Phraseology: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de Beaugrande R. & Dressler W.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Eckardt, R. (2011), Grammaticalization and semantic change,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Ernst, T. (2004), The syntax of adjun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ora, R. (1983), Segmentation and segment cohesion: On the thematic organization of the text, Text & Talk 3-2. 155~182.
Hopper, P. & E. C.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은일 외 역(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Hunston, S. and Francis, G. (2000), Pattern Grammar: A Corpus-Driven Approach to the Lexical Grammar of English (Studies in Corpus Linguistics, Vol. 4),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unston, S. (2002), Corpora in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Enery, Tony, Richard Xia, Yukio Tono (2006), Corpus-Based Language Studies, London: Routledge.

Sasamoto, R. (2008), Japanese discourse connectives dakara and sorede: a re-assessment of procedural meaning, J. Pragmat. 40, 127~154.

Siepmann, D. (2005), Collocation, collicaion and encoding dictionaries. Part I: Lexicological asp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18(4), 409~443.

Sinclair, J.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Universiry Press.

Stubbs, M. (1995), Collocations and Semantic Prosodies: On the cause of the trouble with quantitative studies, in Foundations of Language 2(1), 23~55.

Tomlin, R. S. (1985), Foreground-background information and the syntax of subordination, Text 5, 85~122.

Warren, M. (2009), "Why Concgram?", in C. Greaves, ed., Concgram 1.0: A Phraseological Search Engine, Amsterdam: John Benjamins, 1~11.

Warren, M. (2015), "I mean only really wanted to dry me towels because...: Organisational frameworks across modes, registers, and genres", in N. Groom, M. Charles, S. John, ed., Corpora, Grammar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45~160.

Winter, Eugene O. (1977), A clause-relational approach to English texts: A study of some predictive lexical items in written discourse, Instructional Science Volume 6, Number 1, 1~92.

부록: 말뭉치 자료 목록

드라마

1%의 어떤 것 1-26회
2008 전설의 고향 1-8회
2009 외인구단 1-16회
90일, 사랑할 시간 1-11, 14-16회
9회말 2아웃 1-16회
가문의 영광 1-50회
가시나무새 1-2회
강남엄마 따라잡기 1-18회
강적들 1-16회
개와 늑대의 시간 1-16회
개인의 취향 1-16회
거짓말 1-20회
거침없는 사랑 1-19회
거침없이 하이킥 1-167회
건빵선생과 별사탕 1-16회
검사 프린세스 1-16회
겨울연가 1-20회
결혼 못하는 남자 1-16회
결혼하고 싶은 여자 1-18회
결혼해 주세요 1-2회
경성 스캔들 1-16회
고독 1-20회
고맙습니다 1-16회
고스트 1-16회
공부의 신 1-16회
공주가 돌아왔다 1-16회
구미호 외전 1-16회
국회 1-20회
굿바이 솔로 1-16회
궁 1-24회
귀여운 여인 1-10, 13-16회
그 여자 1-20회
그대, 웃어요 1-45회
그대 그리고 나 1-58회
그들이 사는 세상 1-16회
그린 로즈 1-22회
그저 바라보다가 1-16회
글로리아 1-12회
기적 1-4회
김가 이가 1-25회
김치 치즈 스마일 1-12회
꼭지 1-50회
꽃보다 아름다워 1-30회
꽃보다 남자 1-20회
나쁜 남자 1-18회
남자이야기 1-20회

낭랑 18세 1-16회
내 마음을 뺏어봐 1-16회
내 마음이 들리니 1-26회
내 여자 1-24회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1-16회
내 이름은 김삼순
내 인생의 콩깍지 1-16회
내 인생의 스페셜 1-8회
내게 거짓말을 해봐 1-5회
내 남자의 여자 1-14회
내 사랑 내 곁에 1-4회
내 사랑 못난이 1-20회
내 사랑 팥쥐 1-10회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1-16회
내조의 여왕 1-20회
넌 어느 별에서 왔니 1-16회
네 멋대로 해라 1-20회
네 자매 이야기 1-20회
노란 손수건 1-132회
눈꽃 1-16회
눈물이 보일까봐 1-16회
눈사람 1-17회
눈의 여왕 1-16회
뉴하트 1-23회
닥터 깽 1-16회
닥터 챔프 1-16회
단팥빵 1-26회
달자의 봄 1-22회
달콤한 나의 도시 1-16회
달콤한 인생 1-19회
달팽이 1-16회
대물 1-24회
대한민국 변호사 1-16회
돌아와요 순해씨 1-16회
두 번째 프로포즈 1-16회
드림 1-20회
떼루아 1-8회
라이벌 1-20회
러브레터 1-16회
러브스토리 1-16회
러빙유 1-12회
로망스 1-16회
로맨스 헌터 1-16회
로열패밀리 1-18회
마당 깊은 집 1-8회
마왕 1-20회
마이 프린세스 1-6회
마이걸 1-2회
마이더스 1-3회
맛있는 청혼 1-16회
맨땅에 헤딩 1-40회
메리 대구 공방전 1-16회
명가 1-10회
명랑소녀 성공기 1-16회
모래시계 1-24회
못된 사랑 1-20회

몽땅 내사랑 1-103회
미남이시네요 1-16회
미스 리플리 1회
미스터 굿바이 1-16회
미안하다, 사랑한다 1-16회
민들레가족 1-16회
바보같은 사랑 1-20회
반달곰 내 사랑 1-16회
반짝반짝 빛나는 1-40회
발리에서 생긴 일 20회
밤이면 밤마다 1-17회
백설공주 1-16회
베토벤 바이러스 1-18회
변호사들 1-16회
별난 여자 별난 남자 1-170회
별순검 시즌 2 1-20회
별은 내 가슴에 1-16회
별을 따다 줘 1-20회
보고 또 보고 1-273회
봄의 왈츠 1-20회
부자의 탄생 10-11회
부활 1-24회
불꽃 1-20회
불꽃놀이 1-17회
불새 1-26회
불한당 1-16회
비단향꽃무 1-20회
비밀 1-18회
비밀남녀 1-20회
비밀의 교정 1-24회
비포&애프터 성형외과 1-20회
사랑한다 말해줘 1-15회
사랑해 당신을 1-16회
사랑해 울지마 16-45회
산부인과 1-16회
살맛 납니다 11-20, 100-101회
상도 1-50회
상두야 학교 가자 1-16회
성균관 스캔들 1-5회
세상 끝까지 1-16회
소문난 칠공주 1-80회
소울메이트 1-12회
설약국집 아들들 1-54회
수상한 삼형제 1-64회
수호천사 1-16회
순수 1-16회
순풍산부인과 496회
스타의 연인 1-20회
스타일 1-16회
승부사 1-24회
시트릿가든 1-2회
시티 홀 1-3회
식객 1회
신데렐라맨 1-16회
신데렐라 언니 1-18회
신의 저울 1-16회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1-8회
싸인 1-20회
썸데이 1-3회
아가씨를 부탁해 1-2회
아름다운 날들 1-24회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1-48회
아빠 셋 엄마 하나 1-16회
아이리시 1-8회
아이싱 1-16회
아일랜드 1-16회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1-7회
안녕 내사랑 1-16회
안녕하세요 하느님 1-16회
알게 될거야1-19회
애정의 조건 1-12, 14-39, 41-60회
어느 멋진 날 1-16회
얼렁뚱땅 흥신소 1-16회
얼마나 좋길래 1-125회
에덴의 동쪽 1-56회
에어 시티 1-16회
여름향기 1-7회
여우야 뭐하니 1-16회
역전의 여왕 1-2회
연애결혼 1-16회
연애시대 1-16회
연인 1-20회
열아홉 순정 1-30, 32-167회
열혈 장사꾼 1-20회
오! 마이 레이디 1-17회
오! 필승 봉순영 1-16회
옥션하우스 1-4회
옥탑방 고양이 1-16회
온달 왕자들 1-63, 65-130,148,170회
온 에어 1-21회
올드 미스 다이어리 1-232회
올인 1-24회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 1-16회
욕망의 불꽃 1-50회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1-44회
우리 집 1-20회
우리 집 여자들 1-24회
웃어라 동해야 1-155회
워킹 맘 1-16회
원더풀 라이프 1-16회
웨딩 1-18회
웨딩드레스 1-22회
위기일발 풍년빌라 1-16회
은사시나무 1-3회
이 죽일 놈의 사랑 1-16회
이브의 모든 것 1-20회
이웃집 웬수 1-10회
인생은 아름다워 1-15회
인생회보 1-201
인순이는 예쁘다 1-16회
인연 만들기 1-14회
자명고 1-21, 23-39회

장난스런 키스 1-16회
장밋빛 인생 1-24회
전설의 고향 -씨받이
제중원 1-17회
종합병원 2 1-6회
좋은 사람 1-16회
줄리엣의 남자 1-17회
즐거운 나의 집 1-2회
지붕 뚫고 하이킥 1-53, 99-125회
진실 1-16회
짝패 1-3회
쩐의 전쟁 1-16회
찬란한 유산 1-28회
천국의 계단 1-20회
천만 번 사랑해 18-25회
청춘의 덫 1-24회
초대 1-18회
최강! 울엄마 1-18회
최고의 사랑 1-2회
카이스트 6-67회
카인과 아벨 1-20회
칼잡이 오수정 1-16회
커피프린스 1호점 1-17회
커피하우스 1-8회
케세라세라 1-17회
코끼리 1-124회
쾌걸춘향 1-17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1-16회
타짜 1-20회
탐나는도다 1-15회
태양을 삼켜라 1-25회
태양의 여자 1-20회
토마토 1-16회
트리플 1-16회
파라다이스 목장 1-16,31회
파리의 연인 1-20회
파스타 1-20회
포도밭 그 사나이 1-16회
푸른 안개 1-20회
풀하우스 1-16회
프라하의 연인 1-5, 9-17회
프로포즈 1-14회
피아노 1-16회
하얀 거탑 1-20회
학교 1 1-16회
학교 2 1-42회
한성별곡 1-8회
햇빛 속으로 1-16회
행복한 여자 1-58회
헬로! 애기씨 1-16회
형수님은 열아홉 1-19회
호텔리어 1-20회
혼 1-5회
화려한 시절 1-50회
환상의 커플 1-16회
황금마차 1-196회

황금사과 1-30회
황금신부 1,0-22회
히트 1-20회

영화 대본

...ing
10억
301 302
4인용 식탁
7급 공무원
8월의 크리스마스
YMCA 야구단
가루지기
가문의 부활
가문의 영광
가을로
가족의 탄생
각설탕
간첩 리철진
강력 3반
강원도의 힘
강철중
거룩한 계보
거미숲
거북이 달린다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
걸프렌즈
검은 집
결혼은 미친 짓이다
고고70
고독이 몸부림칠 때
고사 - 피의 중간고사
고양이를 부탁해
공공의 적
광식이 동생 광태
괴물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국가대표
국화꽃 향기
굿모닝 프레지던트
귀여워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놈 목소리
그놈은 멋있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랑프리
그해 여름
극락도 살인사건
기막힌 사내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김씨 표류기
김종욱 찾기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쁜 남자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남극일기
내 마음의 풍금
내 깡패같은 애인
내 사랑 내 곁에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너는 내 운명
넘버 3
누가 그녀와 잤을까
누구나 비밀은 있다
님은 먼곳에
다세포소녀
다찌마와리
단적비연수
달마야 놀자
달콤, 살벌한 연인
달콤한 인생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댄서의 순정
데이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마뱀
동감
동갑내기 과외하기
동승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두사부일체
뚫어야 산다
라디오스타
라이터를 켜라
령
로드무비
리베라 메
마더
마들렌
마린보이
마을금고연쇄습격사건
마이제네레이션
마이 파더
마지막 늑대
말아톤
말죽거리 잔혹사
맨발의 기봉이
맨발의 꿈
멋진 하루
미녀는 괴로워
미술관 옆 동물원
미스터 소크라테스
밀양
바람난 가족
바람피기 좋은 날
바르게 살자
박봉곤 가출사건
박수칠 때 떠나라
박쥐
박하사탕
반가운 살인자
반칙왕
방과후 옥상
방자전
백만장자의 첫사랑
버스정류장
번지점프를 하다
범죄의 재구성
베스트셀러
복수는 나의 것
봄날은 간다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부당거래
부산
분홍신
불꽃처럼 나비처럼
불어라 봄바람
불후의 명작
뷰티풀 선데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비밀애
비스티 보이즈
빙우
뽕
사랑니
사랑따윈 필요없어
사랑을 놓치다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사랑해 말순씨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새드무비
색즉시공
선물
선생 김봉두
소년, 천국에 가다
수취인불명
숙명
순애보
쉬리
슈퍼스타 감사용
스승의 은혜
스카우트
시
시라노 연애조작단

시월애
시크릿
식객-김치전쟁
신라의 달밤
신부수업
심장이 뛴다
싱글즈
싸움의 기술
써니
아 유 레디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아는 여자
아랑
아름다운 시절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아이스케키
아저씨
아파트
악마를 보았다
악어
안녕! 유에프오
안녕, 형아
알포인트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약속
어깨너머의 연인
어린 신부
억세게 운수 좋은 날
얼굴 없는 미녀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엠
여고괴담5
여배우들
여자, 정혜
역도산
연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연애소설
연애의 목적
연풍연가
열혈남아
엽기적인 그녀
영어완전정복
영화는 영화다
예스터데이
예의 없는 것들
오! 브라더스
오! 수정
오감도
오로라공주
오아시스
올가미
올드보이
와니와 준하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일드카드
외출
용서는 없다
용의주도 미스 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형
우리 동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묵배미의 사랑
우아한 세계
울학교 이티
웰컴 투 동막골
위대한 유산
유령
육혈포 강도단
음란서생
의형제
이중간첩
인디안 썸머
인사동 스캔들
인샬라
인어 공주
인터뷰
인형사
일단 뛰어

자카르타
잔혹한 출근
잠복근무
장화, 홍련
전설의 고향
접속
정사
조선명탐정
조용한 세상
조용한 가족
좋지 아니한가
주먹이 운다
주홍글씨
죽이고 싶은
중독
중천
즐거운 인생
지구를 지켜라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질투는 나의 힘
집행자
짱
쩨쩨한 로맨스
처녀들의 저녁식사
천하장사 마돈나
청담보살
청연
청춘만화
첼로-홍미주 일가 살인 사건
초록물고기
최강로맨스
추격자
친구
친절한 금자씨
카라
클래식
클럽 버터플라이
킬러들의 수다
킹콩을 들다
타짜
태극기 휘날리며
태양은 없다
태풍
텔미 썸딩
퇴마록
투캅스
튜브
파괴된 사나이
파란 대문
파란 자전거
파랑주의보
파송송 계란탁
파업전야
파이란
펀치레이디
편지
평양성
평행이론
폭력써클
품행 제로
플라스틱 트리
플라이 대디
플란다스의 개
피도 눈물도 없이
피막
하녀
하루
하얀 방
해변의 여인
해안선
해피 엔드
행복
행복한 장의사
헬로우 고스트
혈의 누
형사 Duelist
호로비츠를 위하여
홀리데이
홍길동의 후예
홍반장
화려한 휴가

ABSTRACT

Adverbial Expressions Forming Clause Collocations

Choi Jongw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adverbial expressions that form clause collocations. In the process, we examine construction's grammar of adverbial expressions which deal with in this paper. Clause collocation is an intimately related semantic co-occurrence pattern between two clauses. In this study, 10 selected adverbial expressions and their grammar details are described, and the patterns of clause collo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m. The 10 adverbial expression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semantic categories for the discussion.

Chapter 2 introduces the concept of clause collocation, and looks into the relation between adverbial expressions and clause collocations. Clause collocations can be regarded as semantic recurrent patterns between specific clauses. In Korean, a typical element that determines the relation between clauses is connective endings. However, adverbial expressions can also have effect on a semantic relation between clauses. The current study introduces semantic prosody, to examine clause collocations and the characters of adverbial's constructions.

Chapter 3 suggests adverbial expressions which represent that one situation is piled up on another situation. '가뜩이나' and '안 그래도$_3$' are similar not only in the semantic patterns but also in the syntactic patterns. Thus, the two constructions are identified to resemble each other. '더욱이', which belongs to

conjunctive adverbs, is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its function to express an additionally overlapped situations and a relation to its following clauses.

Chapter 4 examine adverbial expressions '차라리', '오히려', '하다못해', and '하물며', which are related to decision of criterion. '차라리' and '오히려' are similar in meanings, so their usages are expanded by semantic contagions. '하다못해' and '하물며' undergo a semantic contagion, too. The contagion is closely concerned to analogy and metonymy.

In chapter 5, adverbial expressions such as '어쩐지', '아니나 다를까' and '어차피',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reason of a speaker's decision, are investigated. Especially '어쩐지' and '아니나 다를까' are similar not only in their usages but also in the patterns of construction. '어차피' has a various usage depending on contexts. '어차피' is identified to have clause collocations which generally include reasons for a certain decision.

In chapter 6, conclusions and discussions of residual matters are presented.

Key word: clause collocation, co-occurrence, pattern, adverb, adverbial expression, criterion

Student Number: 2014-22231